세계지역전략연구 21-08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박단 · 박현도 · 성일광 · 장지향 · 정재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세계지역전략연구 21-08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박 단 · 박현도 · 성일광 · 장지향 · 정재욱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세계지역전략연구 21-08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인 쇄 2021년 12월 24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거목정보산업(주)(044-863-6566)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9038-6 94320
978-89-322-9000-3(세트)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세변화에 따른 역내 정치 · 안보 질서 변화와 함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논의한다. 이란의 위협과 미국의 '단계적 중동 떠나기'가 궁극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협력을 불러왔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중동에서 아랍 순니 왕정국과 이란 이슬람혁명 세력 간 대결이 격화되었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혁명 세력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스라엘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대결 양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이래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과 단계적 중동 떠나기 전략 또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초래하였다.

제3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역내 정치 · 안보 질서 변화를 살피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등 순니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이 이란, 후시, 헤즈볼라의 시아 동맹과 벌이는 역내 영향력 대결 구도를 분석한다. 또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 이후 친이슬람주의 성향의 카타르와 터키의 외교정책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들여다본다. 카타르는 이란과 터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변 걸프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살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도 UAE, 바레인,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

터키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NATO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터키는 비록 민주주의 규범에서 많이 어긋나있는 나라지만, 유럽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터키와의 관계 설정에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터키-미국 관계가 재설정될 뿐 아니라, 역내에 심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현황을 UAE와 이스라엘,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21년 3월까지 이스라엘과 UAE는 86여 개의 양자협정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양국간 교역량은 급증하였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CBS)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약 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이스라엘의 대UAE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4배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이스라엘에서 UAE로부터의 수입이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만 약 2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교역 총량은 약 3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9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2020년 10월, 양국간 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5개가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국가는 경제 및 교역, 항공,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공유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기술협력, 혁신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3개 협력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다. 협정 체결 이전까지 전무하던 이스라엘-바레인 간 교역량이 2021년 상반기 동안 30만 달러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의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UAE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한-이스라엘 FTA 활용을 통한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나아가 한-이스라엘-UAE 간 3각 경제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랍-이스라엘 관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확대 등 새로운 변화에도 앞으로 상당한 부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개별 기업이 이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중동 지역 정세나 경제협력에 대해 조사 · 전망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역내 시장에서 이스라엘과 경합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역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이스라엘의 대중동 시장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중동 시장에 수출하는 경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한-이스라엘 FTA가 교역 외에도 투자, 기술협력,

벤처 창업 협력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 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나 합작 등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거점을 두고 중동 역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FTA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향후 이스라엘이 UAE 등 아랍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이스라엘 FTA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나아가 한-이스라엘-UAE간 3각 경제협력도 고려해볼 수 있다. 3각 협력 당사자의 한 축인 UAE와 이스라엘이 역내 정치 · 외교적 갈등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호협의하에 협력 사업을 발굴 · 기획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오히려 그간 두터운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온 한 · UAE 및 한 · 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3자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수요가 뚜렷한 분야를 찾아내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랍 · 이스라엘 간 정치 · 외교적 문제에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 분야가 협력의 틀을 제시하되 궁극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UAE 및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구상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차 례

국문요약 ····· 3

제1장 머리말 ·····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 14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 15

제2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배경과 전개 ····· 17

1. 아브라함협정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개요 ····· 18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역사적 배경 ····· 22
   가. 이란의 위협 ····· 22
   나. 미국의 단계적 중동 떠나기 ····· 29
3. 아랍-이스라엘 전략적 연대 ····· 35
4. 아랍-이스라엘 안보 · 경제협력 ····· 43

제3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중동의 변화와 전망 ····· 55

1.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터키와 카타르 ····· 56
   가. 터키 외교 · 안보 정책 변화와 전망 ····· 56
   나. 카타르 외교 · 안보 정책 변화와 전망 ····· 73
2. 아브라함협정의 도전과 한계 ····· 77

제4장 아브라함협정 이후 역내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 85

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및 현황 ····· 87
2. 아브라함협정 이후 경제협력 현황 ····· 90

3. 이스라엘-UAE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효과 분석 ····· 98

제5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의 한-중동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 107

1.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GCC 수출 경합도 분석 ····· 108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전개에 대한 전망과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 117
   가.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에 대한 전망 ····· 117
   나.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 121

참고문헌 ····· 127

Executive Summary ····· 140

표 차례

표 4-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비교 ····· 88
표 4-2. 아브라함협정 전후 이스라엘-UAE 간 교역량 ····· 93
표 4-3. UAE의 대이스라엘 수입 중 무역창출 효과 상위품목 ····· 102
표 4-4. UAE의 대이스라엘 수입 중 무역전환 효과 상위품목 ····· 103
표 4-5. 이스라엘의 대UAE 수입 중 무역창출 효과 상위품목 ····· 104
표 4-6. 이스라엘의 대UAE 수입 중 무역전환 효과 상위품목 ····· 105

그림 차례

그림 4-1. 중동 주요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 89
그림 4-2. 중동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유입 추이 ····· 90
그림 4-3. 이스라엘과 UAE 간 부문별 협력 진행 현황 ····· 92
그림 5-1. 주요국의 미국 실용특허 출원 추이 ····· 111
그림 5-2. 제조업 부문 미국 실용특허 비중(2008~12년 누적) ····· 112
그림 5-3.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 경합도 추이 ····· 113
그림 5-4.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 경합도 비교 ····· 114
그림 5-5. UAE의 10대 수출품과 이스라엘의 10대 수입품 ····· 116
그림 5-6. UAE의 10대 수입품과 이스라엘의 10대 수출품 ····· 116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평화안'을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에 합의하면, 아랍연맹 회원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내용의 평화안이었다. 아랍연맹 회원국은 찬성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진전이 없었다. 그런데 2020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협정'을 체결하여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수단과 모로코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였다.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시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랍-이스라엘 화해 분위기, 즉 데탕트(Détente)가 시작한 것이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2002년 아랍평화안을 폐기하였을 뿐 아니라, 중동지역 내 정치 · 경제 지형에도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첫째, 안보환경 관점에서 순니 아랍국가와 이란 중심의 시아파 세력(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의 후시 반군) 간 역내 대결 구도에 이스라엘이 파고들어 순니 아랍국가 편에 서면서, 순니와 시아 세력 간 대결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하면 단기적으로는 역내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역내 갈등이 유지될 것이다. 핵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역내 긴장감 고조는 불 보듯 뻔한 형국이다.

터키와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역내 정세 변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개입하지 않은 역내 분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터키는 여러 분쟁에 관여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대카타르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카타르는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

다. 카타르가 전통적으로 역내 이슬람주의 세력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중동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따라서 최근 터키와 카타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대미 관계는 물론, 대아랍 관계도 개선하며 향후 역내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둘째,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경제협력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탈석유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아랍 국가와 세계적 기술선진국 이스라엘은 서로 보완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룬 아랍국가는 이스라엘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중동진출을 위하여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역내 정치·안보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 및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야 한다.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4개국은 이미 이스라엘과 경제협력을 시작하였거나, 확대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미국, 이스라엘, UAE 3국은 아브라함협정에 포함된 경제교역 확대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약 3억 달러 상당의 '아브라함 펀드'를 조성하였다. 이스라엘은 수단과 의료서비스, 농업, 상수도 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고, UAE와 바레인은 재생에너지, 제약, 스타트업, 의료서비스,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투자와 금융 분야 경제협력에 서명하고, 양국간 교역량을 5억 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밝힌 바 있다.[1)]

아랍-이스라엘 화해 분위기와 함께, 코로나 백신 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역내 경제 상황 호전과 유가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여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아랍과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분야 및 효과, 양측의 화해가 역내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역내 정치와 안보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1) "Israel, Morocco sign first economic agreement"(2020. 12.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

전망하고, 함의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미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에 합의한 4개국 외 다른 아랍국가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다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될 것이다. 또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으로 확대될 것인 만큼, 우리나라와 중동국가 간 경제협력 방향을 전망하고, 실제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

본 연구는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한다. 정세변화에 따른 역내 정치 · 안보 질서 변화와 함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상징인 2020년 아브라함협정의 의미를 살펴보고,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역내 정치 · 안보 질서 변화를 전망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중심으로 한 순니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이 한 축을 이뤄 이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시반군을 중심으로 한 시아 세력과 역내에서 어떻게 대립할 것인지 살펴보고, 역내 정치 · 외교의 다른 한 축인 친이슬람주의 카타르와 터키의 움직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각기 역내 정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 외 다른 아랍국가 역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등,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장기적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아랍-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장기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한다면 여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주요 중동국가와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본다. 아브라함협정 이후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어떤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아랍-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및 통계 분석과 함께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아랍-이스라엘 간 수교와 경제협력을 다루는 만큼, 언론 보도와 최신 연구를 기초자료로 삼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현지 출장이 어려운 만큼 현지 전문가와 연구기관과의 대면/비대면 회의를 통해 정책 문헌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의 구성 및 차별성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범위 및 방법론, 연구의 구성, 기존 연구에서 볼 수 없는 차별성 등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논의한다. 이란의 위협과 미국의 '단계적 중동 떠나기'가 궁극적으로 아랍과 이스라엘 간 협력을 불러왔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아랍 순니 왕정국과 이란 이슬람혁명 세력 간 대결이 격화되었다.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혁명 세력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여 이스라엘과 충돌하였다. 이러한 대결 양상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이래 추진한 아시아 회귀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기 전략을 구사하면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이루어졌음을 제2장에서 적시한다.

제3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역내 정치 · 안보 질서 변화를 살피고,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UAE 등 순니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이 이란, 후시, 헤즈볼라의 시아 동맹과 벌이는 역내 영향력 대결 구도를 분석한다. 또한 아브

라함협정 체결 이후 친이슬람주의 성향의 카타르와 터키의 외교정책이 역내 질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들여다본다.

제4장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상황을 살피면서, UAE와 이스라엘,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보고서 전체의 분석내용을 요약하고,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한·중동 경제협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UAE를 비롯한 주요 중동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KOTRA(2020)가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중동 주요국 ICT 분야, 탈석유 산업, 산업 다각화를 포함하는 스마트테크 수요와 우리 기업의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로는 이권형 외(2018)가 있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기본 정책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및 한·중동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범, 안 령(2018)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현지화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최근 급진전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분위기가 조성하고 있는 역내 변화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라는 새로운 정치 현상이 역내 정세와 경제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전망한다. 또한 터키, 이란, 이스라엘, 걸프 아랍국 등 관련 국가 연구 전문가들이 대상 국가를 전담하여 기존 연구와 달리 연구 전문성과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제2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배경과 전개

1. 아브라함협정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개요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역사적 배경
3. 아랍-이스라엘 전략적 연대
4. 아랍-이스라엘 안보 · 경제협력

1. 아브라함협정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개요

2020년 8월 UAE와 이스라엘이 양국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어 9월에는 백악관에서 UAE,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딴 아브라함협정(Abraham Accords) 서명식을 열어 전 세계에 역사적인 관계 정상화를 알렸다. 나흐얀(Abdullah al-Nahyan) UAE 외무장관, 자야니(Abdullatif al -Zayani) 바레인 외무장관,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양자 및 3자 협정에 서명하였고,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증인 자격으로 문서에 공동 서명하였다. 중동 평화 중재자를 자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앞으로 몇 나라가 더 이스라엘과 수교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곧이어 수단과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수교에 합의하였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흐름에 가담한 아랍국가는 이스라엘과 상호 경제협력 증진 작업에 곧바로 착수하였다. UAE와 이스라엘은 투자, 관광, 직항로, 에너지, 스타트업, 보안, 통신, 의료 및 COVID-19 백신 개발 협력에 합의하였다. 바레인과 이스라엘 역시 기업 투자, 관광, 혁신 기술 분야 협력을 약속하였다.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 합병을 중단한 이스라엘은 수단과는 의료서비스, 농업, 상수도 분야 협력을, 모로코와는 투자와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브라함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쿠슈너(Jared Kushner)가 배후에서 중재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고자 쿠슈너는 2017년부터 중동 지도자들과 만나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둔 중동 평화안 설득에 나섰지만 큰 호응을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쿠슈너의 새로운 평화안은 서안과 가자지구 경제 발전을 강조하였으나, 쿠슈너의 편파적인 친이스라엘 행보 때문에 별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옮겼고, 9월에는 워싱턴 주재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부를 폐쇄하였다. 2019년 2월에는 팔레스타인 영사관 문을 닫고, 이스라엘 대사관 산하 팔레스타인부로 강등하여 이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친이스라엘 정책의 배후에 쿠슈너가 있었다.

하지만 쿠슈너가 중재한 걸프 지역 순니 아랍국과 이스라엘 간 아브라함협정은 달랐다. 아브라함협정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지 않았고, 중동을 둘러싼 갈등 일변도의 오랜 관성과 구시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신선한 충격을 준 외교적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2]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도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구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협정 체결을 환영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장기 무력 충돌, 팔레스타인 정치조직 파타(Fatah)와 하마스(Hamas)의 무능과 부정부패에 지쳐있던 여러 아랍국가는 아브라함협정에서 민족주의라는 당위성에서 벗어나 역내 질서 안정을 추구하는 새로운 안보협력의 메커니즘을 볼 수 있었다.[3] 오랫동안 아랍국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서 같은 아랍 민족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시민사회 탄압에는 침묵하고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협정 체결 직후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평화협정이 아랍의 단결을 훼손한다고 비난하였으나, 아랍 세계는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에 패배하자, 이후 무려 15년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권위주의 통치를 고수하고 있다.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중동 지역의 정치 · 안보 질서와 경제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이란의 역내 팽창주

2) "A Geopolitical Earthquake Just Hit the Mideast"(2020. 8.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8).
3) Al-Ketbi *et al.*(2020. 9. 14), "The UAE-Israel Breakthrough: Bilateral and Regional Implications and U.S.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8).

의 행보[4]와 미국의 '중동 떠나기' 계획에서 파생된 만큼, 순니 걸프국과 이스라엘은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란 강경파 혁명수비대와 이란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온 중동 지역 내 프록시(대리조직) 세력의 점진적 확산에 맞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시작되면서, 이란 울라마(Ulama)-혁명수비대 보수 지배연합은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에 친이란 프록시를 육성하여 역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시도하였다.[5] 특히 정예군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반미 이슬람 혁명의 역내 수출을 위하여 핵개발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브라함협정체결 이후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에 맞서고자 UAE가 개방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력 관련 정보를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수집하여 이란발 위협을 UAE와 바레인에 빠르게 알려주고 있으며, UAE와 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하였다.

저유가에 따른 재정 감소와 청년층 의식 변화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정권 내구성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두 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혁정책의 성공에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의 활발한 경제협력 역시 현재 양국이 파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다변화 정책과 첨단 산업 활성화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권 안정을 위하여 2010년대 중반 이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보수 이슬람 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단행하고 있다.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경제협력은 이러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이 UAE에 다수 진출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개방 프로젝트에도

---

4) "How Trump's Middle East Plan Could Boost the Region"(2020. 9. 15), 온라인 기사; "Quiet ties and secret talks paved way for UAE-Israel deal"(2020. 8. 19),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5. 18).

5) 울라마는 넓게는 이슬람교 종교지식인, 좁게는 이슬람법학자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란의 지배층인 시아파 이슬람 종교지도층을 말한다.

이스라엘 출신 자문단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걸프의 순니 아랍국과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3국 간 정보기술과 군사 · 경제협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2021년 1월 출범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중동 정책은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란 강경파가 국내 정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 복원을 서두르며 중동 내 미국의 역할 축소를 선언하자, 걸프 순니 아랍국과 이스라엘은 중동판 나토 형식의 반이란 군사 동맹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걸프 순니 아랍국은 이스라엘을 미 중부사령부에 편입하는 것에 반대하던 기존의 입장을 최근 철회하였다. 미 중부사령부는 극단주의 테러 조직의 위협에 맞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산유국의 안보를 지켜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중부사령부 담당 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이 떠날 경우 생길 안보 공백 위기를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기존 친미 순니 아랍 4국으로 불리던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간 균열이 불거졌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주도적으로 이끌던 UAE가 이스라엘과 안보 ·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동 내 이집트의 역할과 영향력이 줄어들자 이집트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집트는 UAE보다 41년 앞선 1979년에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1950년대 나세르(1918~1970, Gamal Abdel Nasser) 대통령 시대부터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이끈 이집트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아랍 세계의 대미, 대이스라엘 관계에서 독보적 위치를 지켜왔다. 그러나 2013년 시시(Abdel Fattah al-Sisi)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슬림형제단 정부를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시 권위주의 국가로 되돌리면서 이집트-미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 그러나 올해 이집트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을 중재하면서 냉랭한 분위기에 변화가 일었다.

이란의 역내 패권 추구에 맞선 걸프 순니 아랍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연합

이 이란 강경파를 자극하여 역내 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외 인식 여론이 민족주의와 종파주의를 지양하고 실용주의 추구를 선호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한다면, 양국이 이란과 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경제 개혁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안보협력을 꾀하되 이란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이루어진 것일까? 1948년 이래 아랍 세계의 민심을 좌지우지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은커녕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격적으로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첫발을 뗀 이유는 무엇일까?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역사적 배경

2020년 아브라함협정이 대변하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탄생의 배경에는 1979년 이슬람혁명 성공 이래 이란이 추구해온 역내 팽창주의 행보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에 바탕을 둔 미국의 '중동 떠나기'가 자리 잡고 있다.[6] 그럼 이란의 위협과 미국의 탈중동 정책이 어떻게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초래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다.

가. 이란의 위협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단순히 이란 내부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중

6) "How Trump's Middle East Plan Could Boost the Region"(2020. 9. 15), 온라인 기사; "Quiet ties and secret talks paved way for UAE-Israel deal"(2020. 8. 19), 온라인 기사(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5. 18).

동 전역, 더 나아가서는 무슬림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서구식이 아니라 이슬람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른바 이슬람주의 운동이 구체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사례다. 1967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로부터 6일 전쟁이라는 치욕과 좌절을 맛본 아랍국가, 더 나아가 무슬림 세계는 1973년 4차 중동 전쟁에서 석유를 무기로 한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워 자존심을 세웠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이러한 흐름의 정점에서 이슬람식 삶의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란이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당시 순니 이슬람주의자인 마우두디(1903~1979, Mawlana Sayyid Abul A'la Mawdudi)가 공언하였듯, 이슬람주의자들은 이란의 이슬람혁명을 시아파의 혁명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슬람혁명으로 인정하였다.[7)]

1953년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민족주의자 모사데그(1882~1967, Mohammad Mossadegh) 총리로부터 권력을 되찾은 이란의 왕 파흘라비(1919~1980, Mohammad Reza Pahlavi)는 1963년부터 '백색혁명'으로 근대화를 야심차게 추진하였다. 혁명 이전까지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쌍둥이 기둥(Twin Pillars)'으로 불리는 친미 국가로, 냉전 시대 중동을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미국의 안보 동반자였다. 그러나 이슬람혁명을 거치면서 이란은 친미 중동 안보 쌍둥이 기둥에서 반미 선봉장으로 급변하였다.

더 나아가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에 굴종하는 비이슬람국가라고 비판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자국에 파급될까 보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단 사우디아라비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아랍, 이슬람, 왕정을 공통분모로 삼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6개국이 1981년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를 결성한 결정적 이유도 바로 친미 세속 왕정을 무너뜨리고 반미 이슬람 공화정을 세운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자국으로 퍼질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

7) Fuchs(2021), p. 2.

이다. 더욱이 호메이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명에 집안 이름 '사우드'를 쓴다고 조롱하고, 미국에 굴종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국가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무슬림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무슬림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란을 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불신의 눈길은 혁명 직후 메카 대순례에 참가한 이란 무슬림들이 외친 구호를 잘못 알아들은 데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은 이란 혁명 후 메카 대순례 기간이 이전과 달리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는 이란 혁명의 수출장으로 변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극도의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81년 대순례에서 이란 순례자들은 "신은 가장 위대하시고(아크바르), 호메이니는 지도자(라흐바르)", "신은 한 분(와히드), 호메이니는 지도자(까이드)"라고 외쳤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메이니를 가리키며 쓴 라흐바르, 까이드를 아크바르, 와히드로 잘못 알아듣고 "신은 가장 위대하시고, 호메이니는 가장 위대하시다", "신은 한 분, 호메이니는 한 분"으로 이해하였다.[8] 1987년 7월 순례 기간에는 이란 순례자들이 반미,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며 호메이니의 사진을 흔들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찰과 충돌하여 무려 402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란 혁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혁명 수출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진정한 무슬림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만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이슬람은 잘못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이 참된 이슬람임을 이웃 무슬림 형제들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 종교이념인 와하비(Wahhabi) 사상을 유포하였다.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누가 진짜 무슬림인지 증명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것이다. 2017년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였을 때 살만(1935~, 재위 2015~,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국왕은 1979년 이후의 중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8) Kramer(2009), p. 168.

"호메이니 혁명 이후 현재까지 이란 정권은 전 세계 테러를 이끌어왔다. 1979년 호메이니 혁명이 시작되기 전 300년간 우리나라는 테러나 극단주의를 모르고 살아왔다. 이란은 선량한 이웃들을 모두 거부하였다."[9]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날 무슬림 테러의 근본 원인으로 1979년 이란 혁명을 꼽는다. 2017년 10월 무함마드 빈 살만(1985~, 재위 2017~,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일어난 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습이 아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중동의 모습이 아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란의] 모델을 베끼려고 하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러한 나라 중 하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문제가 전 세계로 퍼졌다. 이제 이를 없앨 때다."[10]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극단주의 종교사상을 지닌 이란과 대화를 할 여지가 전혀 없고, 이란의 공세에 직접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혁명 수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란은 강온전략을 쓰면서 세계가 분노하면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을 속여왔지만, 더는 이란의 술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수호하고 있는 이슬람 성소이자 예배 방향인 메카 정복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그러한 전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란에서 일어나도록 힘쓸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돌이켜보면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이란에게 유리한 환경이 중동에 조성되었다. 2004년 압둘라 2세(1962~, 재위 1999~, Abdullah II bin Al-Hussein) 요르단 국왕은 미국 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라크에서 민주 선거를 치르면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이란-이라크-시

9) "Arab-Islamic-American Summit Kicks off in Riyadh"(2017. 5. 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9).
10) "I will return Saudi Arabia to moderate Islam, says crown prince"(2017. 10.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

리아-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시아초승달(Shiah Crescent)"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11] 그런데 압둘라 2세가 걱정한 대로 이란의 영향력은 예멘까지 퍼졌다. 압둘라 2세가 우려했던 시아초승달이 시아보름달(Shiah Full Moon)로 만개한 중동이 되었다는 것이 반이란 국가의 진단이다.[12] 2011년 아랍의 봄 혼란기에 발생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끄는 시아파 민병대가 친이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켜내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아랍 세계에서 더욱 강건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되어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란 세력을 축출하려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를 "중동의 히틀러"[13]라고 부르면서 1979년 이란 혁명 체제를 무너뜨리기 전에는 중동에 평화는 없다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다. 반이란 전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은밀히 협력하였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권력 핵심부가 상호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의 밀접한 관계를 공표하지 못하는 것은 머리로 국가전략을 생각하는 지도층과 가슴으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국민 여론, 특히 이슬람주의자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서 자칫하면 왕정의 안정을 흔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친이스라엘, 친유대교 언행이 아직은 사회적 금기인 무슬림 사회의 여론을 함부로 거스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중동에서 반이란 전선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이스라엘은 이란만 빼고 역내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넓히겠다고 선언하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이란을 '불량정권, 광신도정권, 세계 최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하고, 이란이 '죽음, 파괴, 혼란'밖에 모른다고

---

11) "Hardball with Chris Matthews: King Abdullah II of Jordan"(2004. 1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12) "Young Prince in a Hurry"(2016. 1.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13) "Iran's supreme leader 'the new Hitler', says Saudi crown prince"(2017. 11.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4).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맺은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폐기를 거론하며 이란을 전면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미국의 반이란 전선은 강고해졌고, 이에 이란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대응전선을 구축하려고 애썼다.

이란 혁명 이후 이란 지도층은 반이스라엘 노선을 확고하게 보여주었고, "카르발라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구호로 예루살렘 탈환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역내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란이 만든 반이스라엘 항쟁 프록시 헤즈볼라는 이란의 후원 아래 레바논을 장악하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란은 종파를 가리지 않고 반이스라엘 투쟁조직을 아낌없이 지원한다. 순니파 이슬람원리주의 무장조직 하마스 역시 반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이란의 물적 지원을 받고 있다.

UAE와 바레인도 이란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UAE는 이란과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유전지대의 아부무사(Abu Musa), 대(大)툰브(Tunb al-Kubra), 소(小)툰브(Tunb al-Sughra) 등 3개의 섬을 두고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국이 UAE 지역에서 철수하기 직전인 1971년 11월 30일부터 이란은 이들 섬을 실효 지배하고 있다. UAE는 이들 섬이 라으술카이마 아미르(Emirate of Ra's al-Khaimah)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이들 지역을 호르모즈간(Hormozgan)주 관할영역으로 간주한다.

UAE가 카타르와 외교를 단절하고 예멘 전쟁에 참여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발을 맞추어 역내 대이란 전선을 구축한 것도 이란을 자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이자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이란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 군사협력을 맺어 아부다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프랑스 해군에 향후 50년간 사용권을 준 것도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평화부대(Camp de la paix)로 명명한 이 프랑스 군사기지는 프랑스 역사상 자국과 아프리카 외의 지역에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육해공

군이 사용하는데, 해군 자예드(Zayed) 기지, 공군 자프라(Dhafra) 기지, 약 400여 명의 병력을 수용하는 병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레인은 이란의 바레인 병합 야욕을 늘 예의주시해왔다. 1958년 이란은 바레인을 이란의 14번째 주로 선언하고 의회 2석을 할당한 바 있다. 1968년 영국이 1971년에 바레인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바레인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1970년 5월 11일 유엔은 바레인의 독립을 결의하였고, 이란이 이에 동의하면서 이란의 바레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시아파 주민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기에 바레인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래 이란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의 시아파 성직자 니므르 안니므르(Nimr al-Nimr)를 처형하자, 성난 이란 주민들이 테헤란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을 공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고, 바레인 역시 이란과 단교하고 양국 왕복 항공편을 중단하였다.

1979년 이슬람혁명이 성공하여 이란의 정치체제가 친미 세속왕정에서 반미 이슬람공화정으로 급변한 이후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안녕을 해치는 적성국으로 여겨왔다. 2002년 이란 반정부 단체가 이란의 핵개발 진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면서, 미국과 서방뿐 아니라 이웃 아랍국가와 이스라엘도 이란을 극히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며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2020년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초래한 중동 정세변화의 핵심 변수는 다름 아닌 이란의 핵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주권국가로서 평화로운 목적의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란과 핵개발 자체를 막으려는 미국의 줄다리기는 아흐마디네자드(Mahmoud Ahmadinejad) 대통령 재임 8년 동안(2005~13) 팽팽하게 이어졌다. 미국은 제재와 압박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이란을 옥죄었다. 그 결과 2015년 P5+1(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E3/EU+3이라고도 함)이 이란과 JCPOA를 맺어 이란의 핵개발이 멈추는 듯하였다. 그러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였고, 이에 맞서 2019년부터 이란도 JCPOA에서 규정한 조건 이상으로 핵개발 강도를 높였다. 2021년 새로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JCPOA 복원을 모색하며 대화를 시도하면서 강경 대치 상황에 변화가 오는 듯하였으나 이란의 거부로 미-이란 직접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JCPOA 4개국을 중재자로 두고 간접 대화로 6월 20일까지 6차 회담을 마쳤고, 관련 당사국의 최종 결정만을 남긴 상태다. JCPOA 복원을 기대하는 낙관적인 분위기였으나, 6월 대선에서 이란 행정부가 강경파로 바뀌면서 이란이 재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차기 회담을 계속 미루다 11월 29일에 재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나. 미국의 단계적 중동 떠나기

미국의 중동 떠나기 전략은 오바마 정부 시기에 시작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중동정책은 '역외 균형(Offshore Balancing)' 기조와 '뒤에서 이끄는(Leading from Behind)' 방식을 택하였고,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에 집중하였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강경 보수파를 견제하고자 핵합의에 성공하여 온건 개혁파에 힘을 실어준 다음, 더 나아가 중동 지역 내 힘의 균형까지 끌어내며 중동에서 서서히 떠나려고 하였다. 셰일(Shale) 에너지 덕에 중동 의존도가 준 데다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참전에 따른 피로감과 두 전쟁을 보는 국민 여론이 악화한 것이 중동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였다.

이러한 전략은 시리아 내전에도 적용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이란 울라마 체제의 혁명수비대를 약화하고자 역외 균형 전략을 썼다. 2015년 역사적인 JCPOA 타결로 이란 온건 개혁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울라마-혁명수비대 강경 보수연합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핵합의 성사 후 치러진 2016년 2월 국회와 전문가의회 선거에서 루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이 이끄는 온건 개혁파가 약진하였다. 온건 개혁파 후보들이

최대 격전지 테헤란을 석권하였고, 보수연합 소속 정치 거물은 대거 탈락하였다. 도시 중산층, 젊은 세대, 여성 유권자가 제재 해제의 주역인 온건 개혁파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핵협상 타결 이후 활성화된 민영화와 시장개방 정책을 적극 반대하던 강경 보수연합은 선거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강경파 약화 전략은 이란 밖에서 무너졌다. 2017년 중반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지지를 두고 서로 대치하던 나라들이 공동의 적 IS를 격퇴하고자 대대적인 공습과 지상전에 상호협력하였다. 2017년 말 반IS 국제연합전선은 IS 지도부를 시리아 락까(Raqqa)와 이라크 모술(Mosul)에서 축출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이란과 러시아의 지원 속에 생존하였다. 미국이 아사드 정권 붕괴보다 IS 축출에 몰입하는 동안 이란 강경파의 영향력은 급부상하였다.

오바마의 후임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외교 기조인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중동에도 적용하여 동맹 · 우방국의 일탈을 부추기고 역내 혼란을 가중하였다. 트럼프 정부 시기 미국의 '중동 떠나기'는 동맹과 지정학에 대한 이해나 전략적 계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래식 외교'에 가까웠다. 또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통령 개인의 돌발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돈을 낼 수 있는 능력 순으로 동맹의 중요도를 매기고, 뚜렷한 대안도 없이 마구잡이식 행동으로 외교를 행하였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요 6개국 및 이란과 어렵게 이룬 핵합의를 파기하였다. 2016년 파격적인 대선 공약에서 이미 이란 핵협정 탈퇴를 주장하였고, 당선 이후에도 핵협정 비판을 이어나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동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협정 탈퇴를 강행한 것이다.

핵협정 탈퇴를 결정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이 커지고, 성추문과 불법 선거자금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스캔들 정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핵심 지지 세력인 백인 복음주의자를 결집해야 했

는데, 견제가 덜한 대외정책 분야가 대통령 개인 의지를 밀어붙이기에 수월한 상황이었다. 즉 국내 스캔들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핵협정 탈퇴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이는 집착에 가까운 '오바마 지우기'의 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이란 핵협정 탈퇴 후 5일 만에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단행한 것도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내린 결정이다. 강경 보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각별한 친분을 자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호와 497호를 위반하는 결정이었지만, 트럼프 지지 세력은 환호하였다.

2020년 트럼프 정부는 이란 군부 최고 실세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드론으로 살해하였다. 미국과 미 동맹 · 우방국의 국익에 전혀 이롭지 않은 작전임에도 강행한 이유 역시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편익 계산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군의 건의를 듣지 않고 드론 공습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탄핵정국을 정면 돌파하고자 강하고 단호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가자지구의 친이란 프록시는 미군 시설과 미 동맹 · 우방국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미 예멘의 후시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UAE 핵심 시설도 위협하였다. 이스라엘도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지구 하마스의 잦은 로켓 발사에 맞대응하여 공습 수위를 높여야만 했다.

이란 강경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당시 이란 내에서는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대 유혈진압을 지휘한 솔레이마니 사령관 비난 여론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었으나,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 이후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2019년 10월 트럼프 정부는 갑작스럽게 시리아 병력 철수를 발표하였고,

발표 후 사흘 만에 터키군이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계 민병대 인민수비대(YPG)를 공격하였다. 미국의 YPG 배신은 중동 자유주의 질서 추락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IS 국제연합전선에서 핵심 지상군으로 싸운 YPG 지원을 중단하고 철군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터키군의 YPG 공격도 수수방관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발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가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군 1,800명과 첨단 무기를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질서를 주도해온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흔들고 자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하였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동맹을 쉽게 버렸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역내 후원국 시리아를 끝까지 보호하였다.

유엔 시리아인권조사위원회는 시리아 정부가 살해, 고문, 강간과 성폭력, 임의구금, 자유박탈, 강제실종을 포함한 여섯 가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였지만, 아사드 정권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와 중국이 아사드 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시리아의 영토 확장과 안정화를 도왔고, 유능한 중재자로 부상하였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NATO 회원국 터키의 일탈 행보를 부추겼다. 터키는 중동을 떠나는 미국 대신 러시아에 의존하였다. 동맹 관계를 거래 관계로 여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 대신 러시아라는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었다. 미국에서 확산한 포퓰리즘(Populism)과 극우 민족주의는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리전 확산과 강압 통치의 빌미가 되었다.

한편 미국과 유럽은 양자 갈등 때문에 러시아와 이란 주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하지 못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이란 핵협정 탈퇴와 NATO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이후 미국-유럽 관계 균열이 깊어졌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에 바탕을 둔 '중동 떠나기'는 빠르게 재편되는 중동 신지정학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기조 아래 '중동에서 발 빼기'를 노골적으로 선언하며 이란 핵합의 독단적 파기, 편파적 친이스라엘 행보, 일방적인 NATO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 우방 쿠르드 배신과 급작스러운 시리아 철군 강행 등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가 둔 악수(惡手) 때문에 현재 중동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 심화, 중국의 부상, 러시아-이란-중국의 반미 국가 연대 강화,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내전의 대리전 양상이 더욱 굳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촉발된 미국의 신뢰도 추락과 힘의 공백을 틈타 터키, 이란, 러시아가 과거 제국의 영광 재현을 꿈꾸며 팽창주의 행보를 보였다. 이들 국가는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지역 질서에 반대하며 서로 협력하였다. 시리아, 예멘, 리비아의 장기 내전은 대리전 양상으로 자리 잡으며 자유주의 지역 질서를 흔들고 있다. G2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중동에서 떠나고 있지만,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추진하며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터키, 이스라엘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경제협력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을 결정하면서 중동 지역 내 미 동맹 · 우방국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이합집산이 시작됐다. 미국이 동맹국 터키와 카타르의 친러, 친이란 밀착 행보를 방관하면서 역내 동맹 체제가 느슨해졌다. 러시아는 이러한 틈새를 공략하였다. 후원국 시리아의 정상 국가 복귀를 위한 종전 협상,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갈등을 중재하며 러시아는 자국의 외교력을 과시하였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의 중동 떠나기에 대비해 중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다시 뒤집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중동 정책 향방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정책은 트럼프 정부가 파기한 JCPOA 복원, 민주주의와 인권 및 동맹 가치 강조,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지지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2021년 1월 전반적인 '트럼프 뒤집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떠나기' 기조는 이어지는 듯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며 단계적으로 중동 내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중국 견제를 내세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동 떠나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을 떠나려는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와 비슷하다. 첫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참전 피로감이 지나치게 크다. 두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은 7천여 명이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 때문에 자살한 병사는 3만 명에 달한다. 둘째, 셰일 에너지 혁명으로 2018년 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쳤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잉여 생산능력은 힘을 잃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셰일 에너지 혁명을 일으켰고, 2010년대 초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셰일업계의 채산성을 약화하고자 석유 증산 정책을 폈다. 이에 난립하였던 셰일 에너지업체들이 시장 논리에 맞춰 경쟁력을 키우자 아랍 산유 왕정은 시장에서 밀렸다. 결국 셰일 에너지업계의 빠른 안정화와 함께 2019년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되었다.

2021년 4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방침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에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였고, 미국이 세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무너졌다. 20년 전 미국은 탈레반 축출을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하였지만, 전후 체계적인 아프가니스탄 재건에는 실패하였다. 공화당 정부가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동맹의 가치, 인권, 민주주의 구호 아래 미군 귀환을 외치는 민주당 정부에서 탈레반이 재집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난 20년간 1조 달러 이상을 쓰고, 2,300명이 넘는 미군이 사망하였지만, 아프가니스탄은 끝내 탈레반 손에 다시 넘어갔다.

변화를 선언한 탈레반 정권은 지도부의 장악력 상실, 수뇌부의 내부 분열로 다시 억압 통치로 회귀하고 있다. 탈레반의 카불 탈환 후 주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알카에다와 IS 대원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대거 입국하였고, 이들 조직 간 주도권 다툼도 시작되었다. 이 중 가장 극단적인 IS가 과감한 연쇄 자살폭탄 테러로 존재감을 빠르게 키워가며 향후 아프가니스탄 내외의 혼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중동 떠나기'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미국은 향후 중동 동맹국 기지를 거점으로 무인기의 정밀 감시와 타격에 의존하는 '수평선 너머(over the horizon)' 전략을 써서 테러 위협에 맞서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쿠웨이트, 이라크, 바레인, 오만 주둔 미군 병력 축소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이다. 미군이 빠지는 상황에서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IS가 2014년 때처럼 극악무도한 테러 공격을 확대하면서 심각한 국제 위협으로 부상할 경우, 미국이 당시와 비슷하게 역내 내전과 분쟁 직접 개입은 자제한 채, 여러 동맹·우방국과 함께 국제연합전선을 결성하여 공동 분담 형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2014년 9월 미국은 65개국에 이르는 국가들과 함께 IS 격퇴전을 조직하고, 자문과 훈련 및 무기를 제공하였으며, 지상 전투병은 대부분 쿠르드족에서 동원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역할이 축소된 역내에서 효과적인 대테러전 결성은 쉽지 않기에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아랍-이스라엘 전략적 연대

2020년 10월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이란의 역내 팽창주의 행보에 맞선 UAE와 이스라엘의 안보·경제협력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UAE와 이스라엘 간 정보기술과 군사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었고, UAE가 파격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 개혁정책에 이스라엘이 첨단 기술력 투입으로 화답하였다. 미국 민주당 정부의 새로운 대중동 정책은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가속화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 동맹 · 우방국이 실패로 규정한 JCPOA를 복원할 것을 이미 선언한 데다가,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한 이상,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를 말릴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핵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한 JCPOA 복원을 중동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2020년 12월 바이든 당선인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안정에 가장 좋은 방법은 JCPOA 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외교 · 안보 진용을 2015년 이란 핵합의 주역들로 꾸렸다.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말리(Robert Malley) 이란 특사 모두 과거 JCPOA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2021년 1월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평화연구소 주최 화상회의에서 JCPOA 복원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의 중대한 우선순위 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JCPOA 복원을 공언하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반대와 반발을 달래야만 하였다. 이들 역내 국가는 2015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 주도의 핵합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이번 JCPOA 복원 과정에서도 이란을 향한 불신을 드러내며 협상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2018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 순방 길에서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타결된 JCPOA에 항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핵기술 협력 파트너로 러시아와 중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2017년 10월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왕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여, 미사일 방어시스템 S-400 구매를 논의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란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파괴 등 이란 핵개발 분쇄 비밀작전을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이스라엘 정보

국은 2019년 7월 나탄즈 핵시설 화재, 2020년 11월 이란 핵개발의 대부 파흐리자데(Mohsen Fakhrizadeh) 살해, 2021년 4월 나탄즈 핵시설 대형 폭발의 배후로 거론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가 주최한 연례회의에 UAE와 바레인 외교관이 참석하여 JCPOA 복원에 반대하며 합의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이자 우방국인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권력 구도에서는 강경파가 장악력을 굳혀가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이란을 향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의 결과, JCPOA를 지지한 이란 온건 개혁파의 입지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강경 보수파의 장악력은 더욱 견고해졌다. 특히 미국의 솔레이마니 제거 이후, 이란 내에서는 대미 복수를 천명한 급진파가 득세하였다. 내부 권력 구도에서 보혁(보수-개혁 간) 경쟁 대신 혁명수비대 계열 강경파와 울라마 그룹 원리주의파 간 보수 경쟁이 자리 잡았다. 솔레이마니 폭살 한 달 후에 열린 총선에서 군부 강경파가 원리주의파에 승리하였고, 혁명수비대는 내부 숙청작업을 끝낸 후 대미 강경 대응 전열을 갖추었다.

2021년 1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따른 한국의 원유 수출 대금 동결을 비난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환경 오염을 이유로 우리 선박을 나포하여 한-이란 관계를 경색시켰다. 무엇보다도 2021년 6월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 라이시(Ebrahim Raisi)가 당선되면서 이란 울라마-혁명수비대 보수 지배연합 내 강경파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신정부 외교정책의 중점 지역이 중동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밝히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역할을 점차 축소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밑그림으로 삼는 오바마 행정부의 중동 정책 역시 '역외 균형' 기조와 '뒤에서 이끄는' 방식으로, 중동 대신 아시아를 중시하는 전략에 집중하였다. 중국 견제가 우선순위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발 빼기’를 선언하며 이란 핵합의 독단적 파기, 급작스러운 미군 철수와 우방 쿠르드 배신, 편파적 친이스라엘 행보, NATO 방위분담금 증액 일방적 요구를 강행하였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계적으로 ‘중동 떠나기’를 실행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할 것이다.

이처럼 중동 떠나기를 계획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응하여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이 폐쇄적 민족주의 구호에서 벗어나 전략적 연합을 구축하였다. 아브라함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이지만, 역내 갈등 해소에 이바지하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임에 분명하다.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떠나기 움직임을 인지하며 전략적 협력을 서둘렀다. 미국이 중동 내 역할 축소를 선언하고, 이란의 강경파가 입지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역내 당사자들 스스로 집단 안보를 책임지고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브라함협정의 취지를 지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중동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 개선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에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아랍 당사자인 순니 걸프국에 민주주의와 인권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국 요원들이 살해한 반정부 언론인 카슈끄지(Jamal Khashoggi) 사건 책임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묻고, 여권신장 운동 탄압도 중지하라고 압박하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취임 후 첫 외교정책 연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전선의 예멘 내전 개입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아랍연합전선을 조직하여 예멘의 하디(Abdrabbuh Mansur Hadi) 정부를 지원해왔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전선의 예멘 공습 시 공중 급유와 함께 민간인 오폭을 막기 위한 군사기술을 지원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예멘 정부군 편을 들면서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두 나라가 시아파 후시 반군과의 대결을 명목으로 예멘 공습을 감행하는 바람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최신식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후시 반군을 테러조직에서 제외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배후로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예멘 내전에서 후시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미국, 이스라엘, UAE 3국이 협정 당사국 간 경제교역 확대를 위해 3억 달러 상당의 기금을 마련하여 '아브라함 펀드'를 조성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취소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에서 빠르게 후퇴하는 민주주의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10년이 넘는 네타냐후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정부와 미국 민주당의 관계는 매우 소원해졌다. 중동 내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2018년 7월 의회에서 유대민족국가법을 통과시킨 이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이 2등 시민으로 전락하고, 요르단강 서안의 유대인 불법 정착촌을 묵인하면서 민주주의가 빠르게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폐쇄적 유대 민족주의와 안보 포퓰리즘을 이용하여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하였고,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강조하는 중도 · 진보 연합은 분열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에도 2021년 실시 예정인 총선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와 시행을 촉구하였다. 파타가 이끄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2006년 총선에서 하마스의 우세가 확실시되자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였고, 이후 무려 15년 동안 선거를 치르지 않고 권위주의 통치를 고수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 조건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UAE를 위시한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전략적 연합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과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 바이

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으로 옮긴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유지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강행한 이스라엘 편향 정책을 되돌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폐쇄한 워싱턴 주재 팔레스타인해방기구 대표부 재개, 같은 해 중단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지원 재개, 2019년 폐쇄한 팔레스타인 업무 담당 동예루살렘 주재 미국 영사관 재개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UAE,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공동의 적 이란 견제 목표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전략적 연대 의사를 타진할 수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JCPOA 복원을 위한 협상이 재개되고 미군의 점진적 중동 철수설이 불거지면서 순니파 걸프국과 이스라엘은 반이란 군사 동맹 창설 가능성 타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민주당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2021년 3월 간츠(Benjamin Gantz)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팽창주의에 위협을 느끼는 걸프 아랍국과 특별 안보 협정을 맺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중동판 나토' 창설과 군사협력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부터 제기되었다. 2017년 GCC 순니파 걸프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견제를 위한 군사 동맹 추진에 나섰으나,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란 밀착 행보를 문제 삼아 카타르와 단교를 단행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떠나기 청사진이 드러난 현재 GCC 회원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역내 군사 동맹을 구축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중동 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지양할 것이라고 선언한 미국은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의 일환인 군사협력을 환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주력 기종 F-35 전투기를 UAE에 판매하는 데 동의하였다. UAE는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 전투기 확보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는데, 아브라함협정으로 비로소 첨단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UAE에 F-35 전투기와 고성능 무인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미국 대선 이전에 급하게 체결하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취임 직후 파기하

였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UAE에 F-35 판매를 다시 승인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역시 이를 지지하였다.

또한 지금껏 아랍국가의 반대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부사령부(CENTCOM)에 포함되지 못하고 유럽 사령부에 속해 있었으나, 곧 중부사령부 산하 21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IS 격퇴전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다. 이스라엘의 중부사령부 편입은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급물살을 탔고, 바이든 행정부의 오스틴(Lloyd Austin) 국방장관 역시 긍정 의견을 피력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대와 달리 아직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레인, UAE와 함께 공통적인 목적과 전략적인 동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개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슬림 세계에서 이슬람 성지 보호자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만큼, 대이스라엘 관계 개선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는 정적과 직접적인 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역내 안정을 위해 충분한 자금력을 활용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를 최우선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2015년 무함마드 빈 살만이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에 보조를 맞추며 목적 달성을 위해 무력 사용 의지를 숨기지 않는 공격적인 정책으로 변하였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새롭고 과감한 정책은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트럼프의 대이란 최대 압박정책을 수용하여 카타르 제재를 주도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하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적으로는 좌충우돌하는 이미지에, 국내적으로는 무함마드 빈 살만의 불안정한 내치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젊은 왕세자에게 기대감을 보였던 이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적인 외교 노선으로 복귀하여 조심스럽게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최근 몇 년간 하락했던 왕국의 명성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2021년 초 알울라(al-Ula)에서 열린 GCC 협력 회의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와 화해 협정을 맺고 예멘 후시 반군에 정전협정을 제안하였다. 외교 노선 수정은 역내 긴장을 줄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란 관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직접 대화도 시작하였다. 2021년 4월 무함마드 빈 살만은 알아라비야 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이란과 우호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14]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양국이 역내 번영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양국은 이라크의 중재로 2016년 외교관계 단절 이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란 핵협상에는 양국이 여전히 큰 견해차를 보인다. 이란은 미국 외 다른 아랍국가가 핵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핵협상에는 찬성하지만, 추가 협상으로 이란의 크루즈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UAV 무기, 역내 시아파 민병대 관련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양국의 역내 영향력 다툼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2015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의 최우선 과제는 예멘 내전이다. 재정과 인명 손실이 커진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예멘 전략에 획기적 변화를 주어 후시 반군에 정전을 제안하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전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수용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후시 반군을 테러단체 명단에서 해제한 바이든 정부의 호의를 반군 측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시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인다. 사우디아

14) "Transcript: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s Full Interview on Vision 2030"(2021. 4.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

라비아가 제안한 정전안과 유엔 특별대사의 중재 노력을 후시 반군은 거절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 후시 반군이 참여할지 여부가 이란 핵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대로 예멘 정부군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경제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과거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서 양국은 공조하였지만, 최근 견해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는데, OPEC+ 회의에서 원유생산 감축을 놓고 충돌한 것이 좋은 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 금융이익에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경제 활동 중인 국제법인은 자국 내에 반드시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조항을 신설하여 역내 금융자본을 리야드로 유치하려는 것이다. 현재 이 부문의 강자는 UAE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역국 1위는 중국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의 성공을 위하여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중관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마찰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동 떠나기를 선언한 이후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외교, 중재, 해외 경제 지원이라는 전통적인 외교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4. 아랍-이스라엘 안보 · 경제협력

2020년 8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UAE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는 순니파 아랍 걸프국과 이스라엘 간 역사적 데탕트의 출발점이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이란의 역내 헤게모니 추구라는 공동 위협에 맞선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연합 견제 전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아파 핵심국 이란은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면서 팽창주의 행보를 가속하였다. 이란 울라마 체제의 혁명수비대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계기로, 레바논, 이라크, 시리아, 예멘, 가자지구에서 친이란 대리조직을 육성했다. 시리아 내전에서 미국과 유럽 · 중동 동맹국은 반군을 도와 이란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에 맞섰다. 2014년 순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다. IS가 시리아 락까와 이라크 모술을 장악해 칼리파 국가 수립을 선언한 후, 전 세계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테러를 일삼았다. 이에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던 미국과 유럽 · 중동 동맹국은 IS 축출을 계획하였다.

2014년 9월 미국은 65개국에 이르는 동맹국과 함께 반IS 국제연합전선을 조직해 격퇴전을 시작하였다. 타 종파 무슬림과 이교도를 적으로 삼는 IS는 시아파 아사드 정권도 공격하였다. 시리아 내전과 IS 격퇴전은 시리아 정부군, 반군, IS 간 3파전으로 얽히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반IS 국제연합전선 내부에서도 아사드 정권의 거취, 이란 온건 개혁파의 역할, 쿠르드계 지원, 시리아 난민 위기에 대한 셈법과 생각이 서로 달랐다. 결국 미국은 아사드 정권 축출을 유보하고, IS 격퇴를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국과 유럽 · 중동 동맹국이 무기를 제공하고 훈련한 시리아 반군, 쿠르드 민병대, 이라크 정부군의 지상전과 반IS 국제연합전선의 공습으로 2017년 락까와 모술에서 IS의 지도부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IS 축출전 덕에 공세를 피한 아사드 정권이 생존하였고, 아사드 정권을 적극적으로 돕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영향력 또한 커졌다.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위해 지상 전투군과 외국인 시아파 민병대를 직접 조직해 전선으로 보냈고, 혁명수비대 소속 고위급 장성만 40명 이상 전사하였다. 러시아도 2015년부터 무기 제공을 대폭 늘리면서 지상군 파병을 시작하였다. 반면 시리아 동북부에 투입된 미군은 특수부대로 이뤄진 군사 자문단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시작을 비판하고 해외파병 반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기에, 지상군 투입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이라크 출신 시아파 민병대를 이끌며 전투 현장을 지켰다. 시리아 내전에 참전한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 규모는 2015년 당시 10,000여 명에 달했고, 이란 정규군 역시 6,000여 명이 아사드 정권을 위해 싸웠다. 2018년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정예 부대인 고드스(Qods) 부대 소속 2,000여 명은 시리아 내 다양한 시아파 민병대는 물론,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 이라크 출신 민병대 수만 명을 훈련시켰다. 또한 시리아 알레포의 마흐디 부대, 다마스쿠스의 루키아(Rukia) 여단, 홈스의 이맘 레자(Imam Reza) 부대 등 현지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하였다. 한편 헤즈볼라는 시리아 전역에 110여 개의 군사 보급소를 세웠고,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 지대 20%가량을 장악하였다.[15] 시리아 라타키아(Latakia)에 공군기지를 둔 러시아는 IS뿐만 아니라 시리아 반군과 민간인들까지 무차별 폭격하였다.

IS가 퇴각한 후 반군의 수는 절대적으로 줄었고, 전투 현장에서 지분을 요구할 미군은 없었다. 그 결과 아사드 정권은 생존했고, 이란의 시아파가 헤게모니를 장악하였으며,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한 이란 핵합의 덕분에 이란 온건 개혁파가 힘을 얻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사드 정권 대신 IS 축출을 선택하면서, 이란 강경파의 영향력이 급부상하였다. 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격적인 이란 핵합의 타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무임승차 동맹국이자 중동 불안정의 원인 제공국이라며 비난하였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 주도의 이란 핵합의 타결을 맹렬히 비난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불화는 두 사람의 재임 기간 내내 이어졌다.[16]

---

15) Forozan and Shahi(2017), pp. 73-78; Ostovar(2013), pp. 359-361; "Iran's involvement in Syria is costly. Here's why most Iranians still support it"(2017. 10. 1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4).

16) "Obama Criticizes the 'Free Riders' Among America's Allies"(2016. 3.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이란 혁명수비대는 여세를 몰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예멘의 후시 반군, 가자지구의 하마스 등 역내 무장 프록시 조직을 더욱 활발히 지원하며 헤게모니 장악에 주력하였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레바논 내 시아파 민병대를 규합해 헤즈볼라를 조직한 이래, 역내 프록시 육성 사업에 착수하였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전을 시작하자 정권 생존에 큰 위협을 느낀 이란 울라마-혁명수비대 보수 지배연합은 역내 프록시 조직에 미사일을 제공하며 친이란 무장세력 확장에 투자하였다. 시리아 내전에서 승기를 잡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역내 미군시설과 미 동맹 · 우방국을 상대로 프록시 조직의 비대칭 저강도 공격을 준비하였다. 2020년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가자지구, 바레인 등 최소 6개국의 민병대와 정치조직에 무기, 훈련,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시리아의 복구 사업과 이란 보수 지배연합의 재정으로 충당하였다. 미국은 1995년부터 2020년까지 5개국의 11개 친이란 프록시 조직에 제재를 가했고, 13개 조직에 속하는 89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17]

생존에 성공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2017년과 2018년 다마스쿠스 엑스포를 개최해 전후 재건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고,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이란과 러시아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기업들은 다마스쿠스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이란인 다수가 이주 정착하였다. 재계의 큰손인 이란 종교재단과 혁명수비대 산하 회사는 민 · 관 인프라와 플랜트 프로젝트 대부분을 독식하며 세금면제 혜택까지 받았다.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회사는 석유와 가스 분야에 집중적으로 포진해있지만, 건설, 부동산, 통신, 미디어, 전자, 자동차, 금융, 농업 분야에도 골고루 퍼져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전체 자산의 절반이 넘는 부를 소유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시장까지 고려하면 규모가 훨씬 크다.

---

17) Lane(2021. 5. 20), "Iran's Islamist Proxies in the Middle Ea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혁명수비대가 역내 시아파 민병대를 지원하는 동안 이란 국내 경제는 급격히 피폐해졌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고강도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2018년 8월 이란 리알화 가치는 70% 이상 떨어졌고, 기본 식료품 가격은 50% 이상 올랐다. 유가보조금 삭감으로 휘발유 가격이 50%나 급등하면서 2019년 11월 항의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3년째로 접어든 제재와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이란의 경제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48%를 넘었고, 테헤란의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0%, 월세는 40% 올랐으며, 국민 과반수가 빈곤선 아래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18)]

이에 전통적인 체제 지지 세력인 지방 중소도시의 보수층과 저소득층마저 대규모 민생고 시위를 조직해 혁명수비대의 역내 프록시 조직 지원과 국고 탕진을 맹비난하였다. 더 나아가 2019년 10월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지원하는 이라크 프록시 조직들을 향해 이라크 내부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이라크 내정 개입을 비난하였다. 레바논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명령체계 아래 놓인 자국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비난하였다. 그럼에도 혁명수비대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신형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 탑재 잠수함과 전투기를 공개하면서 패권 추구의 야심을 보였다.

시아파 종주국 이란의 패권 야심은 역내 최대 라이벌인 순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란과 우호 관계를 지속한다는 이유로 걸프 산유 형제국 카타르와 단교했고, 이란의 시리아 내전 개입과 이라크 내정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자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시아파 인구에 이란이 영향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팽창주의 정책을 견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자국에서 종파주의를 부추겨 왕실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

18) 장지향, 박현도(2021), p. 8; "One Iranian Woman's Year in the Shadow of U.S. Sanctions and Covid-19"(2020. 1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을 미칠 가능성을 염려해왔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자국의 반정부 · 친이란 성향 시아파 지도자들을 처형하기도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예멘 내전에서도 이란과 대립해왔다. 시리아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한 반군이 이란이 후원한 정부군에 패하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또 다른 대리전인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며 설욕을 노렸다. 2015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연합전선은 예멘 정부군을, 이란은 후시 반군을 각각 지원해왔다. 유엔은 아랍연합전선이 지원하는 하디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부군을 돕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에 군사기술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연합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시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본토 공격을 본격화하자 예멘 내 모든 항구를 봉쇄했고, 이에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가 발생하였다. 후시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국제공항과 아람코 유전시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20년 1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자, 이라크, 레바논, 예멘, 가자지구, 시리아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는 역내 미군 시설과 미 동맹 · 우방국을 향한 소규모 저강도 보복전에 돌입하였다. 예멘 후시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을 향해 드론 공격을 시작했고, 가자지구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와 박격포를 연달아 발사하였다. 이어 혁명수비대는 공식성명에서 이스라엘의 하이파, UAE의 두바이를 특정해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란 프록시 조직을 육성해온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지원 축소를 우려한 충성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란 강경파 혁명수비대의 팽창주의 행보는 핵무기 개발의 야심으로 이어졌고, 이는 이스라엘에 커다란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이란 핵협정 탈퇴에 맞서 2020년 1월 이란도 핵합의를 파기하였다. 솔레이마

니 제거 작전 이후 이란 내 반미 보수파의 득세로 강경 대외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권력 구도에서도 보혁갈등 대신 혁명수비대 계열의 강경파와 성직자 중심의 원리주의파 간 보수권 내부경쟁이 자리 잡았다.

이처럼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이란 강경파 혁명수비대의 역내 헤게모니 장악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은 함께 전략적 연대를 조직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20년 8월 UAE와 이스라엘이 수교에 합의했고, 한 달 뒤 바레인까지 참여해 백악관에서 순니파 걸프국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협정 체결 서명식을 열었다. 아브라함협정의 핵심 골자는 UAE와 이스라엘의 안보와 경제협력이다. 순니 걸프국의 양대 산맥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보와 경제 분야를 발전시켜 이란의 역내 패권 추구 행보를 견제하고, 정권의 안정을 다지려고 한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의 수호국이라는 위상을 고려하여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 대열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고, 대신 바레인을 내세웠다. 소국 바레인의 대외정책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들 순니파 걸프국과 이스라엘의 회동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비난을 쏟아냈다. 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B팀" 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이어진다고 비난하였다. B로 시작하는 이름을 지닌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John Bolton), 이스라엘 총리 비비(BB, 베냐민 네타냐후의 애칭),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MbS: Muhammad bin Salman), UAE 아부다비 왕세제 무함마드 빈 자이드(MbZ: Muhammed bin Zayed)를 가리킨 말이었다.[19]

순니파 걸프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략적 연합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도 이란 강경파의 팽창주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졌다. 2020년 12월 급진 강경파가 장악한 이란 의회는 20% 우라늄 농축 재개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2021년 1월 이란 당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1주기에 맞춰 포르도 농

19) "Zarif: B-Team thirsts for war with Iran"(2019. 6.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1).

축시설에서 20% 농축 재개를 선언하였다.

UAE와 이스라엘 간의 협력은 특히 정보기술과 방위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양국의 국교 정상화 덕분에 이스라엘은 UAE가 개방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 훈련 관련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 모사드는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이란발 위협 관련 정확한 정보를 UAE 정보기관에 긴급하게 알려줬다. 2021년 2월 에티오피아 당국은 아디스아바바 주재 UAE 대사관 공격을 계획하던 용의자 16명을 체포하였다. 관련 용의자 가운데 이란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 유럽 시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단 주재 UAE 대사관 역시 공격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10월에는 코헨(Yossi Cohen) 모사드 국장이 바레인을 찾아 양국 정보기관 협력을 논의하였다. 모사드는 UAE, 바레인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이란이 후원하는 예멘 후시 반군과 레바논의 헤즈볼라 관련 각종 정보를 넘겨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1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폼페이오(Michael Pompeo)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개혁정책의 상징 도시인 네옴에서 비밀 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아브라함협정을 구상한 유대계 쿠슈너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는 각별한 관계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2017년 이스라엘 정보기술 보안업체로부터 이스라엘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 판매가 불가능한 스파이웨어를 구매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UAE와 이스라엘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후 여객기 직항노선 운항을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국적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였다.[20]

더 나아가 2021년 4월 키프로스에서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UAE의

---

20) "Secret Ties Between U.A.E. and Israel Paved Way for Diplomatic Relations"(2020. 8.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5. 18).

외무장관이 함께 회담을 가졌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이스라엘과 UAE 전투기가 그리스 상공에서 함께 공개 훈련에 나섰다.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군은 그리스, 키프로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UAE가 참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같은 달 그리스와 16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협정을 맺어 공군훈련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합동훈련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UAE는 2020년 9월에도 그리스 크레타섬으로 전투기와 군함을 파견해 그리스와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스라엘, 그리스, UAE의 군사 밀착 행보에 터키가 긴장하고 있다. 터키는 키프로스를 두고 그리스와 신경전을 벌여왔고, 동지중해 에너지 개발권을 둘러싸고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겪었다. 최근에는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이스라엘, UAE와도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 시기 중동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터키, 이란, 러시아는 과거 제국 시절의 영광을 소환하며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는 동시에 자유주의 지역 질서에 반대하며 서로 협력해왔다.[21)]

아브라함협정은 이란의 팽창주의 행보 제어뿐 아니라, 저유가에 따른 재정 감소, 청년층의 의식 변화에 직면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권 내구성 강화를 위해서도 절실하였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권 안정을 위해 2010년대 중반 이래 파격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와 사회 부문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 내 안정이 필수적이다. 이란이 역내 패권 추구 행보를 보이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내부 안정을 위해 개혁을 통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감한 개혁정책이 성공하는 데 이스라엘의 기술 도입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 역시 적대국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대 중

21) Guzansky and Lindenstrauss(2021. 5. 25), "The Growing Alignment Between the Gulf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반 이래 경제, 법제, 사회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를 보이며 석유 의존도 감소와 보수 이슬람 탈피를 위한 개혁정책을 빠른 속도로 실시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활성화와 민영화, 청년과 여성 인재 등용, 이슬람법 적용 완화와 사법체제 현대화가 대표적 사례다. 특히 UAE는 2020년 7월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기도 하였다. 또한 걸프협력회의 6개 회원국 가운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징수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배경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와 미국발 셰일 에너지 혁명에 따른 저유가 시대 산유국의 재정위기 심화가 주목받아왔다. 이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체질 개선에 나섰고 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축소해 재정 건전성을 다소 회복하였다. 이후 더 이상의 개혁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이어갔다. 양국의 지속적인 개혁 시행은 무엇보다 2010년대 초반 이래 인구의 절반이 넘는 청년층의 의식 변화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만 35세 이하 청년 인구는 UAE 전체 인구의 58%,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한다.

'아랍청년 여론조사(Arab Youth Survey)', '사우디아라비아 가치 여론조사(Saudi Value Survey)' 등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젊은 세대는 구세대와 달리 개인 의사 표현의 자유, 실용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점차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가치관에서 종교와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의 중요도가 줄어든 반면, 자기표현, 개인 의사 결정, 민주주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는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아랍 청년층 일반에서 나타나는 탈전통가치 추세는 2010년대 초반 이래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보수적 문화를 유지해 온 사우디아라비아 청년층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세대는 2010년대 초반 이래 종교, 가족, 공동체, 민족이라는 전통적 가치 대신 탈전통, 탈민족주의, 탈종파주의라는 의식 변화를 보여왔다.[22]

석유 개발 이후 세대인 이들 청년층은 부모 세대와 달리 어려서부터 생활 전반에서 IT 신기술을 활용하고, SNS로 소통하며,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을 지켜봤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이웃 나라의 장기 독재 정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에서 정권 안정과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청년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화답하고자 시도하였다. 여론조사 기관은 양국 정부의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과 청년 응답자의 높은 응답률에 주목하였다. 이에 더해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며 '납세 없이 대표 없다'라는 전통적인 통치 기반이 흔들리자 양국 정부는 청년층의 두드러진 의식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 정권의 내구성을 다지려 하였다. 대규모 복지정책과 온정주의 구호로 유지해온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권위가 전례 없는 재정위기 앞에서 흔들렸기 때문이다. 양국 지도자는 공식 석상에서 나라의 미래인 청년 세대를 위한 지원과 국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결국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청년층의 변화에 맞춘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지지를 끌어냈다.[23]

정권 안정화를 위해 첨단 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두 왕정국가의 개혁정책에 이스라엘의 기술 경쟁력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가장 개방적 왕정인 UAE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회사가 다수 진출해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는 이스라

---

22) 아랍청년 여론조사는 UAE 소재 아스다 버슨-마스텔러(ASDA'A Burson-Marsteller)사가 2008년 이래 실시해온 아랍 10~17개국 청년층(만 18~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여론조사다. 10개 부문(이민, 시위, 부패, 개인부채, 일자리, 정체성, 여성인권, 선호국가, 대외관계, 디지털세대)에 대한 대면 인터뷰 결과를 담고 있다. 연도별 조사 대상, 설문 항목이 달라 특정 대상에 대한 장기 변화 추적에는 한계가 있으나 아랍 청년층에 특화된 유일한 정기 여론조사라는 점에서 유용하다. 사우디아라비아 가치 여론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리서치 회사에서 2003년, 2011년 두 차례 진행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시민 1,526명을 대상으로 6개 부문(개인주의, 젠더 관계, 정부의 형태, 종교와 정치의 관계, 정체성, 서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비록 조사 대상이 도시 거주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대상을 청년층, 중년층, 고령층별 약 30%씩 고르게 배분하여 연령별 가치 변화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그간 여론조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자료다. 장지향, 유아름(2021), pp. 9~13.

23) 장지향, 유아름(2021), pp. 14~15; Panetta(2020. 9. 17), "This is what courage looks like in the Middle Ea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8).

엘 출신 자문단이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브라함협정 이후 처음으로 생긴 텔아비브-두바이 항공편은 일주일에 25번을 오갔고,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에만 40,000명 이상의 이스라엘인이 두바이를 방문하였다. 2021년 6월에는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UAE를 방문해 아브라함협정 이후 개설한 UAE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과 영사관 개관행사에 참석하였다.

제3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중동의 변화와 전망

1.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터키와 카타르
2. 아브라함협정의 도전과 한계

1.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터키와 카타르

가. 터키 외교 · 안보 정책 변화와 전망

미국의 중동 내 영향력이 축소하면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모험주의 외교를 감행 중이다. 터키는 최근 10년간 중동에서 일어난 미국의 영향력 축소에 따른 역내 서방 동맹국의 혼란 때문에 좀 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이하 AKP)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에르도안은 외교정책 운신의 폭을 넓혔다. 이는 당의 이데올로기와 국내 정치 변수가 종종 앙카라의 외교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영향력 축소가 불러온 역내 권력 공백 상태에서 터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국에 적합한 대안 동맹을 추구하였다. 기존 동맹의 영역에서 자국 이익으로 이동한 것이다.[24]

터키는 새로운 아시아(Asia Anew) 정책을 추진한다고 선언했지만,[25] 실제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와 동지중해에서 모험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터키는 자국 난민을 EU 국가로 송출하겠다고 위협하며 난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리비아에 용병을 파견하는 등 위험천만한 외교적 모험을 감행하였다.[26] 이런 위험한 터키 외교의 배경에는 범이슬람주의, 신오스만주의(Neo-Ottomanism)와 터키 민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27] 다른 이슬람 이데올로기 모델과 달리 에르도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오스만주의는 "위대한 터키"를 회복하고,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을 발휘하여 오스만 제국 유산의 문화와 고전의 부활을

---

24) Nasi(2021. 4. 13), "The way forward for Turkish-American relations: Partnership à la car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25) Colakoğlu(2019. 10. 15), "Turkey's Asia Anew Initiative: Assessment and Shortcoming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1).
26) "EU Fumes at Turk Migration 'Blackmail,' Mulls More Money for Ankara"(2020. 3.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0).
27) 장지향(2019), 「배신과 일탈의 동맹 정치: 미국의 시리아 철군과 터키의 쿠르드 공격」.

추구한다.[28]

에르도안을 단순히 터키 국내 세력기반을 확장하려는 독재자로 치부한다면, 현상을 단순하게 보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에르도안은 더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거대한 현상의 부분적 증상에 불과하다. 앙카라가 생산해내는 범이슬람주의와 신오스만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은 동지중해와 중동을 넘어 주변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범이슬람주의 비전을 잘못 해석하면 범이슬람주의가 무장 지하드(Jihad)를 포함한 문화 패권적 형식의 정치이슬람(Political Islam)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29]

물론 터키의 범이슬람주의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오스만 제국(1517~1922)은 마지막까지 칼리프제를 유지하며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재현하였다. 터키의 세속화는 발칸 전쟁(1912~13)과 제1차 세계대전(1914~18)에서 연이어 패하며 손상을 입었지만, 독립전쟁(그리스-터키 전쟁 1919~22)에서 승리하면서 영광을 회복하였고, 1923년 세속 터키 공화국이 건국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 현대 터키 국가 건설자 아타튀르크(1881~1938, Kemal Atatürk)는 생존 가능한 정치 이데올로기인 전통 오스만주의를 없애버렸다. 오스만주의 대신 파샤가 추진한 케말주의 개혁은 터키 사회에 지각변동을 불러왔다. 예컨대 술탄제 폐지, 칼리파제 폐지, 아랍어 대신 라틴 철자 도입 등 유럽을 모방한 새로운 법과 제도가 도입되었다.[30]

그러나 에르도안은 아타튀르크의 세속화 이후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이슬람 정체성을 끄집어내어 극단화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신오스만주의 현상이 터키의 반서방 정치 정향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 분석은 순환론으로 연결된다. 이 현상은 서방과 거의 관련이 없고, 터키에 새롭게 불고 있는 이슬람 이데올로

---

28) Mandaville and Hamid(2018), "Islam as statecraft: How governments use religion in foreign policy," 온라인 자료; Lepeska(2015. 5. 17), "Turkey Casts the Diyanet: Ankara's Religious Directorate Takes Off,"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8. 12).

29) Maziad and Sotiriadis(2020. 4. 21), "Turkey's Dangerous New Exports: Pan-Islamist, Neo-Ottoman Visions and Regional Instabilit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3).

30) Zurcher(2013), pp. 36-49.

기를 반영한다고 평가해야 한다.

에르도안은 확실히 터키 정치의 획기적 전환을 상징한다. 에르도안은 2000년대 오스만주의를 재도입한 외잘(Turgut Özal)의 도움으로 유력 정치인이 되었다. 또한 다부토울루(Ahmet Davutoğlu) 외무장관이 신오스만주의를 강조하면서 에르도안과 보조를 맞추었다. 다부토울루는 "주변국과 문제 제로(zero)"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에르도안은 모든 주변국과 문제를 일으켰다.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다.

현재 터키는 이슬람 브랜드를 입고 국제사회에서 이슬람의 수호자를 자처하는데, 이는 터키의 위상에 맞지 않는 역할이다. 터키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의 혼합으로 신오스만주의의 이념적 매력이 더 돋보인다. 에르도안은 디야넷 재단(Diyanet Foundation)과 효율적인 협업을 통해 AKP당 충성파들을 재단 책임자로 세우고 터키 외교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31] 디야넷 재단은 원래 아타튀르크가 세운 조직으로, 온건한 이슬람을 조성해 세속 국가와 사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종교 문제를 규정하고 위임하는 역할을 맡았다. 에르도안은 디야넷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터키 이맘의 설교를 감독하고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32] AKP의 약진 이후 터키는 무슬림형제단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이스탄불에서 이슬람 세계를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다.[33] 에르도안 자신이 다닌 적이 있는 이맘 하티프(Imam Hatip) 학교를 이용하여 터키를 종교 교육의 국제 허브 국가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었다. 터키는 2014~15년 76개국 출신 1천 명의 국제 유학생의 학업을 지원하였다.[34] 터키 내 이맘 하티프 학교를 국가 최우선 지원단체로 지

---

31) Öztürk(2016), pp. 619-635; Tol(2019. 1. 10), "Turkey's Bid for Religious Leadership: How the AKP Uses Islamic Soft Pow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32) Tol(2019. 1. 10), "Turkey's Bid for Religious Leadership: How the AKP Uses Islamic Soft Pow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8).
33) *Ibid.*
34) "With More Islamic Schooling, Erdogan Aims to Reshape Turkey"(2018.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5).

정하였고, 중급과 상급 학교(14~18세) 정부 지원금은 2018년 10억 6,8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또 10~14세 학생 1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였다.[35]

이와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와하비(Wahhabi) 형식의 이슬람사상 수출을 중단하였다. 오히려 에르도안 통치 17년 동안 터키가 범이슬람주의의 수장 역할을 맡아 더 강경하고 위험천만한 태도를 보여왔다. AKP가 디야넷 같은 종교 단체를 지배하면서 터키의 국가 공식 이슬람과 정치이슬람 간 차이가 흐려졌다. 일례로 "터키 대중은 이슬람주의와 국가 종교를 동전의 양면으로 인식하고, AKP 지지자들은 디야넷의 파트와(이슬람 법률 해석)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6]

터키의 정치이슬람 정부는 이슬람에 기반한 NGO의 인도적 구호 활동을 확대하였다. 앙카라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원조 제공자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가장 중요한 사례로 터키는 디야넷과 다른 이슬람 구호 단체를 통해 소말리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다.[37] 이러한 원조 프로그램은 터키의 위상을 높였지만, 동시에 정치적 짐을 동반하였다. 터키는 모가디슈에 세운 에르도안 병원에 소말리아에서 가장 큰 군사 시설을 지어 아프리카에 군대를 파견하였다.[38]

터키의 신오스만주의 모델은 또 역내 안보 역학관계에 수정주의 접근법을 도입해 팽창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에르도안은 현대 터키 국경을 설정한 1923년 로잔조약(Treaty of Lausanne)에 자주 의문을 제기하며 영토회복주의 감성을 자극하였다.[39] 에르도안은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아타

---

35) "Erdogan's Plan to Raise a 'Pious Generation' Divides Parents in Turkey"(2018. 6.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8).
36) Sarfati(2019), p. 15.
37) Akp ı nar(2017. 12), "From Benign Donor to Self-Assured Security Provider: Turkey's Policy in Somal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4).
38) Rossiter and Cannon(2019), "Re-Examining the "Base": The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of Turkey's Military Presence in Somalia"; Calabrese(2020. 1. 29), "The Bab el-Mandeb Strait: Regional and great power rivalries on the shores of the Red S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2).
39) Brown(1924), pp. 113-116.

튀르크가 터키의 정당한 주장을 무력화한 로잔조약에서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하였다. 터키에는 미사크 밀리(Misak-ı Millî, 국가 합의) 계획에 따라 구상한 국경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사크 밀리에 따르면, 현재 그리스의 일부인 동트라키아에서 키프로스, 동에게해 제도, 북시리아, 북이라크, 아르메니아 전체, 조지아 일부와 이란 일부까지 터키의 영토가 된다.[40]

과도한 신오스만주의 몰입에 따른 터키의 외교적 실기는 여러 곳에서 감지할 수 있다. 시리아 내전 초기에 터키는 시리아 정권교체를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였다. 첫째, 출구 전략 없이 쿠르드와 고비용 전쟁을 치르고 있다. 둘째, IS와 공모했다는 서방의 비난에 반박하는 데 분주하였다.[41] 터키는 군대를 계속 유지하고 북이라크와 시리아에 진입하면서 역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게다가 터키 내 쿠르드의 저항을 자극하고 점령 세력으로 비치면서 제국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았다.[42]

터키는 최근 동지중해에서 키프로스 해상의 천연가스와 관련해 지나친 억지 주장을 펴 역풍을 맞기도 하였다. 터키는 키프로스 공화국 해상의 천연가스를 터키령 키프로스와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역에 해군을 증강 배치하였다. 외국 투자자와 대기업은 새로 발견한 유전에서 터키를 천연자원 채굴 파트너가 아니라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43]

관련 당사국은 에너지, 관광과 안보 및 군사 공조와 관련해 점차 협업을 늘리고 있고, 터키의 공세적인 태도에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시 언론의 관심이 시리아, 리비아, 동지중해 위기에서 멀어져 있다. 터키는 코로나 팬데믹을 핑계로 범이슬람주의, 신오스만주의 이데올로기 모델을 과도하게 몰아

---

40) Batuman(2010), pp. 220-234; Özkan(2014), pp. 119-140.
41) Hinnebusch(2015).
42) Barkey(2019), "The Kurdish Awakening: Unity, Betrayal, and the Future of the Middle Eas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43) "Exxon's Cyprus Gas Discovery Adds Another Giant to East Med Collection"(2019. 2.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6).

붙인다는 국내의 비판을 피하고 외부로 문제를 전가하려고 한다. 예컨대 2020년 1월 에르도안은 한 칼럼에서 "리비아의 평화로 가는 길은 터키를 지나야 한다"라고 주장하며[44] 리비아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터키의 불안정한 신오스만주의 정책은 앙카라 주변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더욱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외교적 고립이 심화하면서 터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아브라함협정은 터키의 외교·안보 정책에 몇 가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팔레스타인 대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터키는 파타와 하마스의 관계 개선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실제 팔레스타인 정파 간 화해를 중재한 터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2020년 9월 파타와 하마스 두 팔레스타인 정파가 이스탄불에서 관계 개선에 합의하였다.[45]

반면 아브라함협정은 동지중해에서 터키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혔다. 미국의 유전 개발 기술과 함께, UAE의 동지중해 개입을 지지하는 이스라엘은 터키의 이익에 반한다. 현재 터키는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 지중해 주변국은 외교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 협력을 이용하여 터키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46]

지난 10년간 터키는 동지중해에 많은 외교 역량을 기울였다. 가스전 발견은 지중해 해변의 터키 에너지 정책에 변혁을 불러왔다. 엄청난 매장량을 보면서 터키는 가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다. 한편, 키프로스,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 활발한 에너지 협력으로 관련 기구가 세워졌다. 키프로스-그리스-이스라엘 3국 정상회담이 열리고 2019년 동지중해 가스포럼(EMGF)이 창설됐다.[47] 아나톨리아 반도 인근에서 이런 거대한

---

44) "Road to Peace in Libya Goes Through Turkey"(2020. 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5).
45) Egeresi(2020. 10. 15), "How the Abraham Accords affected the Turkish Foreign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46) *Ibid.*
47) "Eastern Mediterranean countries to form regional gas market"(2019. 1.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

변화가 일어나자 터키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터키는 키프로스의 시추와 발굴이 터키령 북키프로스 국익에 해가 된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소량의 가스와 원유 비축량을 가진 터키는 다자간 에너지 협상에서 자국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48] 터키는 또 2020년 8월 이집트-그리스 해양경계 확정안 체결을 터키-리비아 해상국경 합의와 겹친다는 이유로 비난하였다.[49]

동지중해를 터키의 최전방 방어선으로 정하는 '푸른 조국(Mavi Vatan)'[50] 개념은 키프로스와 그리스 간 지리적 연결을 끊고 터키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여실히 보여준다. 2019년 11월 리비아에서 트리폴리 기반 통합정부(GNA)와 터키 정부가 해양경계획정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이를 UN이 승인하면서[51] 판도가 바뀌었다. 두 국가가 인정하는 해상 경계가 설정되고, 터키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여 동맹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양국간 쌍무협정은 터키가 동지중해 영유권을 4만 1,000㎢에서 19만 ㎢까지 넓히는 결과를 가져왔다.[52] 이 새로운 수역을 아테네와 니코시아가 강하게 비판하였다. 양국은 협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불법으로 간주하였다.

GNA를 지지하는 터키의 리비아 내전 개입은 리비아 국민군(LNA) 지도자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을 지지하는 이집트, UAE, 프랑스와 러시아에 큰 도전이었다. 터키는 지중해 해상과 에너지 분쟁을 역내 지렛대로 사용하고 군사력 증강을 과시하고자 이를 이용하였다. 터키의 GNA 지지는 알사라지(Fayez al-Sarraj) 리비아 정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터키는

---

48) Egeresi(2020. 10. 15), "How the Abraham Accords affected the Turkish Foreign Poli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49) "Greece-Egypt Maritime Deal Aimed at Stemming Turkish Designs in Eastern Mediterranea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22).

50) "Mavi Vatan nasıl doğdu? Doktrinin mimarları Cem Gürdeniz ve Cihat Yaycı anlatıyor"(2020. 9. 1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1).

51) "Turkey signs maritime boundaries deal with Libya amid exploration row"(2019. 11. 2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30).

52) "Mavi Vatan'ı savunmak"(2019.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GNA가 트리폴리 인근 지역과 2020년 전반기 주요 전략 지역을 재탈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시르테(Sirte) 지역까지 노릴 수 있게 되었다.[53]

터키의 개입에 대응하고자 이집트 의회는 자국군 리비아 파견을 승인하였다.[54] UAE가 하프타르 장군을 지지하면서 터키-UAE 양국관계는 냉각되었다. UAE 공군이 터키군 주둔 군사기지 공습에 동참하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나빠졌다. 예컨대 2020년 7월 공습을 받은 알와티야 공군기지는 공습 몇 달 전 터키군이 주둔한 곳이었다.[55] 군사적 긴장감과 함께 외교전도 치열해졌다.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무장관은 터키의 아랍 문제 개입 중단을 촉구하였다.[56] 프랑스는 터키가 자국 군함을 공격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해상수호훈련(Operation Sea Guardian) 참가를 중단하고[57] 터키를 상대로 외교전을 벌였다. 이러한 변화에 터키는 역내 새로운 동맹을 찾아 나섰다. 지중해 소규모 도서 국가와 협상을 시작하고 EU 회원국인 몰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다.[58]

터키는 UAE가 중동과 서방에서 반터키 정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59] 게다가 터키는 UAE가 귈렌(Fethullah Gülen)이 이끌고 있는 귈렌 운동(Gülen movement)과 긴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60] 에르도안은 귈렌을 정적으로 여겨 지속적인 탄압을 가해왔다. 터키는 2016년 쿠데타 시도 이전에 UAE가 이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여전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61] 또 UAE가 시리아와 이라크의 PKK(쿠르디스탄 노동자당)와

---

53) "Son dakika. Libya'da kritik gelişme! Abluka altı na alı yorlar."(2020. 7.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9).

54) "Egypt's parliament approves troop deployment in Libya"(2020. 7. 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30).

55) "Libya is turning into a battle lab for air warfare"(2020. 8. 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7).

56) "UAE official tells Turkey to stop meddling in Arab affairs over Libya"(2020. 8.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4).

57) "France Pulls Out Of NATO Operation Sea Guardian Amid Tensions With Turkey"(2020. 7.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58) "Turkey, Libya, Malta 'agree on joint cooperation'"(2020. 8.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5).

59) "UAE under fire for funding incitement targeting Turkey, Qatar"(2020. 10. 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60) 터키 정부는 귈렌 운동을 Fethullahist Terrorist Organization(FETÖ)로 간주한다.

PPK 관련 단체에 재정과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62] UAE는 동지중해 분쟁에 개입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그리스 공군과 벌인 합동작전에 F-16 전투기 4대를 파견하였다.[63]

이스라엘과 UAE와 바레인이 체결한 아브라함협정은 걸프 국가의 동지중해 개입을 강화하였다. UAE의 공격적인 외교정책과 야심은 터키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최근 리비아 정세가 다소 나아지면서 터키와 UAE도 관계 개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UAE 국가안보보좌관 타흐눈 빈 자이드(Tahnoun bin Zayed)는 8월 중순 이스탄불을 방문하고 터키와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2주 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는 에르도안과 전화 통화에서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였다.

터키는 외교적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이집트, 이스라엘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터키와 이집트 관계 악화는 2013년 대규모 반모르시 시위 이후 이집트가 무슬림형제단 출신인 당시 이집트 대통령 모르시(Mohammed Morsi)를 쿠데타로 하야시키면서 촉발됐다. 에르도안은 시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TV에 출연해 시시를 불법 독재자로 묘사하기도 하였다.[64] TV에서 공격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에르도안은 시시를 전쟁범죄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집트는 터키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소를 방해하였다. 결국 이집트는 카이로 주재 터키 대사를 추방하고 앙카라의 자국 대사를 소환하였다.[65] 이데올로기 논쟁에서 시작한 두 대통령 간 갈등은 이익 충돌과 역내 비전 경쟁으로 번졌다. 시리아 내전에서 시작된 충돌은 리비아 전쟁과 지중해 해양경계획정으로 확장됐다.[66]

---

61) Gökhan Ereli(2020), "FETÖ ve BAE'nin D ı ş Politikas ı nda Terör Örgütleri."
62) "IKBY'de BAE'den terör örgütü PKK'ya para transferi iddias ı "(2020. 6.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
63) "UAE Sends Four F-16 Jets To Support Greece Against Turkey"(2020. 8.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6).
64) *Ibid.*
65) *Ibid.*
66) *Ibid.*

이 기간 에르도안의 가장 큰 무기는 터키에 있는 반시시 이슬람주의자들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터키 정부는 이집트 대통령과 정권을 겨냥한 이집트 이슬람주의자들의 TV 방송국과 뉴스 사이트를 승인하였다. 이집트와 터키 두 국가간 갈등은 2020년 최고조에 이르렀다. 터키가 지원하는 리비아의 GNA에 대항하는 하프타르의 LNA를 지원하고자 시시가 이집트 군사 개입을 암시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의 절정으로 치달았다.[67]

그러나 외교 마찰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계는 굳건하였다. 양국은 15년 된 자유무역협정을 준수했고, 2019년 터키 상공인들은 양국 무역 수지가 52억 달러라고 주장하였다. 경제협력 관계는 양국간 화해할 수 있는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이집트와 터키 양국이 리비아 GNA를 모두 지지했다는 점에서 관계 회복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68]

2021년 3월 8일 터키 대통령실 대변인 칼른(Ibrahim Kalın)은 대이집트 관계는 터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칼른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와의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 의지는 지난 3월 18일 이집트 시시 정권을 공격하는 터키 내 반이집트 미디어 채널의 모든 정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면서 명확해졌다. 이집트 정부는 아직 터키 정부의 태도 변화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화해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이칼(Osama Heikal) 이집트 정보부 장관은 터키의 관계 개선 의지를 호의적으로 본다고 밝혔다.[69] 터키에 망명 중인 이집트 출신 이슬람주의자들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자신들을 이집트에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에르도안의 새로운 태도 변화는 관계 개선을 뜻하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며, 양국간 이슬람주의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갈등의 변화 조짐을 의미한다.[70]

---

67) *Ibid.*
68) *Ibid.*
69) Atef(2021. 3. 25), "Turkish-Egyptian Relations after Erdoğan's Sacrifice of the Muslim Brotherhoo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에르도안이 이집트 정권에 호의를 보이기 위해 무슬림형제단에 등을 돌리고, 반시시 방송 채널 활동을 중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터키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집트가 지중해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을 위한 가스 탐사 업체와 맺은 계약에서 터키의 대륙붕 지역을 제외한 조치에 호의를 보인 것이라는 것이다. 2020년 그리스와 이집트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협정은 터키를 배려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터키 해안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에 속하는 카스텔로리조(Kastellorizo)섬을 이용하여 그리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터키와 교섭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71]

또 다른 설명은 미 행정부의 변화가 터키의 태도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에르도안은 이미 유럽과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산 S-400 방공 미사일 도입을 발표하고, 테러 퇴치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지한 시리아 반정부군(SDF)을 거부한 터키에 아직 특별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민주당은 터키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에르도안에게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다.[72]

따라서 바이든이 당선되고 유럽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터키의 불안한 경제, 주요 아랍국가와 외교악화에 따른 외교적 고립 때문에 터키가 이집트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에르도안은 무슬림형제단을 희생하여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을 모색한 것이다. 터키는 카타르와의 관계 개선에 합의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비공식적 연대를 원했을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세 국가 모두 야권과 시민사회를 탄압한다고 보고 있다.[73]

---

70) *Ibid.*
71) 이기범 (2020); Atef(2021. 3. 25), "Turkish-Egyptian Relations after Erdoğan's Sacrifice of the Muslim Brotherhoo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72) Atef(2021. 3. 25), "Turkish-Egyptian Relations after Erdoğan's Sacrifice of the Muslim Brotherhoo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73) *Ibid.*

이집트와 타협할 준비가 됐다는 터키의 지속된 신호와 터키 내 반이집트 연대의 시시 정부 공격 차단 이후 이집트도 터키와 관계 개선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향후 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터키의 유화적 움직임에 어떻게 구체적인 반응을 보일지가 양국관계 개선에 관건이 될 것이다.[74]

터키와 이스라엘 관계는 1949년 국가 건설 이후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최근 터키-이스라엘 관계가 냉각된 이후 터키는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대미 관계에도 제약을 받는 터키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주변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먼저 경제, 에너지, 정보와 정치 이익을 위해 대이스라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득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터키는 특히 이스라엘과 아랍 간 관계 개선, 카타르와 GCC 국가, 카타르와 이집트 간 화해 이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지중해 지역 협력체 연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2020년 동지중해 가스포럼이 창설됐지만, 터키가 완전히 배제된 것 역시 부담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75]

이스라엘은 터키와의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먼저 터키가 세 가지 사안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하마스 지원 중단이다. 이스라엘은 터키가 하마스 무장대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대이스라엘 테러와 사이버 공격을 위한 기지로 자국을 이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한다. 터키 관리는 최근 이를 부인하며 터키에 비밀 하마스 세포조직은 없고,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하마스 지도자는 2011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포로 교환으로 풀려난 대원들뿐이라고 해명하였다.[76]

둘째, 이스라엘은 터키가 예루살렘 문제에 과도한 관심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현재 요르단이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하람 앗샤리프(성

---

74) *Ibid.*
75) Valansi(2021. 3. 10), "Turkey is seeking a fresh start with Israe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76) *Ibid.*

전산)의 수호자 지위를 터키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슬림 세계에서 요르단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다.[77]

셋째, 이스라엘은 터키가 서방과 러시아와의 복잡한 관계에서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행위자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에르도안 정권이 완전히 권위주의로 회귀했다고 믿는다. 작년 이스라엘군은 국방백서에서 터키를 자국에 도전하는 국가로 명시하였다.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서 터키와 이스라엘은 의견이 서로 갈린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한 견해차는 가장 위험한 수준이다. 에르도안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터키의 '금지선'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독립을 지지하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 된 바 있다.[78] 이스라엘은 터키가 UAE, 이집트와의 관계 개선을 진행하면 대터키 관계 복원을 재고할 것이다.

최근 터키와 미국 간 관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4월 24일 아르메니아 학살 추모일에 터키에서 벌어진 일이 '아르메니아인 학살'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터키는 충격에 빠졌다. 양국관계는 전임 오바마와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가치 동맹 시기와 달리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국 내 터키 지지자가 대폭 축소돼 터키의 입지가 좁아졌고, 공화 · 민주 양당 모두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만큼 양국관계가 좋지 않다. 예컨대 미국은 F-35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배제하고 아르메니안 학살을 인정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겼다. 터키와 미국은 유례없는 전략 동맹국이지만, 터키의 추락은 주변국에도 여러 함의를 던져준다.[79]

터키와 미국 간 관계가 최근 더욱 악화하였지만, 에르도안과 바이든이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국가가 관계 개선과 글로벌 문제, 역내와 양국

---

77) *Ibid.*
78) *Ibid.*
79) Lindenstrauss and Shavit(2021. 5. 6), "From Crisis to Crisis: Turkey-US Relations at a Low Poi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3).

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미국은 NATO의 이익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터키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고, 터키는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였다.[80] 실제로 2021년 6월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이뤄질 때까지 미군의 안전 보장을 위해 터키가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S-400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81]

터키가 이제 어느 쪽이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역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충족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동맹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승리로 중동 및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러시아는 유럽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율을 높이고 NATO를 해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대중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중국은 저리융자, 대형 국내 시장 접근 등 차용국의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러시아와 중국이 관련 국가에 일정 기간 안전을 제공할 수도 있다.[82] 터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터키가 시리아, 리비아와 코카서스 남부에 개입해서 무슨 이익을 얻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시리아에서 쿠르드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의 양보를 얻어 터키의 발전과 안전을 가져왔는지도 알 수 없다. 중국산 제품이 터키산 제품보다 더 싸게 팔리고 위구르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현 상황이 터키가 중국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일이 아닌지 의심도 받고 있다.

반면 우방이었던 미국에 등을 돌린다면 터키가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 의회 다수가 터키에 제재를 부과하면 외국 투자자들의 터키 내 투자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증가하여 심각한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83] NATO가 막강했던 시기에도 터키와 미국은 외교정책에서

80) "The future for the US and Turkey"(2021. 4.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6).
81) "U.S. Says Biden, Erdogan agreed on Afghanistan, but S-400 issue is unresolved"(2021. 6.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9).
82) "The future for the US and Turkey"(2021. 4. 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6).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양측은 서로 동의하는 것보다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 더 많다.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민감성을 고려하면, 터키-미국 관계는 적어도 단기간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친분으로 누렸던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외교를 통한 기준, 규칙과 제도를 옹호하고, 전통적인 외교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84] 터키-미국 동맹의 근간이 굳건한 만큼 양국 간 차이를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2019년 러시아산 S-400 방공 시스템 도입은 미국-터키 관계에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85]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에 따른 국제 정세변화에 따라 터키는 최근 미국과 유럽에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NATO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가진 터키는 비록 민주주의 규범에서 많이 어긋나있는 나라지만, 유럽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 양상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터키와의 관계 설정에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터키-미국 관계가 재설정뿐 아니라, 역내에 심대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86]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지도력 복원을 천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카드를 사용하려는 터키는 더 어려운 셈법을 써야 하고, 비용 또한 만만찮게 높게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3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잠정지침은 변화하는 글로벌 안보 지형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와 동맹 강화, 해외에서 미국의 신뢰 회복과 국내 재건 등 야심 찬 목표의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바

83) *Ibid.*
84) Nasi(2021. 4. 13), "The way forward for Turkish-American relations: Partnership à la car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85) *Ibid.*
86) *Ibid.*

이든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바이든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한 것을 지목하면서 러시아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87]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터키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터키와 러시아는 시리아, 리비아와 아제르바이잔 등 세 곳의 분쟁에서 서로 반대편을 지지함에도 긴밀히 소통해 왔다. 터키는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을 지지하며 2014년 러시아의 크림 지역 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터키는 2021년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방위 협력 관계일 뿐만 아니라, NATO의 신속 대응군(VJTF: Very High Readiness Joint Task Force)의 지휘부 역할을 해야 한다. 신속 대응군은 NATO의 북부 측면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발생하면 터키는 러시아 군대와 교전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88]

터키와 중국 관계 역시 내부 모순에 빠져 있다. 터키는 중국의 일대일로 중부 회로의 허브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층적인 외교정책 접근을 취하고 있다. 2019년 중국의 터키 투자는 12억 달러 수준으로, 동 기간 유럽의 터키 투자 금액 1,000억 달러에 비하면 현저하게 약소하다.[89] 2019년 중요한 이스탄불 시장선거 전에 중국중앙은행은 양국간 리라-위안 스와프 협정에 따라 1억 달러 기금을 터키에 송금하였다.[90] 터키가 유럽산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실패하자 중국은 시노백 바이오테크 제조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하였다.[91] 그러나 터키 의회가 양국간 범죄인도 협정 비준을 연기하자 중국 역시 추가 백신 제공을 미루면서, 중국의 터키 외교가 중국의 신장

87) *Ibid.*
88) *Ibid.*
89) The Central Bank of Turkey(2021. 1),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5).
90) "Turkey Got a $1 Billion Foreign Cash Boost From China in June"(2019. 8.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5).
91) "Turkey to start using China's Sinovac COVID-19 vaccine after strong results"(2020. 12.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9).

지역 위구르인 탄압을 묵인하게 하려는 당근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92]

이와 관련해 차우쇼울루(Mevlüt Çavuşoğlu) 터키 외무장관은 2021년 3월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앙카라를 방문했을 때 한 단계 진전한 "터키-중국 전략 협력 관계"는 앙카라가 추구하고 있는 독자적인 외교정책 방향과 충돌할 뿐 아니라 터키-미국 관계 재설정을 준비하는 터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93]

터키와 미국 사이에 놓인 문제는 많다. 터키의 러시아산 S-400 방공 미사일 도입, PKK와 연대하고 있는 쿠르드 민병대(YPG)에 대한 미국의 지지, 터키 국영은행 할크방크 재판은 극히 일부다. 바이든 정부는 미적대국 통합제재법(CAATSA: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따라 S-400 방공 미사일 도입에 따른 터키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2021년 2월 아카르(Hulusi Akar) 터키 국방장관은 그리스가 그리스령 키프로스로부터 도입한 러시아산 S-300 방공 미사일을 1997년 크레타섬에 배치한 합의처럼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94] 미국은 터키의 S-400 방공 미사일 배치는 수용하겠지만,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터키가 방공 시스템 작동을 불능화하도록 감시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동의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적지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터키와 미국 간 힘든 협상이 예상된다. 단기적 목표는 양국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2021년 3월 NATO 외무장관 회담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NATO는 "터키와 동맹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이익이 있다고 강조하였다.[95]

---

92) "Turkey, China assert rapprochement despite Uyghur protests, vaccine delay"(2021. 3.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9).

93) "China, Turkey reject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 cooperation"(2021. 3.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4).

94) "Turkey-US ties won't go anywhere unless YPG problem is resolved: Defense minister"(2021. 2. 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4).

바이든 정부는 터키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데 주저하지 않지만,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기회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6월 개최된 G7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탈레반 간 협상을 터키가 주선해 달라는 미국의 제안을 터키가 수용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96] 3월 25일 EU 회담에 앞서 터키의 민주화가 지지받기를 바라는 미국은 EU 관리들에게 터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말라고 제안해 서방 국가들을 놀라게 하였다.[97] 미국이 명심해야 할 점은 터키를 고립시키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품에 안기지 말고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정도를 가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안별 협력이 터키-미국 관계에 더 현실적인 관계 개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은 최소한 양국관계가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터키를 서방 동맹에 묶어두는 전술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나. 카타르 외교 · 안보 정책 변화와 전망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와하비 이슬람을 채택하고 있지만, 와하비 해석과 적용은 훨씬 온건한 편이다. 카타르는 또 여성 인권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두 국가 모두 급진 이슬람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카타르는 항상 정치적 시류에 적응해온 만큼, '아랍의 봄' 기간에 이슬람주의자를 더 영향력 있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지원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 카타르가 이슬람주의자들에게 군사와 재정 지원을 해온 이유는 다양한 이슬람주의 단체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95) "NATO must keep Turkey close despite differences, Blinken says"(2021. 3.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4).
96) "In overseas trip, Biden to meet Turkey's Erdogan, UK's queen"(2021. 6. 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7).
97) "Exclusive: EU halts sanctions on Turkey oil executives as ties improve"(2021. 3.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30).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카타르 외교정책의 핵심은 역내 이슬람 세력 지원을 통해 여러 분쟁의 중재자 및 협상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카타르는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이라크, 이스라엘과 레바논과 수단, 예멘 협상에 관여하였다.[98] 카타르가 공공 외교에서 자애로운 중재자 국가 이미지를 만들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다. 첫째, 자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것이다. 카타르는 정치적 · 군사적 경쟁이 만연한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만큼 국제적 위상을 높여서 약소국의 취약성과 무명성에 따른 위험, 즉 1990년대 쿠웨이트가 경험한 위험을 극복하려고 한다.[99]

둘째, 카타르는 후시 반군과 예멘 정부 간 분쟁 및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하리리(Saad Hariri)가 이끄는 3월 14일 동맹 간 대결을 중재하여 분쟁 확산을 막고 자국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단체와 정적 간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역내 이란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전략적 포석도 담고 있다.

셋째, 역내 역할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전통적으로 역내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립성을 잃고 적극적이나 편향된 역할자가 되었다.

넷째, 균형 잡힌 중재자로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지렛대 삼아 중립국의 위상을 굳히려는 것이다. 카타르 왕정은 자국을 서방의 국제 동맹으로 정의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자 노력하였다.[100] 또한 미국 중부사령부 본부를 유치하고 있고, 2008~09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무역대표부를 유지했던 국가였다.

카타르가 국제 동맹의 핵심 국가로 인정받으면, 부차적으로 얻는 이익도 많

98) Hounshell(2012).
99) Roberts(2011).
100) *Ibid.*

다. 첫째, 불안정한 역내에서 안전을 제공할 수 있다. 우다이드(al-Udayd) 미국 공군기지는 역내에서 가장 긴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고, 사일리야(al-Sailiya) 캠프는 미 영토 밖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사전 배치 부대이다.[101] 둘째, 카타르가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최신 비즈니스 지향 국가를 건립하려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102] 셋째, 국제 동맹은 카타르 자국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찬가지로 카타르 역시 자국 내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랍 세계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강력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필수 불가결한 전략 동맹이라는 핑계로 이를 피해갈 수 있다.[103]

중재 외에도 카타르는 역내 다양한 정치 행위자에게 자국의 문턱을 개방하는 정책을 추구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달리 카타르는 여러 해 동안 무슬림형제단의 핵심지지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우호적인 관계를 무슬림형제단과 유지하고 있다. 카타르는 도하에 무슬림형제단 지도자를 초청하고, 재정 지원을 위해 알자지라 방송을 이용한다. 또 이집트 이슬람학자 까라다위(Yusuf al-Qaradawi)에게 망명처를 마련해주고, 알자지라 방송의 종교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도록 하였다.[104] 까라다위는 2011년 이후 시작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와 시리아의 '아랍의 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카타르는 리비아 이슬람주의자들에게 망명지를 제공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카다피 암살에 연루돼 기소·투옥된 바 있는 살라비(Ali al-Sallabi)가 있다.

2021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울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과 이집트가 2017년 카타르에 부과했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이다. 이런 화해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101) *Ibid.*
102) *Ibid.*
103) Khatib(2013), p. 419.
104) *Ibid.*

역내 긴장감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제 갈등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의문이다.

카타르는 이란과 터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주변 걸프 국가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끄지 살해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도 UAE, 바레인,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105]

2021년 3월 파르한(Faisal bin Farhan)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은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지도자를 만나 양국관계 개선을 논의하였다. 몇 주 후 타밈(1980~, 재위 2013~, Tamim bin Hamad Al Thani) 카타르 국왕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통화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협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이집트 고위급 대화 역시 증가하였다. 알울라 합의 서명 이후 에마디(Ali Sharif al-Emadi) 카타르 재무장관은 카타르 부동산 기업 디아르(Diar)가 주최한 카이로 세인트 레지스 호텔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2021년 2월 카타르와 이집트 대표단의 공식적인 회동과 카타르와 UAE의 쌍무회담이 쿠웨이트에서 열렸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신뢰 회복 조치와 관계 개선을 논의하였다. 4월 카타르 국왕은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하고 라마단 인사를 나눴는데, 이는 1월 알울라 합의 이후 첫 번째 통화였다.

카타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전부터 탈레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고, 미국과 탈레반의 협상을 중재하였다. 카타르는 8월 30일 미군 철수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해 탈레반과 서방의 대화를 중재하고 있고, 터키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선하고 있다. 카타르는 UAE와 터키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의 역내 관계와 외교정책은 알울라 합의 결과로 중대한 변화의 전기

---

105) Jacobs(2021. 4. 14), "Qatar's Reg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fter Al Ul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를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도하는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고,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개입할 것이다. 알울라 합의로 일단 긴장감은 해소됐지만, 걸프 국가 간 미결과제와 논쟁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2. 아브라함협정의 도전과 한계

2020년 10월 UAE, 바레인, 이스라엘이 아브라함협정을 체결해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를 연 후 수단과 모로코가 뒤따랐고, 오만의 참여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랍 측에서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안보와 군사,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적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협정의 걸림돌 역시 존재한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가 새롭게 열리자 UAE보다 먼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집트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면서, UAE와 이집트 양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 관계가 생겼다. 아브라함협정 이전 중동 내 대표적 친미 순니파 아랍국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이었으나, 협정 이후 UAE와 이스라엘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이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이집트의 전략적 중요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UAE와 이스라엘의 협력은 동지중해를 거점으로 한 에너지 부문 공조에서 두드러졌다. 2021년 4월 이스라엘의 자원회사가 동지중해 연안 타마르 가스전 보유권 20%가량을 UAE에 매각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서부 항구도시 하이파 근처에 있는 타마르 가스전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천연가스 생산지이다. 양국은 천연가스에 이어 에너지 자원 운송 관련 협력도 다지고 있다. 이스라엘 남부 항구도시 에일라트와 북부 항구도시 아슈켈론을 잇는 파이프라인으로 UAE의 석유 자원을 유럽에 운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이스라엘과 UAE의 항만업체가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 개발 공동 입

찰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아브라함협정 이전 이스라엘의 동지중해 에너지 부문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아랍 파트너는 이집트였다. 2020년 9월 이집트는 이스라엘, 그리스, 키프로스, 이탈리아, 요르단과 함께 동지중해 가스포럼을 조직했고, UAE는 같은 해 12월에야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그런데 뒤늦게 가입한 UAE가 이스라엘과 빠르게 밀착하자 이집트와 UAE는 경쟁을 넘어 갈등 관계로 들어섰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UAE가 추진하고 있는 에일라트-아슈켈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이집트의 재정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 에일라트-아슈켈론의 육로 수송라인이 완성되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에일라트-아슈켈론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른 걸프 산유국 역시 이 파이프라인으로 유럽에 원유를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비산유국이나 수에즈 운하 통행료, 관광 산업, 해외노동자 송금으로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충당한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한 재원이 줄어들면 이집트 권위주의 정권은 재정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아브라함협정이 체결된 후 순니파 아랍국가 사이에서 아랍 민족주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피로감이 드러나자, 그동안 아랍 민족주의 대변인이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중재자를 자임해왔던 이집트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2021년 5월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서 이집트는 하마스와 대화 채널을 가동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써 이집트는 국제사회에 자국의 입지와 영향력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넉 달이 넘도록 쿠데타로 집권한 시시 이집트 대통령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았으나, 이집트가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정을 중재한 직후 시시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집트에서는 2013년 시시 현 대통령이자 당시 국방장관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무슬림형제단 정부를 쿠데타로 몰아냈고, 2019년 헌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장

기 집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집트 정상회담에서 시시 대통령을 "제일 좋아하는 독재자"라고 치켜세우며 친분을 과시한 바 있다. 2013년 시시 국방장관이 주도한 쿠데타 발발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대이집트 원조를 즉각 중단하였다. 이집트는 재정 공백을 사우디아라비아가 제공한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메웠다. 중동에서 아랍 민족주의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에 대한 무관심과 피로감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스라엘-하마스의 군사 대결이 이어지는 한, 이집트의 중재자 역할은 당분간 필요할 것이다.[106]

아브라함협정의 또 다른 한계는 이란의 패권 추구에 맞선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의 안보협력과 미국의 지원이 이란 강경파를 자극해 역내 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청년층의 대외관계 인식이 점차 실용주의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순니파 걸프국이 반이란 외교정책을 자극적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2010년대부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감한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핵심 배경은 바로 자국 내 청년 의식의 변화다. 두 나라가 청년과 여성 인재 등용, 개인의 자유 확대 법안 시행 개혁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배후에는 2010년대 초부터 나타난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종교 공동체와 온정적 복지정책을 강조해온 기존의 통치 권위가 흔들리자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국제 감각이 뛰어난 청년층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두 나라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전통가치, 탈민족주의, 탈종파주의 경향이 두드러지자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권 안정과 왕실 생존을 위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 인구의 의식 변화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는 곧 파격적인 개혁개방의 동력으로 작동하였다.[107]

---

106) 장지향(2021) pp. 4~6; Al-Anani(2021. 6. 3), "Explaining Egypt's Role during the Gaza W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세대에서 나타난 의식 변화의 계기는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이었다. 당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 왕정은 정권 생존의 위협을 느껴 시위 금지령을 내리는 동시에 개각과 개혁을 단행하고, 민생 안정 약속을 하면서 자국 내 반정부 움직임을 회유하였다. 혁명이 일어난 지 2년 만에 이집트는 군부 권위주의로 다시 되돌아갔고,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는 내전이 이어졌다. 주변국에서 권위주의 회귀와 내전 장기화가 자리잡자 산유 왕정국의 체제 내구성이 인정을 받는 듯하였다. 그러나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의식의 탈전통가치 추세는 강화되었다. '아랍의 봄' 혁명 직후 두 나라가 실시한 단기 처방은 청년층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 것이다.

이에 걸프 산유국 두 정부는 정권 안정을 위해 시민의 비판과 청년 여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청년층의 의식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아랍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아랍의 봄' 혁명 이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민감한 주제의 여론조사에 불편을 토로하거나 개입을 시도하려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들 여론조사 기관은 아랍 지역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응답자의 편향과 오차 정도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한 GCC 회원국의 응답률은 다른 국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국가의 과감한 개혁 정책은 '아랍의 봄'이 가져온 간접적이나마 유일한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108]

이처럼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청년층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대외정책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향한 적대적 인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

107) Bizaer(2020. 11. 2), "How the UAE-Israel deal could change the regional power bal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5. 18).
108) 장지향, 유아름(2021), pp. 8~9.

고, 종파주의와 민족주의 대신 실용주의 시각으로 안보 위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다. 카타르의 아랍 정책 리서치 센터(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가 구축한 '아랍 오피니언 인덱스(Arab Opinion Index, 2011~20)'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아랍국가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대외관계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 시민은 탈종파주의, 탈민족주의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응답자의 대이란, 대이스라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란이 아랍 지역의 종파, 인종 갈등을 부추겼다"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5년 54%에서 2017/2018년 41%로 하락(-13%p)한 반면,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2015년 9%에서 2017/2018년 15%로 상승(6%p)하였다. "아랍 지역 최대 위협국가"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45%에서 2017/2018년 39%로 하락(-6%p)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응답자의 이스라엘 인식은 다른 GCC 국가보다 긍정적이었다. 동 보고서에서 인용한 2019/2020년 아랍 오피니언 인덱스 대외관계 항목 중 "아랍 지역 최대 위협국가"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사우디아라비아 응답자는 14.5%로, 다른 GCC 회원국인 카타르(28%), 쿠웨이트(50.8%)보다 낮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치는 조사 국가 평균 37%보다도 낮았다.[109)]

미국 조그비 리서치 서비스(Zogby Research Services)는 2019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아랍 8개국 만 15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 838명과 UAE인 429명이 포함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 이란과 아랍국가 사이에 평화가 공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에 UAE인은 58%, 사우디아라비아인은 26%가 공감하였다. 특히 UAE의 수치는 아랍국가 중 가장

109) 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2015, 2016, 2017/2018, 2019/2020), 온라인 자료; ASDA'A Burson-Masteller(2011, 2014), 온라인 자료; Kamrava and Dorzadeh(2020),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4. 15).

높았고, 요르단(50%), 이라크(45%), 이집트(52%), 튀니지(31%)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합의에 상관없이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관계 정상화는 바람직하다"에 UAE인은 84%, 사우디아라비아인은 79%가 공감하였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치는 아랍국가 중 가장 높았고, 이집트(73%), 요르단(72%), 레바논(49%)이 뒤따랐다.[110]

위에서 살펴보았듯, 2010년대 중반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을 향한 양국 시민의 긍정적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국 정부의 아브라함협정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결단을 도왔을 것이다. 두 나라 정부가 이스라엘과 전략적 연합을 추구하면서 판단 근거로 삼은 청년 여론은 양국이 앞으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반이란 행보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판단의 근거이기도 하다. 순니파 걸프국 내 새로운 대외 인식 여론에 따르면, 민족주의와 종파주의에 기반을 둔 대립적 대외 행보는 점차 외면당하며 힘을 잃고 있다. 실제로 2020년 10월 아브라함협정이 체결된 직후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났는데, 이와는 별개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자가 이라크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이라크 총리 주선으로 바그다드에서 예멘 내전을 둘러싼 역내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함께 안보협력을 꾀하고 이란을 향해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되, 전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경제 다변화와 산업 다각화의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들 두 나라에 역내 불안정은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성과를 내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동할 것이다. 이란의 강경파도 미국발 최대 압박 제재와 민생고에 따른 국내 여론 악화로 전쟁을 부담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UAE에도 전쟁이라는 옵션은 매력적이지 않다. 이

110) James Zogby, Elizabeth Zogby, Sarah Hope Zogby(2019), "Looking to the Next Decade: Arab, Turkish & Iranian Opin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4. 15).

란 혁명수비대와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의 친이란 프록시 조직이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 참전으로 전투력과 화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제4장

아브라함협정 이후 역내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및 현황
2. 아브라함협정 이후 경제협력 현황
3. 이스라엘-UAE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효과 분석

제2장과 제3장에서 아랍 왕정국가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동 전선과 함께 아랍 왕정국가와 이스라엘 간 외교 관계 회복의 배경을 살피고 향후 전망을 내다보았다. 순니 아랍국가나 이스라엘 모두 반이란 전선을 상당 기간 강화하는 가운데, 탈석유 시대 아랍 산유국은 대이스라엘 외교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침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랍-이스라엘 간 외교 관계 복원은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더욱 안정될 것이다.

화석연료의 생산과 수출에만 의존했던 아랍 산유 왕정국의 경제 구조는 이미 탈석유 및 제조업 기반 구축, 자국민 고용 증대를 목표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시작하였다.[111] 한편 기후 위기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농산물 가격 때문에, 식량을 해외에서 싼 가격에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했던 아랍 왕정국은 식량 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응하여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미래 핵심 산업인 정보통신 산업, 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인접국 이스라엘은 아랍 왕정국에게 매력적인 협력 대상이다.[112] 최근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그간 우호 관계 속에 투자를 유치했던 러시아, 중국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아랍 산유국이 매력적인 투자 파트너이다. 실제로 아브라함협정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방위산업 관련 거래의 형태나 소규모 ·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UAE 등의 투자가 이스라엘로 향했던 것으로 보인다.[113]

본 장에서는 아브라함협정을 계기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중동 지역 내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을 짚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협정 역내 당사국인 UAE, 바레인,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와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111) 저유가 장기화에 대응하는 GCC 국가들의 경제정책 변화는 이권형 외(2020)가 상세하게 다루었다.
112) 인남식(2020), p. 1.
113) KOTRA(2021), p. 5.

1년간 경제협력 현황과 주요 협력 분야를 정리한다. 그리고 아랍-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UAE-이스라엘 경제협력이 확대되면서 예상되는 역내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세계은행과 국제연합 무역개발위원회(UNCTAD)가 주축이 되어 개발한 부분균형분석 모형인 WITS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의 SMART를 이용하여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효과를 전망해보았다.

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및 현황

아브라함협정의 역내 당사국인 UAE, 바레인,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UAE와 바레인은 모두 상품 수출 중 화석연료 수출 비중이 40%가 넘는 석유 수출국인 반면, 이스라엘은 최근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으로 상품 수출 중 화석연료의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산유국 UAE와 바레인 모두 석유 수출을 통해 얻은 재원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는다. 특히 UAE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약 88.1%에 달하는 외국인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인구 및 경제 규모 측면에서 큰 격차가 있다. 인구는 UAE가 바레인보다 약 5.8배 많고, 2019년 기준 GDP는 UAE가 바레인보다 약 10.9배가량 크다. UAE는 GCC 국가 중 가장 탈석유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상품 수출 중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화석연료 등 석유 수출이 2019년 기준 전체 수출의 약 77.9%에 달하며, 상품 수출 중 고도기술상품(high-technology products)의 수출 비중은 약 2.9%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의 경제 규모는 UAE와 비슷하나, 수출입은 UAE의 약 1/3가량이다. UAE의 비석유 부문 수출만 고려한다면 이스라엘의 전체 상품 수출과 규모가 비슷하지만, UAE 수출 중 상당 부분은 가공(processing) 없이 진행되는 중개

거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출 역량이나 내수 시장이 UAE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수출 구성에서도 2019년 기준 이스라엘의 상품 수출의 약 23.1%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고도기술상품으로 분류된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1인당 연구개발투자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114] 향후 미래 혁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국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외국인(이민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2.6%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민자 대부분은 귀환법(Law of Return)에 따라 국적을 부여받는 유태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노동인구 구성은 산유국 UAE와 바레인의 외국인 노동자 중심 노동인구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

표 4-1.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의 경제 구조 비교

	이스라엘	UAE	바레인
GDP(십억 달러, 2019)*	397.9	417.2	38.7
국토 면적(천 ㎢)***	20.3	83.6	0.8
인구(백만 명, 2020)**	8.7	9.9	1.7
외국인 비중(%, 2020)**	22.6	88.1	55.0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십억 달러, 2019)*	117.4	404.0	29.6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십억 달러, 2019)*	108.7	295.6	25.2
상품 수출 중 화석연료 비중 (%, 2019)*	2.1	77.9	42.1
상품 수출 중 고도기술상품 수출 비중(%, 2019)*	23.1	2.9	4.4

자료: * World Bank, Databank, **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20), *** 외교부(모든 온라인 자료의 검색일: 2021. 1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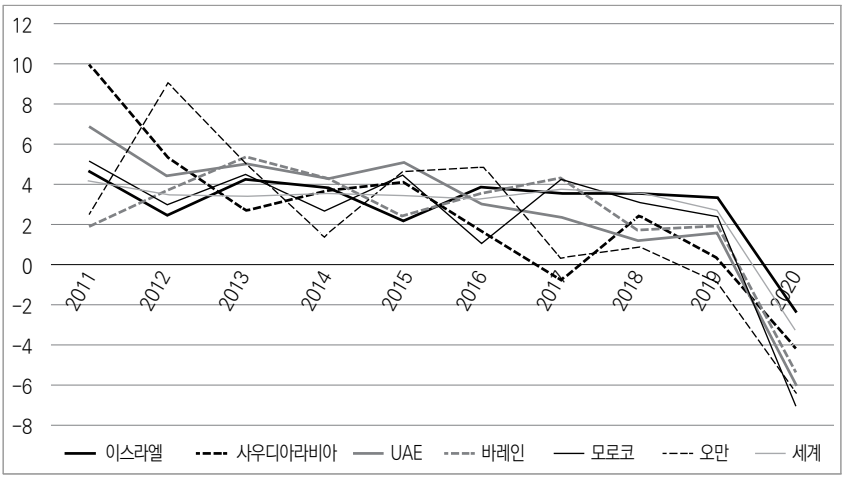
최근 중동 지역 경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7%가량 역성장하였다. 그중에서는 코로나19 방역

114) GDP 대비 R&D 투자 비중 1위 이스라엘(4.9%), 2위 한국(4.6%). OECD(2021),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에 적극적이었던 이스라엘의 경제성장률 감소치가 가장 양호하였다. 2014년 이후 저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경제성장률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UAE나 바레인의 경제 성장세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UAE는 점차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다각화에 힘쓰면서 역내 산유국과 경제성장률의 패턴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안정화와 기저효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1 참고).

그림 4-1. 중동 주요국의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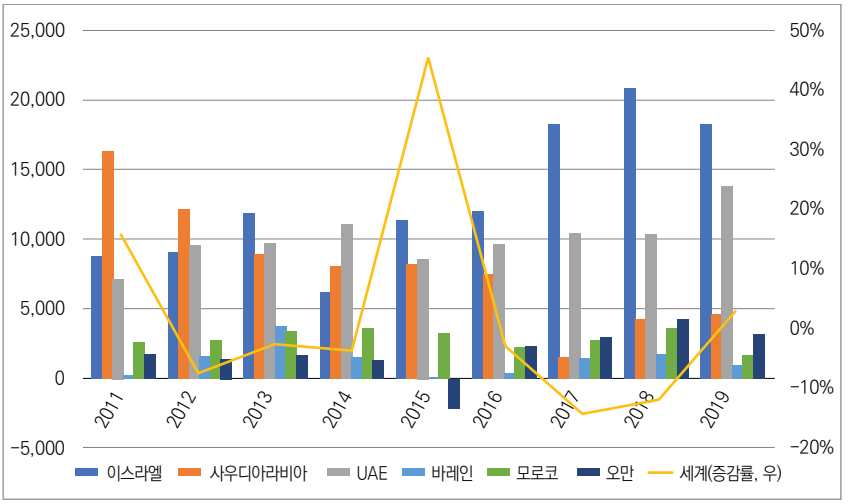
주: 2020년은 잠정치.
자료: IMF(2021.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1)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스라엘은 2015년부터 줄곧 중동 지역 외국인 투자유입액 1위를 유지하고 있다. UAE가 그 뒤를 이어 역내 2위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2014년 저유가 진입 이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국인 투자유입액이 UAE, 이스라엘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았으나 2013~14년 이후 투자유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4-2 참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UAE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 지향적인 경제를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브라함협정 체결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경제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4-2. 중동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유입 추이

(단위: (좌)백만 달러(명목), (우)%)



자료: UNCTAD(2020)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아브라함협정 이후 경제협력 현황

2020년 8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협정을 체결한 UAE와 바레인 외에도 2021년 11월 현재까지 모로코, 수단 등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다시 격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추가적인 협력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아브라함협정 당사국인 UAE와 바레인, 모로코는 각각 이스라엘과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 간 논의와 함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딘 정치·외교 관계 회복과 달리 대체로 경제협

력은 즉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편이다.[115]

아브라함협정 이후 약 1년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UAE 간 경제협력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가장 다변화된 경제 구조를 가진 UAE와 이스라엘은 경제협력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수자원과 식량 안보,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창출해 나가려 한다고 볼 수 있다.[116] 지난 2021년 6월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UAE를 방문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경제 및 무역 협력에 대한 합의서(Agreement on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를 체결하고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 무역박람회 개최, 대표단 교환 등 인적교류 활성화, 표준화 및 규제 관련 협력, 민간협력 촉진, 공동 R&D 프로젝트 육성, 개발 및 농업기술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합의서는 아직 양국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정식 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이중과세 방지조약도 체결되어 비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항공, 농업, 교육, 통신, 에너지, 기술,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양국이 핵심 미래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녹색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부다비에 경제부 산하 투자청(FTA: Foreign Trade Administration) 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이다.[117] 2021년 3월까지 이스라엘과 UAE는 86여 개의 쌍무협정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 중 정부 간 합의는 20여 개, 민간부문 합의는 53개이며 대학과 싱크탱크 간 합의가 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4-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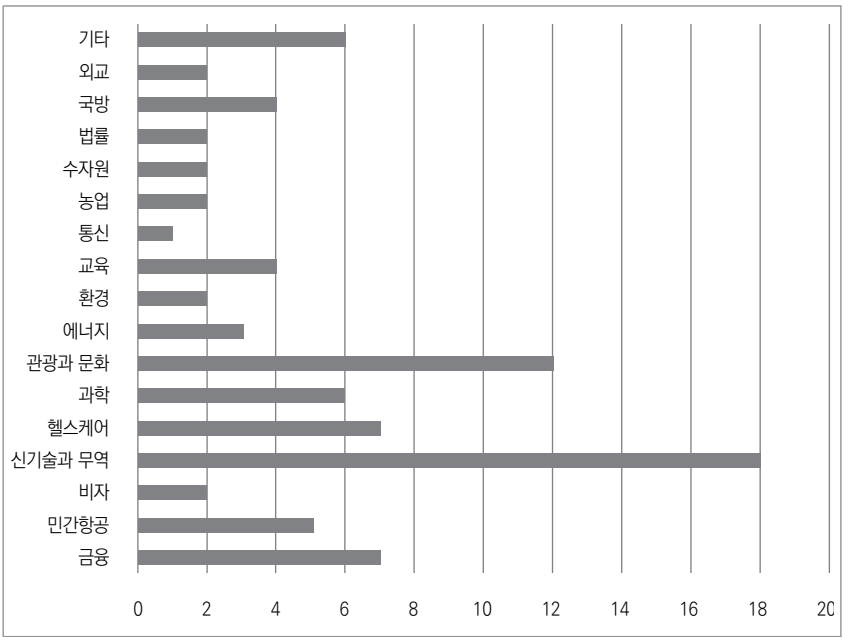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는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8월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약 1년 만에 양국간 교역량은 급증하였다. 이스라엘 통계중

115) Fakhro(2021. 6. 23), "Selling Normalization in the Gulf,"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116) Al Otaiba(2020. 8. 22), "Statements and Reactions regarding UAE-Israel Peace Acco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117) "Israel to open economic office in Abu Dhabi to boost Gulf investment"(2021. 6.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6).

앙국(CBS)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약 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이스라엘의 대UAE 수출은 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4배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모두 이스라엘에서 UAE로부터의 수입이 보고된 바가 없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만 약 2억 4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였다. 2021년 상반기 교역 총량은 약 3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2.9배 증가한 수치이다(표 4-2 참고). 이스라엘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우리나라(2020년 13위, 전체 교역 점유율 2.0%)와 이스라엘 간 동 기간 교역량이 약 17억 5천만 달러인 것과 비교하더라도 의미 있는 규모로 매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4-3. 이스라엘과 UAE 간 부문별 협력 진행 현황

(단위: 개)



주: 아브라함협정 이후 2021년 3월 현재까지 양국간 쌍무협정 및 합의, 협력 등의 횟수를 부문별로 정리함.
자료: Al Marzooqi, Sarwar, and Schenk(2021. 4. 14), "Israel-UAE Normalization: Poised for Economic Breakou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표 4-2. 아브라함협정 전후 이스라엘-UAE 간 교역량

(단위: 천 달러)

교역량	2019년	2020년	2021년 (1~6월)
이스라엘→UAE	228	55,457	120,161
이스라엘←UAE	0	0	236,852
합 계	228	55,457	357,013

자료: 이스라엘 중앙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4)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스라엘과 바레인은 2020년 10월 양국간 8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중 5개가 경제협력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및 교역, 항공, 정보통신, 농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공유하였다. 2020년 12월에는 추가로 기술협력, 혁신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 등에 대한 3개 협력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다. 바레인의 국부펀드인 뭄타라카트 지주회사(Mumtalakat Holding Company)는 2021년 3월 이스라엘의 국가경제위원장과 총리 경제보좌관 간 화상회의의 결과 양국 간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간에는 아직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협정 체결 이전까지 전무하였던 이스라엘-바레인 간 교역량이 2021년 상반기 동안만 30만 달러 수준을 기록하였다.

아브라함협정 체결 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전방위적인 협력 의제가 등장하였는데, 그중 핵심 협력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정보통신, 수자원 관리, 농업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분야 모두 이스라엘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산유국인 UAE와 바레인 모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산유국인 UAE와 바레인 모두 석유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UAE는 일찍이 2014년 발표한 'UAE 비전 2021'에서 7대 혁신 중점 부문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포함시켜 석유 및 비석유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7년에는 '에너지 전략 2050'을 통해 청정에너지 비중

을 절반까지 늘리고 발전과정의 탄소발자국을 70%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바레인도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1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태양광, 풍력, 폐기물발전(SRF)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기 위해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85%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발표하였다. 태양광 발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세계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나, 다른 재생에너지 도입에서는 뒤처져 있다고 평가받는다.[118]

이스라엘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7 글로벌 녹색기술혁신지수(Global Clean Tech Innovation Index)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119] 민간 녹색기술 잠재력(clean tech-specific drivers)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나, 공공부문 역량에서는 크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특허나 관련 벤처 캐피털 수준 등으로 측정한 신흥 녹색기술 혁신(emerging clean tech innovation) 부문에서는 2위를 보여 관련 스타트업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은 9위). 그러나 녹색기술 상품의 수출입과 재생에너지 소비량, 최종상업화 단계에서의 민간 투자, 관련 기업의 M&A와 IPO 등의 자료로 측정한 녹색기술 상업화(commercialized) 혁신 지수에서는 17위를 기록하였다(한국은 5위).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재생에너지 소비율이다.

현재까지 이스라엘-UAE, 이스라엘-바레인 간의 구체화된 에너지 부문 협력은 주로 이스라엘의 가스전 개발, 에너지 수송, 태양광 발전 부문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UAE와 바레인 모두 천연가스가 전력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 주변 국가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기에 최근 이스라엘의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UAE의 3대 국부펀드 중 하나인 무바달라 기금에서

118) 이스라엘 경제연구소 Paul Rivlin 박사 서면 인터뷰(2021. 7).
119) 참고로 한국은 동 지수에서 11위를 기록하였다. Sworder, Salge, and Van Soest(2017), p. 21.

이스라엘 타마르 가스전의 지분 22% 인수를 추진하였고, 최근 약 10억 달러로 인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의 석유를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 홍해 연안에서 지중해 연안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연장 건설 프로젝트는 아브라함 협정 체결 당시부터 핵심 이슈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많은 환경 단체들이 반대하여 2021년 7월 이스라엘 환경보호부(Environmental Protection Ministry)가 프로젝트를 불허하게 되었다. UAE의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스다르 시티 프로젝트는 2021년 1월 프랑스계 이스라엘 재생에너지 기업인 EDF Renewables Israel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것에 합의하였다. UAE가 이스라엘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1억 달러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EDF Renewable Israel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8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전량을 383메가와트에서 500메가와트로 증량하고자 최근 10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EDF는 태양광 발전 이외에도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과 농업 기술의 융합 부문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EDF는 UAE의 20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인 알 다프라(Al Dhafra)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으며, 두바이의 알막툼 태양광 발전소(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Solar Energy Park)의 800메가와트 규모 3단계 사업에도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이스라엘의 걸프-이스라엘 녹색 벤처(GIGV)와 UAE United Stars 그룹 사이에 녹색기술협력 사업이 합의되기도 하였다. 재생에너지 발전뿐만 아니라 수자원 재활용, 에너지효율화 등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21년 6월에는 수자원 공동연구기관을 설립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정보통신 산업 및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최대 벤처창업도시인 텔아비브는 2020년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였고, 구글(Duplex), IBM Project(Debater), 마이크로소프트(Azure Health Bot Project), 엔비디아, 인텔 등 세계 유수 글

로벌 기업의 인공지능(AI) 분야 R&D 센터 약 300개가량이 이스라엘에 소재하고 있다. 이 중 인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의 전자제품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글로벌 인텔의 매출 중 약 10%, 이스라엘 GDP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 협회(WIPO)가 발표하는 2021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이스라엘은 15위를 기록하였다(한국 5위). 그러나 혁신 생태계 및 벤처투자 부문을 평가하는 혁신 연계(linkages) 부분과 경제 규모 대비 특허협력협정(PCT) 출원특허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점유율은 11%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UAE는 이미 국가적 과제로 스마트시티 건설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육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UAE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정보통신 분야에서 시장 잠재성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120] UAE는 이스라엘의 기술 집약적 산업 구조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최근 국가 디지털 전환 계획인 '디지털 이스라엘'을 발표하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의 적용(adoption) 및 상업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UAE의 투자 협력은 매력적인 기회이다.[121] UAE는 이스라엘의 제조업, 수자원, 우주기술, 녹색에너지, 보건, 농업기술 등에 투자하기 위한 1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UAE와 같은 아랍 왕정국가들은 역내 갈등으로 인해 잠재적인 공격에 대한 위기 관리에 필요한 보안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스라엘은 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UAE와 이스라엘은 무기 관련 협력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양국은 아브라함협정 직후부터 사이버 보안 기술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122] 협정 이전에는 어려웠던 이스라엘

120) Fitch Solutions(2021).

121)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 지수의 ICT 적용 부문에서 UAE는 2위를 기록하였다(한국은 동 부문 1위). 디지털 법체계 구축 부문에서는 UAE가 4위를 기록하였다. World Economic Forum(2020).

122) "UAE, Israeli cyber chiefs discuss joining forces to combat common threats"(2020. 9.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6).

의 전략 산업에 대한 UAE의 투자 움직임도 활발하다.[123] 이밖에도 방위 산업,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에서 더 많은 양국간 협력이 예상된다.

농업 분야도 협력이 유망한 분야이다.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가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UAE, 바레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환경이다. 2021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기후변화, 수자원 및 토지, 해양 자원 이용, 식량 수입 등 외부 의존도, 인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연환경 및 유연성(resilience) 지표에서 세 나라 모두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이스라엘 60위, UAE 88위, 바레인 107위).[1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부족한 농토와 수자원, 건조한 기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수행하여 세계적인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실내 재배, 종자 개발, 점적 관개(drip irrigation), 수처리 등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2021년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UAE가 113개국 중 35위, 바레인이 43위를 차지한 반면 이스라엘은 12위에 올랐다. 국가식량안보전략을 세우고 2030년 세계식량안보지수 1위를 목표로 하는 UAE에게 이스라엘은 유력한 협력 파트너이다.

아브라함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직항편이 개설되면서 반 년만에 13만 명의 이스라엘 여행객과 투자자가 UAE를 방문하였다.[125] UAE에서도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거나 비즈니스를 위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UAE-이스라엘 경제협력은 불과 1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성공한 아랍국가와 가장 성공한 비(非)아랍국가 간의 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126]

---

123) Soliman(2021. 5. 11), "How tech is cementing the UAE-Israel alli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124) Economist Group(2021).
125) "Jumping Jehoshaphat! Have You Seen How Many Israelis Just Visited the U.A.E.?"(2021. 3.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3).
126) *Ibid.*

3. 이스라엘-UAE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교역 효과 분석

본 절에서는 아브라함협정의 핵심 당사국이자 중동 지역의 주요 경제권인 UAE와 이스라엘 간의 전면적 경제협력을 가정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겠다.[127]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 6월 양국간 외무장관 회담에서 언급되었던 UAE-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경우[128] 예상할 수 있는 교역 효과를 부분균형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무역 정책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은 일반균형분석(general equilibrium analysis)과 부분균형분석(partial equilibrium analysis)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균형분석이 국제 교역 시장에서 국가간 혹은 산업 간 연관관계를 모두 반영하여 당사국을 비롯한 세계 전체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부분균형분석은 특정 시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효과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즉각적 변화를 미시적으로 살펴본다. 시뮬레이션에 기초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따지기 어려운 일반균형분석과 달리 부분균형분석은 일반적인 통계적 유의성 검증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형이 방대하다보니 세부 산업이나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어려운 일반균형분석에 비해 부분균형분석은 특정 시장에서 구체적인 상품의 가격이나 거래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어 품목별 교역량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데 좀 더 적절하다. 다만 기존의 경제적 행태를 반영하는 내수-수입 상품 간 대체탄력성 등의 모수들이 기존의 값을 유지한다는 다소 강한 가정 때문에, 추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

127) 다른 협정 체결 대상국인 바레인과 이스라엘의 경우 협정 체결 이전에 교역 관계가 사실상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경제협력도 UAE-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에 비해 규모가 작아 본 절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28) "Israel, UAE talk about Free Trade Agreement"(2021. 6. 3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23).

본 절에서는 UAE-이스라엘 간 FTA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보다는 구체적인 산업 혹은 상품 단위에서 교역량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에 대한 산업 및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그 목적에 맞게 부분균형분석 방법론을 채택한다. 분석 모형으로는 국제무역 모형 및 정책 연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SMART 모형을 사용한다. SMART 모형은 세계은행(WB), 국제연합 무역개발위원회(UNCTAD), 국제연합 통계위원회(UNS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무역센터(ITC)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WITS(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에서 제공하는 부분균형분석 모형이다. 수출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시장가격을 그대로 간주(price-taking)하는 소규모개방경제 가정을 따르며, 수입수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상품 간 혹은 내수-수입 상품 간의 완전한 수요대체가 불가능하며 대체탄력성은 일정한 탄력성 값인 Armington 탄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SMART 모형에서는 관세 등의 변화에 따른 수출(수입) 가격변화가 내수 및 수입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가격효과, 이에 따른 관세수입이나 소비자 후생의 변화 등을 추정한다.

UAE-이스라엘 FTA의 체결에 따라 양국간 교역에서 관세가 전면 철폐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겠다. 분석대상 자료는 WITS에 등록되어 있는 UN Comtrade 교역 자료를 기초로 한다. 2021년 8월 현재 WITS에는 2019년 교역량까지 등록되어 있으나 양국간 교역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2013년 이후로는 양국간 교역량이나 품목의 수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2013년을 기준으로 UAE와 이스라엘의 국가 및 품목별 수입량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SMART 모형의 구동에 필요한 탄력성 모수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준용하여 상품 간 대체탄력성은 1.5, 수출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소규모개방경제 가정에 따라 99(무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간 가상의 FTA에 따른 전면적인 관세 철폐로 인해 UAE의 대이스라엘 수입은 약 173% 증가하고, 이 중 기존 내수 수요가 수입 수요로 바뀌는 무역창출효과는 약 180만 달러이며, 기존에 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던 수요가 FTA로 인해 양국간 교역 수요로 바뀌는 무역전환효과는 약 130만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교역량이 크지 않고 단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는 부분균형분석 모형의 결과이기 때문에 전체 교역량의 양적 확대에 대해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과 경합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과 경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상위 품목에 대해 GCC 시장 내 우리 상품의 점유율과 우리나라의 대GCC 총수출 중 해당 품목의 점유율을 비교해보았다. [표 4-3]과 [표 4-4]에 수록된 것처럼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나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 우리나라의 GCC 시장 점유율도 비교적 높고 수출금액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부분균형분석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단기에 걸쳐 GCC 시장에서 이스라엘산 제품과 우리나라의 수출 간 경합 노출 수준을 확인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GCC 수출 중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기준 상위 20개 품목에서 경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액은 2019년 기준 최대 약 6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GCC 총수출액의 약 6%가량이다. 다소 적지 않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GCC 수출이 극단적으로 시장을 압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피해액으로 본다면 전체 대GCC 수출 중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5장에서 GCC 시장 내 이스라엘 상품과 우리 상품의 경합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다.

이스라엘의 대UAE 수입은 약 18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총 무역창출효과는 약 340만 달러, 총 무역전환효과는 약 380만 달러로 예상된다. e 다음의 표는 구체적으로 양국간 교역에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20개 품목을 소개한다. 우선 이스라엘의 대UAE 수입은 밀 등

곡류, UAE의 대표 수출품인 알루미늄 관련 제품, 가전기기, 자동차 관련 부품, 발전관련 부품 등으로 구성되며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곡류 등 농산물에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모두 가장 크게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수출과 의미있는 수준에서 경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냉장고 · 냉동고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UAE의 무역창출효과 및 무역전환효과 상위 20개 품목에서 경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출액은 2019년 기준 최대 약 3,3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총수출의 약 2%가량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FTA를 합의하고 비준 및 발효 절차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UAE산 상품은 최소한 부분균형분석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단기에서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UAE의 대이스라엘 수입 중 무역창출 효과 상위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6 코드	품목명	평균수입	무역창출 효과	무역창출 효과비중	GCC 내 한국 상품 순위	한국의 대GCC 수출 중 비중
1	710239	다이아몬드(기타)	15039.0	1660.5	11.0%	32	0.0%
2	852872	텔레비전수신용기기(기타)	1905.0	47.1	2.5%	4	1.7%
3	852871	텔레비전수신용기기(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1215.0	29.8	2.5%	5	0.0%
4	901890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그 밖의 기기)	493.0	20.2	4.1%	12	0.2%
5	720449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기타)	367.0	10.5	2.9%	20	0.0%
6	848180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기타)	161.0	9.0	5.6%	7	0.9%
7	40111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승용자동차용)	65.0	2.8	4.2%	3	2.6%
8	844590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 합사기 · 연사기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기타)	21.0	2.6	12.3%	16	0.0%
9	730719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기타)	94.0	2.4	2.6%	16	0.0%
10	901819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기타)	72.0	2.2	3.1%	12	0.0%
11	902219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그 밖의 용도의 것)	33.0	1.8	5.6%	23	0.0%
12	060290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 포함) · 꺾꽂이용 가지 ·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기타)	23.0	1.5	6.7%	39	0.0%
13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2.0	0.9	1.5%	-	-
14	910119	손목시계(기타)	9.0	0.8	8.6%	32	0.0%
15	621590	넥타이류	11.0	0.6	5.1%	10	0.0%
16	270300	토탄	6.0	0.3	5.2%	-	-
17	842481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	8.0	0.2	3.0%	10	0.0%
18	860691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덮개가 있는 것)	7.0	0.2	3.0%	-	-
19	940490	매트리스서포트(기타)	5.0	0.2	3.9%	28	0.0%
20	854449	종이 절연전선	10.0	0.2	1.8%	7	0.4%

자료: SMAR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4. UAE의 대이스라엘 수입 중 무역전환 효과 상위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6 코드	품목명	평균수입	무역전환 효과	무역전환 효과비중	GCC 내 한국 상품 순위	한국의 대GCC 수출 중 비중
1	710239	다이아몬드(기타)	15039.0	1072.5	18.20%	32	0.0%
2	852872	텔레비전수신용기기(기타)	1905.0	69.6	6.1%	4	1.7%
3	852871	텔레비전수신용기기(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1215.0	44.2	6.1%	5	0.0%
4	901890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 수의과용 기기(그 밖의 기기)	493.0	35.1	11.2%	12	0.2%
5	720449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기타)	367.0	25.8	9.9%	20	0.0%
6	848180	파이프 · 보일러 동체 · 탱크 ·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 · 코크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기타)	161.0	11.5	12.8%	7	0.9%
7	730719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기타)	94.0	6.7	9.7%	16	0.0%
8	901819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기타)	72.0	5.1	10.2%	12	0.0%
9	401110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승용자동차용)	65.0	4.6	11.4%	3	2.6%
10	72041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62.0	4.4	8.6%	-	-
11	902219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그 밖의 용도의 것)	33.0	2.4	12.7%	23	0.0%
12	060290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 포함) · 꺾꽂이용 가지 · 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기타)	23.0	1.6	13.9%	39	0.0%
13	844590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 합사기 · 연사기와 그 밖의 방직사 제조기계, 권사기(기타)	21.0	1.5	19.3%	16	0.0%
14	621590	넥타이류	11.0	0.8	12.1%	10	0.0%
15	910119	손목시계(기타)	9.0	0.6	15.7%	32	0.0%
16	842481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	8.0	0.6	10.1%	10	0.0%
17	270300	토탄	6.0	0.4	12.4%	-	-
18	854449	종이 절연전선	10.0	0.4	5.9%	7	0.4%
19	940490	매트리스서포트(기타)	5.0	0.4	11.0%	28	0.0%
20	321590	인쇄용 잉크 · 필기용 잉크 · 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기타)	3.0	0.2	9.1%	9	0.0%

자료: SMAR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5. 이스라엘의 대UAE 수입 중 무역창출 효과 상위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6 코드	품목명	평균수입	무역창출 효과	무역창출 효과비중	이스라엘 내 한국 상품 순위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 중 비중
1	100199	밀과 메슬린(기타)	3812	2599.4	68.2%	-	-
2	100119	밀(기타)	3167	532.5	16.8%	-	-
3	760421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617	122.4	19.8%	21	0.0%
4	841810	냉장고 · 냉동고	380	52.2	13.7%	4	0.8%
5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 채소즙 추출기	310	18.3	5.9%	10	0.0%
6	760429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544	13.4	2.5%	24	0.0%
7	340111	비누(화장용)	96	5.4	5.7%	31	0.0%
8	691010	세면대	97	6.4	6.6%	30	0.0%
9	85371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전압 1000V 이하)	22	0.8	3.5%	14	0.2%
10	870830	자동차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7	0.7	4.1%	3	0.4%
11	870810	자동차 완충기와 그 부분품	12	0.5	4.0%	4	0.1%
12	870829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기타)	14	1.0	7.0%	8	0.2%
13	852290	음성 · 영상기록용기기 부분품(기타)	12	0.3	2.4%	16	0.0%
14	940360	목제가구(기타)	4	0.4	9.8%	51	0.0%
15	853661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램프홀더)	4	0.2	4.0%	28	0.0%
16	851220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8	0.2	2.8%	6	0.1%
17	621710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분품	4	0.1	3.6%	35	0.0%
18	851690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부분품)	3	0.1	4.1%	24	0.0%
19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기타)	3	0.2	6.2%	17	0.1%
20	847290	그 밖의 사무용 기계	2	0.1	7.5%	8	0.0%

자료: SMAR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4-6. 이스라엘의 대UAE 수입 중 무역전환 효과 상위품목

(단위: 천 달러)

순위	HS6 코드	품목명	평균수입	무역전환 효과	무역전환 효과비중	이스라엘 내 한국 상품 순위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 중 비중
1	100199	밀과 메슬린(기타)	3812	1876.9	49.2%	-	-
2	100119	밀(기타)	3167	1642.9	51.9%	-	-
3	760421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617	68.0	11.0%	21	0.0%
4	841810	냉장고 · 냉동고	380	62.2	16.4%	4	0.8%
5	85094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 채소즙 추출기	310	26.6	8.6%	10	0.0%
6	760429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	544	22.2	4.1%	24	0.0%
7	691010	세면대	97	10.2	10.5%	30	0.0%
8	340111	비누(화장용)	96	15.7	16.4%	31	0.0%
9	870829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기타)	14	0.8	5.8%	8	0.2%
10	853710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전압 1000V 이하)	22	1.3	5.9%	14	0.2%
11	870830	자동차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7	1.2	7.3%	3	0.4%
12	870810	자동차 완충기와 그 부분품	12	0.8	7.0%	4	0.1%
13	940360	목제가구(기타)	4	0.7	16.8%	51	0.0%
14	852290	음성 · 영상기록용기기 부분품(기타)	12	0.7	5.7%	16	0.0%
15	851220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	8	0.4	4.4%	6	0.1%
16	39269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기타)	3	0.3	8.4%	17	0.1%
17	853661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램프홀더)	4	0.7	16.6%	28	0.0%
18	847290	그 밖의 사무용 기계	2	0.2	12.1%	8	0.0%
19	621710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분품	4	0.3	8.6%	35	0.0%
20	851690	전기식의 즉시식 ·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부분품)	3	0.3	8.7%	24	0.0%

자료: SMART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제5장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의 한-중동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1.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GCC 수출 경합도 분석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전개에 대한 전망과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1. 이스라엘과 한국의 대GCC 수출 경합도 분석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협정을 계기로 아랍-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가 공고화된다면 한-중동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장에서 UAE-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시나리오에 따라 양국의 교역 확대 효과와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품과 경합할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스라엘의 GCC시장 진출 본격화가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에 미칠 수 있는 효과를 예상하고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수출 상품 간의 수출 경합도와 GCC 시장 내에서의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겠다.

아브라함협정 이후 아랍 왕정국가들과 이스라엘 사이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중동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이스라엘 기업과의 경쟁 속에 잠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129] 실제 이스라엘이 독특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투자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30] 이스라엘은 보건의료, 군사, 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 농업 및 환경,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혁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R&D, 제조업, 하이테크, 고등교육, 연구인력, 특허 등의 영역에서 국가별 혁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해당 지수가 발표된 2013년 이후 9년 동안 2013년 미국, 2020년 독일이 1위를 차지한 2회를 제외하면 7

129) 「[글로컬 오디세이] 중동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 대 한국」(2021. 7. 1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

130) OECD Data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GDP 대비 R&D 투자액에서 전 세계 1위(2018년 기준 4.94%)를, 우리나라(4.64%)가 2위를 기록하였다. OECD(2021),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

회나 1위를 차지하였다.[131] 최근 발표된 2021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이스라엘은 7위를 기록하였다.[132]

이를 보면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원천기술에서 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제품의 상용화가 핵심인 제조업 역량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2019년 HS코드 6단위 기준 수출액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을 총 13개 보유하고 있다. 이를 5위 이내 상품으로 확대하면 약 68개 품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57개, 5위 이내 품목이 558개이다. 이 558개 품목 중 이스라엘이 시장 점유율 5위 이내에서 경합하는 품목은 전무하다.

본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GCC 시장 혹은 전체 MENA(중동 및 북아프리카) 시장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우리 제품과 경합할 가능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고 향후 GCC 시장에서 양국의 경쟁 형태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혁신 역량의 비교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특허 자료를 통해 양국의 제조업 내 기술 경합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과 양국간 수출 경합도의 추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GCC 시장에서 양국의 수출 경합 가능성을 전망하겠다. 다음 절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브라함협정 이후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구도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이나 국가의 기술혁신을 평가할 때 상호 비교 가능한 양적 지표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기술 수백 가지를 개발할 때보다 더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설령 양적 지표가 있더라도 혁신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를 함께 평가하지 않는다면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과학기

131) Bloomberg(검색일: 2021. 9. 1).
132) *Ibid.*

술혁신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 혹은 기업 단위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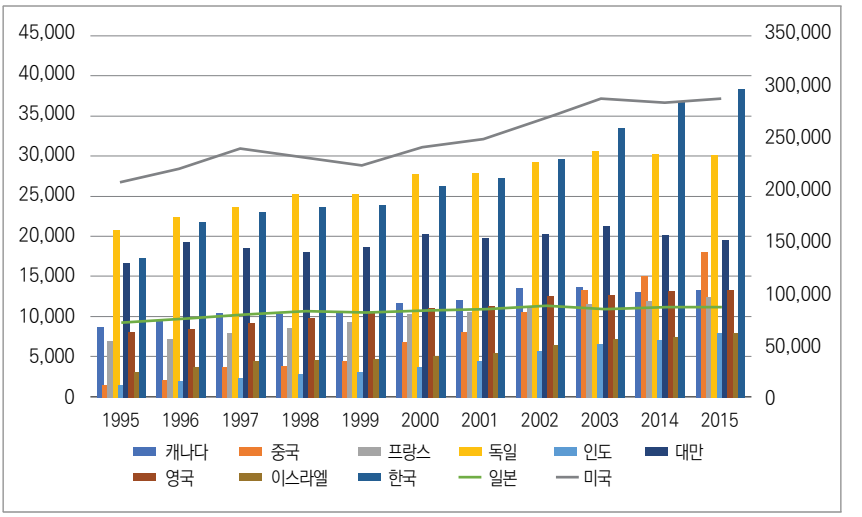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자료는 많은 경제학 연구에서 질적 수월성을 보장하는 양적 지표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Griliches 1990). 그동안 국가간 특허 체계를 통합하거나 융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법적 · 제도적 문제, 언어나 문화적 차이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가 고유의 특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133]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에서 사용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하는 미국 특허는 세계적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권이다. 미국의 연구 역량 및 투자 규모는 다른 어떤 나라도 압도하고 있고 특허를 이용한 실용화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특허는 연구 역량을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미국 일반특허 중 소위 발명특허(patents for inventions)라고 불리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s)는 상품으로 실용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허 분류이다. 실용특허 자료의 경우 2015년까지 공개되어 있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실용특허 신청자 중 제1신청자의 국적 혹은 영주권을 기준으로 특허의 출처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5-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특허 수가 많으며 이스라엘은 2015년 기준 1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대만, 독일의 특허 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정체하는 반면 한국,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특허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구인력당 특허 수로 보았을 때 한국은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133) Kimura(2021. 5. 6),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Patent Harmonization": Part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그림 5-1. 주요국의 미국 실용특허 출원 추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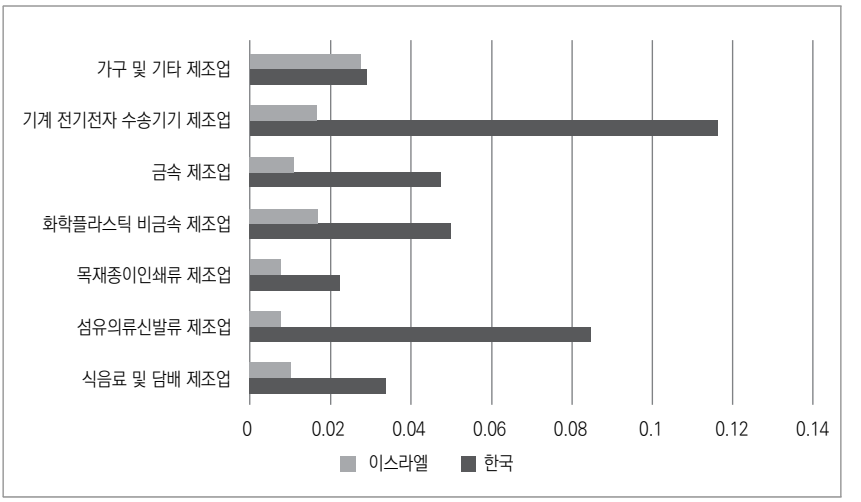


주: 특허신청자 중 제1신청자의 국적/영주권을 기준으로 구분.
자료: USPTO(2021), "Number of Utility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By Country of Origin, Calendar Years 1965 to Present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실용특허는 실제 산업 연관성이 높아 제조업 내 산업분류(NAISC)를 기준으로 특허의 용도를 분류할 수 있다. [그림 5-2]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승인이 된 미국 실용특허 중 한국과 이스라엘이 출원한 특허를 제조업 내 세부 산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 및 기타제조업을 제외하면 거의 전 분야에서 한국의 특허 취득 수가 이스라엘에 비해 3~10배가량 많다. 최근 제조업 수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계·전기·전자·수송기기 제조업에서는 전체 외국인 출원 미국 실용특허 중 약 12%를 한국인이 출원하여 이스라엘에 비해 7배 많은 특허 수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 제조업 부문 미국 실용특허 비중(2008~12년 누적)

(단위: %)



자료: USPTO(2021), "Number of Utility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By Country of Origin, Calendar Years 1965 to Present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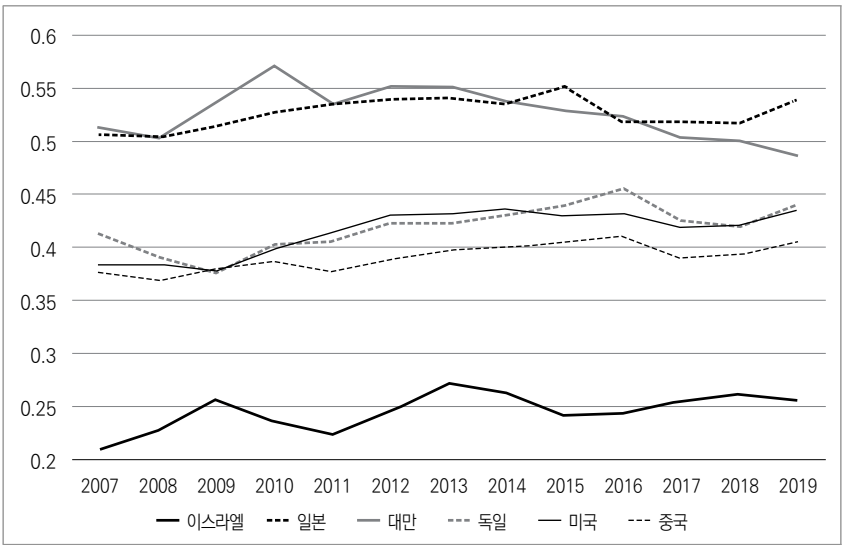
이번에는 양국의 수출 상품 구성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수출 간의 경쟁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의 하나로 Finger and Kreinin(1979)이 개발한 수출 경합도(ESI: Export Similarity Index)를 활용하겠다.

$$ESI_{a,b,c} = \sum_j \min\left[\frac{EX^{j_{a,c}}}{\sum_j EX^{j_{a,c}}}, \frac{EX^{j_{b,c}}}{\sum_j EX^{j_{b,c}}}\right]$$

ESI는 두 수출국 a와 b가 수입국 c로 보내는 수출 간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지수이다. 수출국 a가 수입국 c로 보내는 상품 j 수출($EX^{j_{a,c}}$)이 수출국 a가 수입국 c로 보내는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을, 수출국 b가 수입국 c로 보내는 상품 j 수출($EX^{j}_{b,c}$)이 수출국 b가 수입국 c로 보내는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하는 개념이다. 수출국 a와 b가 수입국 c로 보내는 수출 구성이 정확히 같다면 ESI가 1의 값을 가지며, 수입국 c의 시장에서 양 수출국 a와 b가 전

혀 경합이 없어서 서로 점유하고 있는 상품이 다르다면 ESI는 0이 된다. c가 수입하는 전체 상품군에서 양국 a와 b의 상품 수출 비중이 비슷한 상품이 많을수록 ESI가 높아진다. 우선 세계 시장에서 ESI를 한국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한국과 가장 수출 경합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이다. 201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ESI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다. 또한 중국과 함께 독일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2019년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 경합도는 일본이 0.54, 대만이 0.49, 독일과 미국이 0.44를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은 0.25가량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5-3 참고).

그림 5-3.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 경합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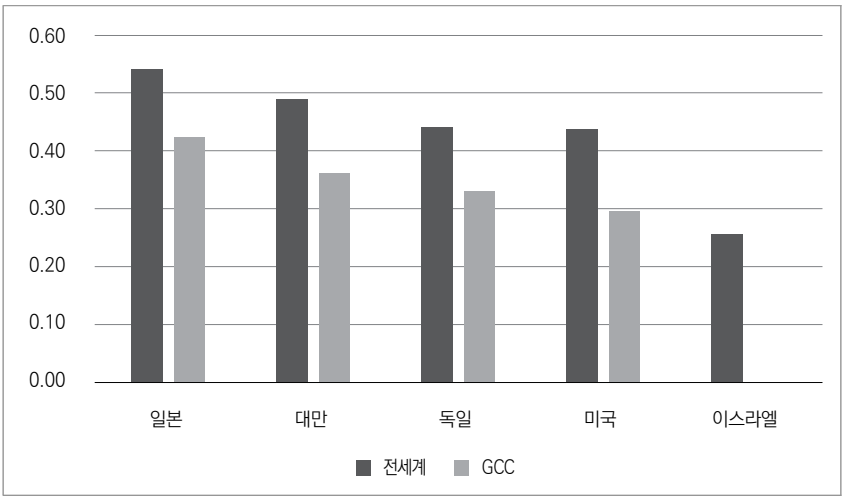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1. 9. 1)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대표적인 국가들이 모두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 경합도에 비해 GCC 시장에서 수출 경합도가 일괄적으로 낮게 나왔다(그림 5-4 참고). 이는 한국이 GCC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

면 이스라엘의 경우 최근 아브라함협정에 따라 일부 GCC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재개하기 전까지 GCC 시장으로 수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GCC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거의 0으로 나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4. 한국과 주요국의 수출 경합도 비교



자료: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1. 9. 1)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일본, 대만, 독일, 미국 등 제조업 기반이 튼튼한 수출국의 경우 GCC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 경합도가 0.1~0.15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이스라엘의 대GCC 시장 점유율 혹은 한국과 수출 경합도는 0.13가량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로 GCC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는 국가들은 주로 전자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들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국이 GCC 시장에 완제품 중심의 수출 구성을 유지하다 보니 이러한 동유럽 오프쇼링(offshoring) 국가들과 유사한 수출 구성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GCC 시장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수출 경합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이스라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이스라엘 수출품목이 주로 완제품인 자동차, 컬러TV 등인 반면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부품, 무선통신기기 부품 등 중간재 위주라 양국간 무역 구조가 상당히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보려고 한다. 그간 이스라엘산 제품의 GCC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던 것이 정치·사회적 문제였다면 앞으로 아브라함협정의 결과가 공고해질수록 이스라엘의 GCC 시장 내 성과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생산 혹은 수출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수출 역량이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구현된다고 본다면 수출 시장 점유율은 각 수출국의 생산 역량과 혁신 역량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상품 중 전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상품들은 이스라엘보다 약 4배가량 더 많다. 2019년 기준 한국 상품 중 GCC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 수는 70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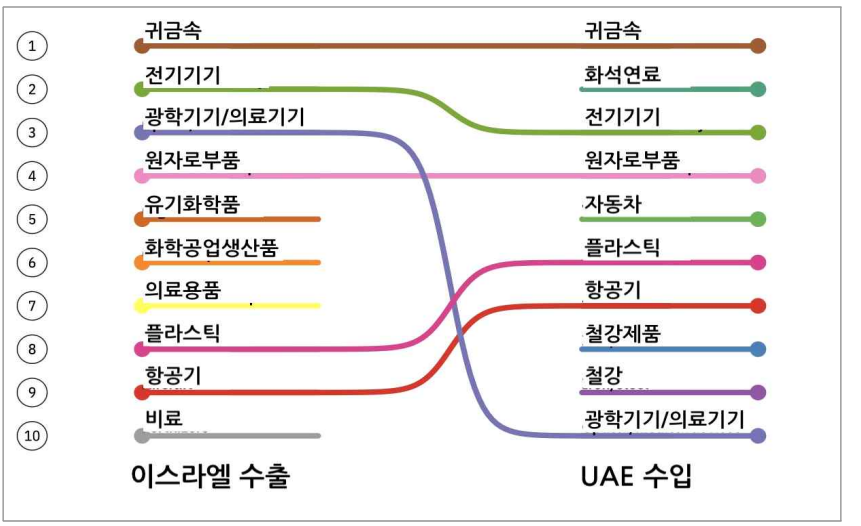
GCC 시장에서 경합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GCC 최대 시장이자 이스라엘과 최근 관계 정상화를 진행하는 UAE를 비롯한 GCC 시장의 수입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5-5]와 [그림 5-6]은 UAE와 이스라엘의 10대 수출입상품을 비교하고 있다. HS2 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10대 품목 중 5개 품목의 수출과 6개 품목의 수입(UAE 기준)이 서로 대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134]

134) De Hoog(2021).

그림 5-5. UAE의 10대 수출품과 이스라엘의 10대 수입품

주: 2019년 UN Comtrade Database 자료 기준.
자료: "UAE and Israel take first FDI steps together"(2021. 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0).

그림 5-6. UAE의 10대 수입품과 이스라엘의 10대 수출품



주: 2019년 UN Comtrade Database 자료 기준.
자료: "UAE and Israel take first FDI steps together"(2021. 1. 2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30).

다만 이 모습은 상품 분류를 좀 더 세분화할수록 매칭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세부 품목에서 수출 경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국의 전 세계 수출 및 수입량에 따라 매겨진 순위와 대GCC 수출 혹은 수입량에 따라 매겨진 순위를 비교해보았다.[135] 지리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많은 요인 때문에 상대적으로 GCC 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점유율 순위가 높거나 낮다면 이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CC로 수출하는 HS6단위 기준 품목 120개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와 GCC 시장에서 점유율 순위를 비교하였을 때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가 0.8가량 더 낮게 나왔다. 즉, GCC 시장이 우리 기업에 대해 다른 시장보다 좀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GCC 시장 내 점유율 순위에서 약 한 단계 정도의 프리미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세계 시장 점유율 순위가 평균 17.8단계나 높았다. 이는 전체 국가 중 가장 큰 순위 격차였다. 향후 중동 지역의 관계 개선이 공고화되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수출 디스카운트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전개에 대한 전망과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가.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에 대한 전망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팔레스타인 문제로 관계를 단절했던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당분간 화해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아브라함협정을 적극 계승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추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135) UN Comtrade Database(검색일: 2021. 9. 1) 교역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분석한 결과.

정상화할 가능성이 큰 국가로는 오만이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아랍-이스라엘 화해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중동 외교는 경제협력에 큰 도움을 줄 것이므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이란과의 핵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과 미국의 새로운 대중동 정책도 역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터키와 카타르는 바이든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주변국과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다. 터키는 동지중해 가스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이스라엘 및 이집트와 관계 회복에 나서고 있고, 리비아 내전에서 대립했던 UAE와도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제 제재가 풀리자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펼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서방과 탈레반 간 대화 채널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제2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랍-이스라엘 데탕트는 확실히 역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는 없다'라는 아랍국가의 오래된 금기가 무너지면서 정치적인 화해는 물론, 공식적인 경제협력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를 막고 있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쿠웨이트를 포함한 다른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추가적인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주된 이유는 여전히 팔레스타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면 추가적인 아랍-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

안보환경 관점에서 주요 변화는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중심의 순니 세력과 이란 중심의 시아파 세력(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시아파 민병대와 예멘의 후시 반군) 간 역내 대결 구도에 이스라엘이 순니 세력으로 편입되면서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결국 UAE-사우디아라비

아-이스라엘 간 전략적 연대는 더 가속화되고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관광과 다른 분야까지 더 확대될 것이다. 여기에 최근 UAE 및 이집트와 관계 개선에 나선 터키까지 순니 진영에 가세하면서 이란의 고립이 심화해 진영 간의 갈등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외교정책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도움으로 민수용 원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UAE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또 아프가니스탄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의 안보협력에 나설 모양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8월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만큼 대미 관계에 손상이 없는 범위 내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외교 다변화 정책은 대미 관계에 잠재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이후 터키의 외교정책 변화의 핵심은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이다. 이는 냉각된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 회복은 양국간 외교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기보다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차례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카타르 외교 · 안보 정책의 당면과제는 탈레반과의 우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카에다와 IS-호라산의 득세를 차단하고 안정화에 성공하는 것이다. 만약 카타르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중재와 협상자 역할을 자처해온 만큼 역내 영향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바레인은 이스라엘과의 군사 · 안보협력은 물론 경제협력 확대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결과도 역내 정세변화에 매우 중대한 변수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현재 핵협상 재개 소식이 들리고 있다. 만약 이란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역내 긴장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이란이 계속 미국의 협상 제안을 거부한다면 역내 긴장

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말 미국을 방문한 나프탈리 베넷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협상 노력이 실패한다면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베넷 총리는 또 이란 핵시설 타격 준비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혀 우려감을 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한다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게 변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란 핵협상은 타결과 실패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상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역내 긴장감이 해소되는 만큼 경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핵협상이 실패한다면 이란과 미국의 긴장 관계는 유지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대이란 사보타지가 재개될 경우 정세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강경책으로 돌아서면 역내 긴장감이 높아져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아브라함협정은 미국의 새로운 대중동 정책이라는 바탕 속에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반이란 공동전선, 아랍 산유국의 포스트오일 시대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탄생한 결과물이다. 제4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스라엘-아랍 경제협력은 이스라엘-UAE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수요는 협정 당사국인 바레인은 물론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 수단 등 GCC 국가를 넘어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UAE 간 경제협력은 전반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 회복은 물론, 양국의 핵심 관심 분야인 에너지, 정보통신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이 기술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보건의료, 농업, 사이버 보안, 방위 산업, 우주 등 다양한 부문에서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CC 시장에서 UAE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GCC 간 경제협력 또한 비슷

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로 이스라엘의 대GCC 수출의 확대와 GCC 국가의 대이스라엘 투자 확대의 형태가 주가 되고, 에너지 부문에서 상호 수출입의 확대로 역내 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UAE 간 교역 확대 효과나 이스라엘과 한국 간 대GCC 수출 경합도 분석 결과 이스라엘의 대GCC 수출 확대가 한국의 대GCC 수출을 잠식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스라엘-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의 확대가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언

앞 절에서 확인한바, 역내 경제협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GCC 수출 확대가 오히려 중동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아랍-이스라엘 간 관계 변화에 따른 한-중동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한-이스라엘 FTA 활용을 통한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 나아가 한-이스라엘-UAE 간 3각 경제협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중동지역 현지 수출 및 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

아랍-이스라엘 외교 관계 변화는 필연적으로 역내 경제의 통합을 강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내 경제 통합이 강조될수록 시장에서 역외 국가가 상대적으로 배제되거나 역내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면서 역내 국가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조업 수출 역량이 탄탄한 이스라엘의 대중동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문의 분석 결과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품과 한국의 대중동 주요 수출품 간의 경합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중동의 GCC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 통합의 시도가 계속 있었으나 사실상 단일 시장 출범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1월 GCC 국가간 "연대와 안정(solidarity and stability)" 합의로 대카타르 경제봉쇄가 약 3년 반 만에 끝났지만, 여전히 GCC라는 경제공동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136] 2019년 기준 GCC 역내 교역 비중은 10%에 불과하며 이는 2008년 GCC 공동시장협정(common market agreement) 체결 시점과 큰 차이가 없다. 역내 산유국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였지만 지역 단위의 공급망은 전혀 구축되지 못하였다. UA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물류망을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의 역내 시장 진입은 역내 가치사슬이 구축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역내 공급망의 구축은 중동 지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랍-이스라엘 관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여러 복잡한 지정학적 요소의 해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UAE-이스라엘 경제협력 등 새로운 변화에도 앞으로 상당한 부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이를 예상하고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 정부 차원에서 중동 지역 정세나 경제협력에 대해 조사 · 전망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역내 시장에서 이스라엘과 경합하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역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와 역내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의 새로운 역내 가치사슬 형성 과정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136) "Qatar-GCC agreement: A victory for measured diplomacy"(2021. 1.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6. 1).

2) 한-이스라엘 FTA의 활용과 확대

한-GCC FTA 협상이 2009년 이후 중단된 상황에서 2021년 5월 한국과 이스라엘이 양국간 FTA에 합의 · 서명하면서 한-이스라엘 FTA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가 될 것이다. 한-이스라엘 FTA는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다른 FTA에서 다루지 않는 기술협력, 스타트업 협력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다. 우선, 한-이스라엘 FTA는 발효 후 10년 이내에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는 양국간 완전한 무역 자유화를 담고 있다. 양국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9.8%, 이스라엘은 100%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게 된다. 서비스 부문은 기본적으로 네거티브형 개방을 합의하고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으로 양국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 양국은 기존 투자협정의 보호 수준을 넘어 법인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게 된다.

특히 한-이스라엘 FTA는 제17장 '경제협력' 챕터에서 협력 분야로 우주항공,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가상 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기술 및 생명 공학, 농업과 식량,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에 중점을 두고 기초연구, 시험제품, 실제 응용과 상업화 단계를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경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유, 창업 지원 기관 간 모범 사례 교환,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및 합작 투자 자금을 통해 신생 기업 간 합작 투자 창출 지원, 회계, 세금 및 인적 자본과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벤처기업의 지사 설립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포럼, 세미나, 콘퍼런스, 박람회 및 스타트업 관련 이벤트의 공동 호스팅 등 스타트업 및 벤처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창업 분야 협력 부속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기술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 이를 위해 2001년 설립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KOR-IL RDF)을 연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2배 증액하여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국가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이스라엘의 대중동 시장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이스라엘을 거점으로 중동 시장에 수출하는 경로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한-이스라엘 FTA가 교역 외에도 투자, 기술협력, 벤처 창업 협력 등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수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지 투자나 합작 등을 통해 이스라엘 내에 거점을 두고 중동 역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FTA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향후 이스라엘이 UAE 등 아랍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이스라엘 FTA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3) 한-UAE-이스라엘 3각 경제협력 수요 발굴

한-이스라엘 FTA를 활용하여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좀 더 발전시켜 한-UAE, 한-이스라엘 경제협력을 묶어 한-UAE-이스라엘 3각 경제협력을 모색해볼 수 있겠다. UAE는 우리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 국방, 경제 등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는 중동 지역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중동 국가로서 탄탄한 경제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안정적인 한-UAE, 한-이스라엘 간 양자 경제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이를 3자간 관계로 확대할 수 있다. 특히 3국이 각자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가 명확하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에서 이 방안은 현실적이다.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기술 상용화가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을 가진 이스라엘, 세계적인 상용화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자금력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기술을 습득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UAE의 경제적 동기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므로 서로 매우 다른 경제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 의제를

찾아가는 것이 한-UAE-이스라엘 3각 협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이러한 아이디어에 공감하며 3국간 소위 녹색기술연합(green technology alliance)을 제안한 바 있다.[137] 한-이스라엘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는 한-이스라엘 FTA에서 합의한 것처럼 우주항공,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가상 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기술 및 생명 공학, 농업과 식량,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협력이다. 이 분야는 UAE가 국가비전 2021에서 7대 혁신 분야로 정한 바와 거의 일치한다. UAE와 이스라엘 간에도 이러한 미래 산업 기술에 대한 협력이 주요 경제협력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한-UAE 간 에너지, 국방, 농업, 물류 부문 등의 협력 또한 이스라엘이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디지털 부문의 수용성과 법체계 구축 수준이 높은 UAE가 최근 역점을 두고 구축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5G 통신, 자율주행,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원 관리 효율화, 도시형 농업, 빅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 등을 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민간 차원의 구체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보다는 3국의 공통 관심 분야 중 미래지향성, 범용성, 공공성 등이 충족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및 공공 분야가 협력 논의를 시작하고 정경분리 원칙하에 민간 분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양자간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전 세계 미래 과제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확산,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간 협력과 스타트업 공동투자 기금 조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정책 단위에서 혁신 정책 및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공통 혁신 정책 과제를 발굴할 수 있는 혁신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거나, 기존에 조성된 양자 협력 R&D 투자기금이나 산업클러스터 공유 협력,

137)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2021).

IT, 보건의료, 에너지 등 주요 기술의 공공 부문 활용 방안 공유 등을 3국간 협력으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3각 협력 당사자의 한 축인 UAE와 이스라엘이 역내 정치 · 외교적 갈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호협의하에 협력 사업을 발굴 · 기획하는 것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간 두터운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해온 한 · UAE 및 한 · 이스라엘 양자 관계를 바탕으로 3자 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 수요가 뚜렷한 분야를 찾아내는 방향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아랍 · 이스라엘 간 정치 · 외교적 문제에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 경제적 유인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및 공공 분야가 협력의 틀을 제안하는 이니셔티브를 가지지만 궁극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간 분야의 경제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UAE 및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구상과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김현범, 안 령. 2018.『사우디 IKTVA, 아랍에미리트 ICV 제도 도입 현황과 시사점』. KOTRA.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21.「창간 기념행사: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와 주한 이스라엘 대사와의 대화 아브라함 평화협정의 장래」,『아시아 브리프』, 1(8). (4월 26일)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2018.『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 18-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20.『저유가 시기 GCC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기범. 2020.「동지중해를 놓고 터키를 압박하고 있는 그리스 (상) -그리스와 이집트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해군』, 517. 아산정책연구원. (10월 19일)

인남식. 2020.『이스라엘·UAE 평화협정(아브라함 협정)의 함의』. IFANS Focus IF 2020-15K. 외교안보연구소. (8월 28일)

장지향. 2019.「배신과 일탈의 동맹 정치: 미국의 시리아 철군과 터키의 쿠르드 공격」.『아산 이슈브리프』, 2019-27. 아산정책연구원. (11월 26일)

_____. 2021.「바이든 시대 중동정책의 특징과 도전」.『아산 이슈브리프』, 2021-10. 아산정책연구원. (3월 9일)

장지향, 박현도. 2021.「2021년 이란 대선 분석과 향후 중동 정세 변화 전망」.『아산 이슈브리프』, 2021-24. 아산정책연구원. (9월 1일)

장지향, 유아름. 2021.「UAE·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정책과 청년 의식 변화의 역할」.『아산 이슈브리프』, 2021-19. 아산정책연구원. (6월 8일)

KOTRA. 2020.『2020 중동 주요국 스마트 테크 수요와 진출 방안』. KOTRA자료 20-204. KOTRA 중동지역본부·융복합산업팀.

_____. 2021.『2021 국별 진출전략: 이스라엘』. KOTRA자료 21-081.

[영문자료]

Batuman, Bülent. 2010. "The Shape of the Nation: Visual Production of Nationalism Through Maps in Turkey." *Political Geography,* 29(4), pp. 220-234.

Brown, Philip Marshall. 1924. "From Sèvres to Lausanne 1."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1), pp. 113-116.

De Hoog, Niels. 2021. "Israel-UAE peace treaty: great for trade, but long-term value will take time to develop." *Atradius Economic Research*. Atradius NV. (April)

Economist Group. 2021. *Global Food Security Index 2021.*

Finger, Joseph M. and Mordechai E. Kreinin. 1979. "A Measure of 'Export Similarity' and Its Possible Uses." *Economic Journal,* 89(356), pp. 905-912.

Fitch Solutions. 2021. *Israe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21.*

Forozan, Hesam and Afshin Shahi. 2017. "The Military and the State in Iran: The Economic Rise of the Revolutionary Guards." *Middle East Journal,* 71(1), pp. 67-86. (Winter)

Fuchs, Simon Wolfgang. 2021. "A Direct Flight to Revolution: Maududi, Divine Sovereignty, and the 1979-Moment in Iran."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Series 3.

Griliches, Zvi. 1990. "Patent Statistics as Economic Indicator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4), pp. 1661-1707.

Hinnebusch, Raymond. 2015. "Back to enmity: Turkey-Syria relations since the Syrian Uprising." *Journal of German Orient Institute,* 56(1), pp. 14-22. Orient.

Hounshell, Blake. 2012. "The Qatar bubble." *Foreign Policy.* (May-June)

Khatib, Lina. 2013. "Qatar's foreign policy: the limits of pragmatism." *International Affairs,* 89(2), pp. 417-431.

Kramer, Martin. 2009. *Arab Awakening and Islamic Revival.* Transaction.

Ostovar, Afshon. 2013. "Iran's Basij: Membership in a Militant Islamist Organization." *Middle East Journal*, 67(3). (Summer)

Öztürk, Ahmet Erdi. 2016. "Turkey's Diyanet Under AKP Rule: From Protector to Imposer of State Ideology?" *Southeast European and Black Sea Studies*, 16(4), pp. 619-635.

Özkan, Behlül. 2014. "Turkey, Davutoglu and the idea of pan-Islamism." *Survival*, 56(4), pp. 119-140.

Roberts, David B. 2011. "Behind Qatar's intervention in Libya: Why Was Doha Such A Strong Supporter of The Rebels?" *Foreign Affairs*. (September 28)

Rossiter, Ash and Brendon J. Cannon. 2019. "Re-Examining the "Base": The Political and Security Dimensions of Turkey's Military Presen ce in Somalia." *Insight Turkey,* 21(1), pp. 167-188.

Sarfati, Yusuf. 2019. "Religious Authority in Turkey: Hegemony and Resistance." *Baker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ice University. pp. 1-17. (March)

Sworder, Chris, Louisiana Salge, and Henri Van Soest. 2017. *Global Cleantech Innovation Index 2017.* Cleantech Group.

UNCTAD. 2020. *World Investment Report 2020*. United Nations Publications.

World Economic Forum. 2020. "How Countries are Performing on the Road to Recovery."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Special Edition.* (December 16)

Zurcher, Erik-Jan. 2013. "Ottoman Sources of Kemalist Thought." Elisabeth Özdalga ed. *Late Ottoman Society: The Intellectual Legacy*. eRoutledge.

[언론/보도자료]

정진한. 「[글로컬 오디세이] 중동평화협정 이후, 이스라엘 대 한국」. 2021. 『교수신문』. (7월 15일).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1810(검색일: 2021. 8. 2).

Albright, Madeleine K. and Stephen Hadley. 2020. "How Trump's Middle East Plan Could Boost the Region." *Politico*. (September 15). https://www.politico.com/news/magazine/2020/09/15/albright-hadley-middle-east-israel-414706(검색일: 2021. 5. 18).

"Arab-Islamic-American Summit Kicks off in Riyadh." 2017. *Saudi Press Agency*. (May 21). https://www.spa.gov.sa/1632441(검색일: 2021. 8. 9).

Asadzade, Peyman. 2017. "Iran's involvement in Syria is costly. Here's why most Iranians still support it." *The Washington Post.* (October 19).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monkey-cage/wp/2017/10/19/irans-involvement-in-syria-is-costly-heres-why-most-iranians-still-support-it/(검색일: 2021. 7. 24).

Barakat, Sultan. 2021. "Qatar-GCC agreement: A victory for measured diplomacy." *Aljazeera.* (January 8).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1/1/8/qatar-gcc-agreement-a-victory-for-measured-diplomacy(검색일: 2021. 6. 1).

Batrawy, Aya. 2020. "Quiet ties and secret talks paved way for UAE-Israel deal." *The Washington Post.* (August 19).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uae-israel-agreement-followed-many-years-of-discrete-talks/2020/08/19/b82ac4ba-e1d4-11ea-82d8-5e55d47e90ca_story.html(검색일: 2021. 5. 18).

Butler, Daren. 2018. "With More Islamic Schooling, Erdogan Aims to Reshape Turkey." *Reuters.* (January 25). https://www.reuters.com/investigates/special-report/turkey-erdogan-education/(검색일: 2021. 7. 5).

Butler, Daren and Tuvan Gumrukcu. 2019. "Turkey signs maritime boundaries deal with Libya amid exploration row." *Reuters.* (November 28). https://www.reuters.com/article/us-turkey-libya-idUSKBN1Y213I(검색일: 2021. 6. 30).

Carassava, Anthee. 2020. "Greece-Egypt Maritime Deal Aimed at Stemming Turkish Designs in Eastern Mediterranean." *VOA News.* (August 7). https://www.voanews.com/europe/greece-egypt-maritime-deal-aimed-stemming-turkish-designs-eastern-mediterranean(검색일: 2021. 6. 22).

"China, Turkey reject politicization of COVID-19 vaccine cooperation." 2021. *China Daily.* (March 26). https://global.chinadaily.com.cn/a/202103/26/WS605d415aa31024ad0bab1c53.html(검색일: 2021. 8. 4).

Chulov, Martin. 2017. "I will return Saudi Arabia to moderate Islam, says crown prince." *The Guardian.* (October 24).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4/i-will-return-saudi-arabia-moderate-islam-crown-prince(검색일: 2021. 8. 1).

"Eastern Mediterranean countries to form regional gas market." 2019. *Reuters.* (January 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egypt-energy-gas-idUSKCN1P81FG(검색일: 2021. 9. 1).

"Egypt's parliament approves troop deployment in Libya." 2020. *Deutsche Welle.* (July 20). https://www.dw.com/en/egypts-parliament-approves-troop-deployment-in-libya/a-54247567(검색일: 2021. 6. 30).

Emmott, Robin, John Chalmers, and Tuvan Gumrukcu. 2021. "Exclusive: EU halts sanctions on Turkey oil executives as ties improve." *Reuters.* (March 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turkey-eu-exclusive-idUSKBN2BA1KP(검색일: 2021. 7. 30).

Erdoğan, Recep Tayyip. 2020. "Road to peace in Libya goes through Turkey." *Politico.* (January 18). https://www.politico.eu/article/road-to-peace-in-libya-goes-through-turkey-khalifa-haftar/(검색일: 2021. 8. 25).

Friedman, Thomas L. 2020. "A Geopolitical Earthquake Just Hit the Mideast." *The New York Times.* (August 13). https://www.nytimes.com/2020/08/13/opinion/israel-uae.html(검색일: 2021. 5. 18).

Friedman, Thomas L. 2021. "Jumping Jehoshaphat! Have You Seen How Many Israelis Just Visited the U.A.E.?" *The New York Times.* (March 2). https://www.nytimes.com/2021/03/02/opinion/israel-united-arab-emirates-mideast.html(검색일: 2021. 6. 3).

Gall, Carlotta. 2018. "Erdogan's Plan to Raise a 'Pious Generation' Divides Parents in Turkey." *The New York Times.* (June 18). https://www.nytimes.com/2018/06/18/world/europe/erdogan-turkey-election-religious-schools.html(검색일: 2021. 8. 8).

Gökhan Ereli. 2020. "FETÖ ve BAE'nin Dış Politikasında Terör Örgütleri." *Kriter.*

Gurcan, Metin. 2021. "Turkey, China assert rapprochement despite Uyghur protests, vaccine delay." *Al-Monitor.* (March 30).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1/03/turkey-china-assert-rapprochement-despite-uyghur-protests-vaccine-delay(검색일: 2021. 8. 19).

"Hardball with Chris Matthews: King Abdullah II of Jordan." 2004. *NBC.*

(December 9). https://www.nbcnews.com/id/wbna6679774(검색일: 2021. 8. 3).

"IKBY'de BAE'den terör örgütü PKK'ya para transferi iddias ı ." 2020. *Anadolu Agency.* (June 14). https://www.aa.com.tr/tr/dunya/ikbyde-baeden-teror-orgutu-pkkya-para-transferi-iddiasi-/1876468(검색일: 2021. 8. 3).

"In overseas trip, Biden to meet Turkey's Erdogan, UK's queen." 2021. *Al-Jazeera.* (June 3). https://www.aljazeera.com/news/2021/6/3/in-first-overseas-biden-to-meet-turkeys-erdogan-britains-queen(검색일: 2021. 6. 7).

"Iran's supreme leader 'the new Hitler', says Saudi crown prince." 2017. *BBC.* (November 24). https://www.bbc.com/news/world-middle-east-42108986(검색일: 2021. 9. 4).

"Israel, UAE talk about Free Trade Agreement." 2021. *Goa Chronicle.* (June 30). https://goachronicle.com/israel-uae-talk-about-free-trade-agreement/(검색일: 2021. 9. 23).

Kanc ı , Mehmet A. 2019. "Mavi Vatan' ı savunmak." *Anadolu Agency.* (November 26). https://www.aa.com.tr/tr/analiz/mavi-vatan-i-savunmak/1655862(검색일: 2021. 8. 3).

Kington, Tom. 2020. "Libya is turning into a battle lab for air warfare." *Defence News.* (August 6). https://www.defensenews.com/smr/nato-air-power/2020/08/06/libya-is-turning-into-a-battle-lab-for-air-warfare/(검색일: 2021. 8. 27).

Landler, Mark. 2016. "Obama Criticizes the 'Free Riders' Among America's Allies." *The New York Times.* (March 10). https://www.nytimes.com/2016/03/10/world/middleeast/obama-criticizes-the-free-riders-among-americas-allies.html(검색일: 2021. 7. 21).

"NATO must keep Turkey close despite differences, Blinken says." 2021. *Reuters.* (March 23). https://www.reuters.com/article/usa-blinken-nato-turkey-int-idUSKBN2BF12Q(검색일: 2021. 7. 14).

Nissenbaum, Dion. 2020. "Secret Ties Between U.A.E. and Israel Paved Way for Diplomatic Rela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August 14). https://www.wsj.com/articles/secret-ties-between-u-a-e-an

d-israel-paved-way-for-diplomatic-relations-11597428382(검색일: 2021. 5. 18).

Pamuk, Humeyra. 2021. "U.S. Says Biden, Erdogan agreed on Afghanistan, but S-400 issue is unresolved." *Reuters.* (June 18).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biden-erdogan-agreed-turkey-take-lead-securing-kabul-airport-us-aide-2021-06-17/(검색일: 2021. 8. 9).

Pearson, W. Robert. 2021. "The future for the US and Turkey." *Middle East Institute.* (April 7). https://www.mei.edu/publications/future-us-and-turkey(검색일: 2021. 8. 16).

Rahmanian, Maryam, Aresu Eqbali, and Sune Engel. 2020. "One Iranian Woman's Year in the Shadow of U.S. Sanctions and Covid-19."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3). https://www.wsj.com/articles/one-iranian-womans-year-in-the-shadow-of-u-s-sanctions-and-covid-19-11608732119(검색일: 2021. 7. 21).

Scheer, Steven. 2021. "Israel to open economic office in Abu Dhabi to boost Gulf investment." *Reuters.* (June 2).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srael-open-economic-office-abu-dhabi-boost-gulf-investment-2021-06-01/(검색일: 2021. 8. 6).

"Son dakika. Libya'da kritik gelişme! Abluka altı na alı yorlar." 2020. Hürriyet. (July 6). https://www.hurriyet.com.tr/dunya/son-dakika-libyada-kritik-gelisme-abluka-altina-aliyorlar-41535833(검색일: 2021. 7. 29).

"Transcript: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s full interview on Vision 2030." 2021. *Alarabiya News.* (April 29). https://english.alarabiya.net/News/gulf/2021/04/28/Transcript-Saudi-Crown-Prince-Mohammed-bin-Salman-s-full-interview-on-Vision-2030-(검색일: 2021. 9. 1).

"Turkey, Libya, Malta 'agree on joint cooperation'." 2020. *Hurriye Daily News.* (August 7).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ey-libya-malta-agree-on-joint-cooperation-157195(검색일: 2021. 6. 5).

"Turkey Got a $1 Billion Foreign Cash Boost From China in June." 2019. *Bloomberg.* (August 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8-09/turkey-got-1-billion-from-china-swap-in-june-boost-to-reserves(검색일: 2021. 6. 5).

"Turkey to start using China's Sinovac COVID-19 vaccine after strong results." 2020. *Gulf News.* (December 25). https://gulfnews.com/world/europe/turkey-to-start-using-chinas-sinovac-covid-19-vaccine-after-strong-results-1.76113066(검색일: 2021. 7. 19).

"Turkey-US ties won't go anywhere unless YPG problem is resolved: Defense minister." 2021. *Hurriyet Daily News.* (February 9). https://www.hurriyetdailynews.com/turkey-us-ties-wont-go-anywhere-unless-ypg-problem-is-resolved-defense-minister-162280(검색일: 2021. 8. 4).

"UAE and Israel take first FDI steps together." 2021. *Investment Monitor.* (January 27). https://www.investmentmonitor.ai/middle-east-north-africa/fdi-between-israel-and-the-uae(검색일: 2021. 9. 30).

"UAE, Israeli cyber chiefs discuss joining forces to combat common threats." 2020. *Reuters.* (September 25). https://www.reuters.com/article/us-israel-gulf-emirates-cyber-idUKKCN26F2UK(검색일: 2021. 8. 26).

"UAE official tells Turkey to stop meddling in Arab affairs over Libya." 2020. *Arab News.* (August 2). https://www.arabnews.com/node/1713091/middle-east(검색일: 2021. 7. 4).

"UAE Sends Four F-16 Jets To Support Greece Against Turkey." 2020. *Eurasian Times.* (August 26). https://eurasiantimes.com/uae-sends-four-f-16-jets-to-support-greece-against-turkey/(검색일: 2021. 7. 16).

"UAE under fire for funding incitement targeting Turkey, Qatar." 2020. *Daily Sabah.* (October 5). https://www.dailysabah.com/politics/diplomacy/uae-under-fire-for-funding-incitement-targeting-turkey-qatar? gallery_image=undefined#big(검색일: 2021. 8. 3).

Vavasseur, Xavier. 2020. "France Pulls Out Of NATO Operation Sea Guardian Amid Tensions With Turkey." *Naval News.* (July 3).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0/07/france-pulls-out-of-nato-operation-sea-guardian-amid-tensions-with-turkey/(검색일: 2021. 8. 3).

Yalçınalp, Esra and Emre Temel. 2020. "Mavi Vatan nasıl doğdu? Doktrinin mimarları Cem Gürdeniz ve Cihat Yaycı anlatıyor." *BBC.* (September 10). https://www.bbc.com/turkce/haberler-turkiye-54096105(검색일: 2021. 8. 21).

"Young Prince in a Hurry." 2016. *The Economist.* (January 9).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6/01/09/young-prince-in-a-hurry (검색일: 2021. 8. 3).

Zain, Khalil. 2020. "Israel, Morocco sign first economic agreement." *Anadolu Agency.* (December 30). https://www.aa.com.tr/en/africa/israel-morocco-sign-first-economic-agreement/2092868 (검색일: 2021. 9. 1).

"Zarif: B-Team thirsts for war with Iran." 2019. *Teheran Times.* (June 25). https://www.tehrantimes.com/news/437398/Zarif-B-Team-thirsts-for-war-with-Iran(검색일: 2021. 7. 21).

[온라인/DB 자료]

이스라엘 중앙통계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http://www.cbs.gov.il/ (검색일: 2021. 8. 24).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검색일: 2021. 12. 1).

Akp ı nar, P ı nar. 2017. "From Benign Donor to Self-Assured Security Provider: Turkey's Policy in Somalia." *IPC Policy Brief.* (December).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3219525_From_Benign_Donor_to_Self-Assured_Security_Provider_Turkey%27s_Policy_in_Somalia(검색일; 2021. 8. 14).

Al-Anani, Khalil. 2021. "Explaining Egypt's Role during the Gaza War." *Arab Center Washington DC.* (June 3). http://arabcenterdc.org/policy_analyses/explaining-egypts-role-during-the-gaza-war/(검색일: 2021. 7. 15).

Al-Ketbi, Ebtesam, Dore Gold, Barbara A. Leaf, and David Makovsky. 2020. "The UAE-Israel Breakthrough: Bilateral and Regional Implications and U.S. Policy."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PolicyWatch 3377. (September 14).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uae-israel-breakthrough-bilateral-and-regional-implications-and-us-policy(검색일: 2021. 5. 18).

Al Marzooqi, Omar, Salman Sarwar, and Zach Schenk. 2021. "Israel-UAE Normalization: Poised for Economic Breakout."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April 14). https://agsiw.org/israel-uae-normalization-poised-for-economic-breakout/(검색일: 2021. 9. 1).

Al Otaiba, Yousef. 2020. "Statements and Reactions regarding UAE-Israel Peace Accord." *Embassy of the United Arab Emirates in Washington DC*. (August 22). https://www.uae-embassy.org/news-media/uae-israel-peace-accord-statements(검색일: 2021. 8. 6).

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 2015-2020. *The Arab Opinion Index: Main Results in Brief*. http://arabcenterdc.org/publications/public-opinion-surveys/(검색일: 2021. 4. 15).

ASDA'A Burson-Masteller. 2011. "Arab Youth Survey 2010." http://arabyouthsurvey.com(검색일: 2021. 4. 15).

———. 2014. "Arab Youth Survey 2014: We want to embrace modern values." http://arabyouthsurvey.com(검색일: 2021. 4. 15).

Atef, Maged. 2021. "Turkish-Egyptian Relations after Erdoğan's Sacrifice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March 25).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turkish-egyptian-relations-after-erdogans-sacrifice-muslim-brotherhood(검색일: 2021. 7. 5).

Barkey, Henri J. 2019. "The Kurdish Awakening: Unity, Betrayal, and the Future of the Middle East." *Foreign Affairs*. (March/April).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urkey/2019-02-12/kurdish-awakening(검색일: 2021. 7. 5).

Bizaer, Maysam. 2020. "How the UAE-Israel deal could change the regional power balance." *Middle East Institute*. (November 2). https://www.mei.edu/publications/how-uae-israel-deal-could-change-regional-power-balance(검색일: 2021. 5. 18).

Bloomberg. *Bloomberg Innovation Index*. https://www.bloomberg.com/news/terminal/QNX2XDT1UM0Y(검색일: 2021. 9. 1).

Calabrese, John. 2020. "The Bab el-Mandeb Strait: Regional and great power rivalries on the shores of the Red Sea." *Middle East Institute*. (January 29). https://www.mei.edu/publications/bab-el-mandeb-strait-regional-and-great-power-rivalries-shores-red-sea(검색일: 2021. 8. 22).

Colakoğlu, Selçuk. 2019. "Turkey's Asia Anew Initiative: Assessment and

Shortcomings." *Middle East Institute.* (October 15). https://www.mei.edu/publications/turkeys-asia-anew-initiative-assessment-and-shortcomings(검색일: 2021. 8. 11).

Egeresi, Zoltán. 2020. "How the Abraham Accords affected the Turkish Foreign Policy?" *The Moshe Dayan Center for Middle Eastern and African Studies.* (October 15). https://dayan.org/content/how-abraham-accords-affected-turkish-foreign-policy(검색일: 2021. 8. 30).

Fakhro, Elham. 2021. "Selling Normalization in the Gulf." *Middle East Report Online.* (June 23). https://merip.org/2021/06/selling-normalization-in-the-gulf/(검색일: 2021. 8. 6).

Guzansky, Yoel and Gallia Lindenstrauss. 2021. "The Growing Alignment Between the Gulf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Middle East Institute Policy Analysis.* (May 25). https://www.mei.edu/publications/growing-alignment-between-gulf-and-eastern-mediterranean(검색일: 2021. 7. 15).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1 Edition*.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1/April(검색일: 2021. 6. 1).

Jacobs, Anna L. 2021. "Qatar's Regional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After Al Ula." *The Arab Gulf States Institute in Washington.* (April 14). https://agsiw.org/qatars-regional-relations-and-foreign-policy-after-al-ula/(검색일: 2021. 7. 19).

Kamrava, Mehran and Hamideh Dorzadeh. 2020. "Arab Opinion Toward Iran 2019/2020." *Arab Center for Research and Policy Studies in Doha.* https://www.dohainstitute.org/en/ResearchAndStudies/Pages/Arab-Opinion-Toward-Iran-2019-2020.aspx(검색일: 2021. 4. 15).

Kimura, Takaaki. 2021.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Patent Harmonization": Part 1." (May 6).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6bd89cb6-54b4-4ce6-87d4-68530b438138(검색일: 2021. 9. 3).

Lane, Ashley. 2021. "Iran's Islamist Proxies in the Middle East." *Wilson Center.* (May 20).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irans-islamist-proxies(검색일: 2021. 7. 24).

Lepeska, David. 2015. "Turkey Casts the Diyanet: Ankara's Religious

Directorate Takes Off." *Foreign Affairs.* (May 17).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urkey/2015-05-17/turkey-casts-diyanet(검색일: 2021. 8. 12).

Lindenstrauss, Gallia and Eldad Shavit. 2021. "From Crisis to Crisis: Turkey-US Relations at a Low Point." INSS Insight No. 1465. (May 6). https://www.inss.org.il/publication/biden-turkey/INSS(검색일: 2021. 7. 3).

Mandaville, Peter and Hamid Shadi. 2018. "Islam as statecraft: How governments use religion in foreign policy." *The Brookings Institution.* (November). https://www.brookings.edu/research/islam-as-statecraft-how-governments-use-religion-in-foreign-policy/(검색일: 2021. 8. 12).

Maziad, Marwa and Sotiriadis Jake. 2020. "Turkey's Dangerous New Exports: Pan-Islamist, Neo-Ottoman Visions and Regional Instability." *Middle East Institute.* (April 21). https://www.mei.edu/publications/turkeys-dangerous-new-exports-pan-islamist-neo-ottoman-visions-and-regional(검색일: 2021. 8. 13).

Nasi, Selin. 2021. "The way forward for Turkish-American relations: Partnership à la carte?" *Moshe Dayan Center for Middle Eastern and African Studies.* (April 13). https://dayan.org/content/way-forward-turkish-american-relations-partnership-la-carte(검색일: 2021. 9. 1).

OECD. 2021. "Gross domestic spending on R&D." https://data.oecd.org/rd/gross-domestic-spending-on-r-d.htm(검색일: 2021. 9. 1).

Panetta, Leon. 2020. "This Is what courage looks like in the Middle East." *The Hill.* (September 17).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16833-leon-panetta-this-is-what-courage-looks-like-in-the-middle-east(검색일: 2021. 5. 18).

Soliman, Mohammed. 2021. "How tech is cementing the UAE-Israel alliance." *Middle East Institute.* (May 11). https://www.mei.edu/publications/how-tech-cementing-uae-israel-alliance(검색일: 2021. 8. 23).

The Central Bank of Turkey. 2021.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January). https://www.tcmb.gov.tr/wps/wcm/connect/EN/TCMB+EN/Main+Menu/Statistics/Balance+of+Payments+and+Related+

Statistics/International+Investment+Position/(검색일: 2021. 7. 5).
Tol, Gonul. 2019. "Turkey's Bid for Religious Leadership: How the AKP Uses Islamic Soft Power." *Foreign Affairs*. (January 1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urkey/2019-01-10/turkeys-bid-religious-leadership(검색일: 2021. 7. 8).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21. 9. 1).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20. "International Migrant Stock 2020: Destination."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undesa_pd_2020_ims_stock_by_sex_and_destination.xlsx(검색일: 2021. 12. 1).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USPTO). 2021. "Number of Utility Patent Applications Filed in the United States, By Country of Origin, Calendar Years 1965 to Present (1)." https://www.uspto.gov/web/offices/ac/ido/oeip/taf/appl_yr.htm(검색일: 2021. 10. 7).
Valansi, Karel. 2021. "Turkey is seeking a fresh start with Israel." *Atlantic Council*. (March 10).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turkeysource/turkey-is-seeking-a-fresh-start-with-israel/(검색일: 2021. 7. 2).
World Bank. Data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s://databank.worldbank.org/(검색일: 2021. 12. 1).
Zogby, James, Elizabeth Zogby, and Sarah Hope Zogby. 2019. "Looking to the Next Decade: Arab, Turkish & Iranian Opinion." *Zogby Research Services*.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2750dd3e4b08c252c723404/t/5e18df6a0375df3ce80ff6bb/1578688363493/2019+SBY+standalone.pdfstatic/52750dd3e4b08c252c723404/t/5e18df6a0375df3ce80ff6bb/1578688363493/2019+SBY+standalone.pdf(검색일: 2021. 4. 15).

[인터뷰 자료]

이스라엘 경제연구소 Paul Rivlin 박사 서면 인터뷰(2021. 7).

Executive Summary

Regional Security in the Era of Arab-Israeli Détent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Dahn Park, Hyondo Park, Il-Kwang Sung, Ji-Hyang Jang, and Jae Wook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changes in the regional order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Middle East after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Arab countries and Israel in 2020 and to explore potential areas i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Israel, and the Arab World. In order words, it aims to infer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order in the Middle East and their implications from various viewpoints and to seek our response strategies.

Chapter 2 explores the idea that the Iranian threat and the United States withdrawal from the Middle East have led to the recent Arab-Israeli détente and their subsequent cooperation. After the Islamic Revolution in Iran in 1979,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intensified along the fault line between the Arab Sunni monarchies and the Islamic Revolutionary forces of Iran. This confrontation is currently in progress. The Chapter also points out that si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pivoted to Asia, leaving the Middle East and leading from behind in the region, which has resulted in the current Arab-Israel détente.

Chapter 3 examines the transformations in the political and security order in the region after the Arab-Israeli détente and analyzes the confrontational process between the new détente alliance of Sunni Arab countries led by the UAE, Saudi Arabia, and Bahrain and Israel on the one

hand, and the Shiite coalition of Iran, Houthi, and Hezbollah on the other. We examine the changes in the foreign policies of Qatar and Turkey, which are pro-Islamic, after the signing of the Abraham Accords. Qatar maintains friendly relations with Iran and Turkey and has recently been work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the neighboring Gulf countries. The UAE, Bahrain and Qatar have expressed their support for Saudi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after the United States released reports on the murder of Saudi journalist Jamal Khashoggi and the Crown Prince's approval of the killing. Meanwhile, Turkey has recently begun to express a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urkey, with the second-largest military forces among NATO countries, occupies a key geopolitical position in safeguarding European security, even though it is far from a democratic country. Given tha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tinues to grow, an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balances values and interests in reestablishing relations with Turkey, Turkey-US relations could not only be regenerated, but also have profound effects in the region.

Chapter 4 discusses increas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rab countries and Israel after the Arab-Israeli détente, specifically cooperation between the UAE and Israel and between Bahrain and Israel. By March 2021, UAE and Israel had signed more than 86 bilateral agreements. Since the signing of the Abraham Accords in September 2020,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creased rapidly in about a year. According to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Israel (CBS), bilateral trade between the UAE and Israel recorded approximately $500 million from September 2020 to July 2021. Israel's exports to the UAE in the first half of 2021 amounted to $120 million, expanded by 14.4 time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period. In both 2019 and 2020, no Israeli import from the UAE was reported, but in the first half of 2021 alone, it recorded about $240 million. The total trade in the first half of 2021 was about

$360 million, which is a 42.9 times increase from the sam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Bahrain and Israel signed eight bilateral agreements in October 2020, five of which were related to economic cooperation. The cooperation agenda covered fields of economy and trade, avi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griculture, and finance. In December 2020, three additional memorandums of cooperation were signed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development. While there was no trade between Israel and Bahrain before the signing of the Abraham Accords, the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first half of 2021 has reached $300,000.

Finally, Chapter 5 presents policy suggestions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ajor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the UAE,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chapters. In so doing, it proposes several ways to discover new opportunities and chances in Korea-Middle East economic cooperation after Arab-Israeli relational changes, namely close monitoring on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s, utilizing the Korea-Israel FTA to find potential markets in the middle east, and triangula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Israel, and UAE. It will take a long time to stabilize the Arab-Israeli relationship because many complicated geopolitical factors need to be settled down and resolved. As significant ups and downs are expected in the future, even with new changes, including expanded UAE-Israel economic cooperation, Korea should prepare for any volatile situations and be ready for a strategic response to them. However, it is too complicated for individual companies to anticipate and prepare for such cases. Therefore, at the government level, it is necessary to inform and coordinate the strategic directions and forecast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in the Middle East. At least for now, Korean companies entering the Middle East and targeting the Arab markets should take a

proactive strategy of seeking to create new business opportunities rather than a passive, wait-and-see strategy, considering the competition with Israel in the same market.

If Israel's political disadvantage in the Middle East market is resolved a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rab countries and Israel deepens, Korean firms can consider a new route of exporting to the Middle East market, promoting Israel as a reliable base. As the cooperation areas of the Korea-Israel FTA encompass investment, high technology, and venture start-up in addition to trade, the Korea-Israel FTA secures access to not only the Israeli domestic market but also to the wider Middle East market through joint ventures with and local investment in Israel as an effective and productive means. In the future, if Israel forms a free trade agreement with Arab countries, such as the UAE in particular, it seems feasible for Korea to explore ways to link such an agreement with the Korea-Israel FTA.

Given the fierce political and diplomatic confrontations that the UAE and Israel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it requires a substantial effort to plan viable Korea-UAE-Israel trilateral cooperation projects from the beginning under mutual consultation among all three parties. Rather, it would be more effective and productive for Korea to start with the already consolidated, trust-based bilateral relations of either Korea-UAE or Korea-Israel in order to find a field in which the three parties can generate synergy and share mutual interests. It is again more feasible because Korea as a third party can keep a distance from Arab-Israeli confrontational issues and solely stress economic incentives. In this regard, Korea should incentivize the UAE and Israel to focus on private sectors with sufficient capacity-driven economic cooperation since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will ultimately lead to the success of cooperation as long as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s only have initiatives for cooperation.

〈책임〉

박 단

파리 1대학(팡테옹 소르본) 역사학 박사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소장
(現, E-Mail: dahn@sogang.ac.kr)

저서 및 논문

『역사 속의 유로메나』(박단 엮음, 2021),
「프랑스 내 무슬림 차별기원과 공화주의 유산」(『통합유럽연구』, 12, 2021) 외

〈공동〉

박현도

이란 테헤란대학교 신학 · 이슬람학부 종교 · 신비주의학과 이슬람학 박사
종교평화국제사업단 Religion & Peace 편집장(2010-)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
(現, E-Mail: hyondopark@hanmail.net)

저서 및 논문

『신학의 식탁』(공저,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답』(공역, 2020) 외

성일광

텔아비브 대학 중동학 박사
한국 이스라엘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연구교수
(現, E-Mail: ilkwangs@naver.com)

저서 및 논문

"Mamluks in the Modern Egyptian Mind: Changing the Memory of the Mamluks, 1919-1952"(2017) 외

장지향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정치학 박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2012~2018)
국방부 서울안보대화 자문위원(2015~2019)
정부업무평가 일자리 · 국정과제 평가전문위원(2019~2020)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동센터장
(現, E-Mail: jhjang@asaninst.org)

저서 및 논문

『중동 독재 정권의 말로와 북한의 미래』 (2018)
「비교정치학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국가역량의 현주소」(『아시아의 정치: 정치체제와 지역성』, 2021) 외

정재욱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 학사 및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및 아프리카중동팀장(전)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現, E-Mail: jwjung1224@sogang.ac.kr)

저서 및 논문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공저, 2019)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 · 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공저, 2020) 외

KIEP 세계지역전략연구 발간자료 목록

■ **2021년**

21-01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경제협력: 특성 및 파급효과 비교 / 이승호·강문수

21-02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 / 정인교·조정란·문남권·김찬우·김건영

21-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방안 / 조원빈·김경하·김은경·박현석·서상현·박홍은·최이슬

21-04 한-인도 CEPA 10년, 우리 중소기업의 성과와 정책 과제 / 송영철·홍성철·강재원·김정일·차춘경·김혜빈·이소현

21-05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강문수·정민지·박규태

21-06 신남방국가의 중소기업과 현지 한국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방안 / 이충열·이종하·이선호·이종윤

21-07 중미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주요과제와 협력방안 / 이승호·홍성우·김진오·박미숙·권혁주

21-08 아랍-이스라엘 데탕트 시대 역내 안보환경 변화와 한-중동 경제협력 확대 방안 / 박단·박현도·성일광·장지향·정재욱

21-09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와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 장영욱·조동희·이현진·정민지

21-1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디지털 전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김영석·곽재성·권기수

21-11 미중 경쟁에 대한 호주의 전략적 대응과 시사점: 호주의 대중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최인아·이선형·이재호·김소은

21-12 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한형민·김예진

21-13 코로나19의 인도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 노윤재·조승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20년

20-01 미 · 중 경쟁이 중남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홍성우·윤여준·김진오·임지운·남지민

20-02 인도 한류 분석과 문화협력 확대방안: 음악 및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 김정곤·이정미·윤지현

20-03 중국의 아세안 환경협력 분석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방안 연구 / 강택구·이상윤·심창섭·장훈·이정석

20-04 한·중미 5개국 FTA 발효에 따른 중미시장 활용방안 / 김종섭·이승호·이준희·김민정·김세원·김희라

20-05 신남방 지역 주요국의 핀테크 발전과 협력방안: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이충열·이종하·이선호·강성범

20-06 동남아시아 농업분야 개발협력사업 성공요인 분석: 지역사회 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 전제성·정연식·정법모·김희숙·백용훈·박희철·김다혜·김현경

20-07 아세안 중소도시 교통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 연구 / 이훈기·김희경·이현정·정승환

20-08 포스트 코로나 시대 GCC의 식량안보 정책과 시사점 / 장윤희·손성현·유광호

20-09 아세안 주요국의 경쟁법 비교 분석: 디지털플랫폼 시장 M&A를 중심으로 / 장영신·강구상·나승권·김제국·최재필·김수련

20-10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 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 라미령·박나연·정민지·이효진·문수현·정재욱

20-11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 강문수·정민지·문수현·박규태

20-12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 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 장용규·김경하·배유진·조준화·최두영

20-13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 협력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 / 최영출·김태성·권유경

20-14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중남미 협력방안: 의료 및 방역 부문을 중심으로 / 최금좌·오삼교·설규상·최윤국

20-15 아세안 지역 한류콘텐츠 활성화 방안 / 최진우·김새미·김지윤·모춘흥·서지원·진달용·한준성

■ 2019년

19-01 인도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마하라슈트라 주를 중심으로 / 류한별·윤지현·송영철

19-02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
정재욱·유광호·김상훈

19-03 신남방지역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
김정곤·이재호·김도연·신민이·김제국

19-04 브라질과 멕시코 환경시장 진출방안 연구 /
정경원·하상섭·장수환·장유운

19-05 한국과 메콩지역의 중장기 상생전략: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
김태윤·안동환·지성태·윤태연·Phumsith Mahasuweerachai·
이용은·김범석·김나리

19-06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
정재욱·정민지

19-07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연맹 연구를 통한 북한 여성 관련
개발협력 사업에의 시사점: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여성연맹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하·김은경·윤지소·김정수·박윤정·장영은

19-08 라틴아메리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협력방안:
안데스 국가를 중심으로 / 김영석·권기수·강정원·김유경

19-09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

19-10 한-베트남 농업분야 중장기 협력전략 수립 연구 /
허장·전형진·김상현·이효정·이병훈·이대섭·이수환·최정만

19-11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
이재훈·김경하·김은경·서상현

19-12 베트남 유아교사교육자 연수 실태와 수요 분석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안 연구 /
문무경·구자연·김혜진·Nguyen Thi My Trinh·
Nguyen Thi Lan Phuong

19-13 한-인도 항공·우주와 4차 산업 협력 연구 /
김봉훈·박정웅·유나래·권혁민

19-14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
정재욱·손성현·장윤희·유광호·정준환·이소영·이승문

19-15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영호·정민지·문수현·김예진·최영출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Studies in Global and Regional Strategies 21-08

Regional Security in the Era of Arab-Israeli Détent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Middle East

Dahn Park, Hyondo Park, Il-Kwang Sung, Ji-Hyang Jang, and Jae Wook Jung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정상화 이후 역내 정치 질서 변화와 경제협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와 아랍, 이스라엘 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모색하는 것이다. 아랍-이스라엘 데탕트와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역내 정치·안보 질서 변화와 함의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한-중동 경제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9038-6
978-89-322-9000-3(세트)

정가 7,000원